

물길따라 두마울,
영주



OR OUTDOOR
RESEARCH

HELIUM RAIN JACKET
헬리움 레인 자켓



New for Spring



ARC'TERYX





046 이달의여행

물길 따라 두 마을, 영주

경북 영주의 두 마을, 무섬마을과
순흥마을을 굽이돌아 흐르는
내성천과 죽계천을 거닐며
곳곳에 스민 이야기를 들었다.



표지 이야기

경북 영주 영주호의 용두교

‘용의 굴’이란 뜻의 이름 때문일까.
평은면 용혈리에 안긴 영주호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호수 위에
놓인 섬과 다리가 한 마리 용을 닮았다. 용의 머리 미르미르섬 끝에는
길이 150미터의 현수교, 용두교가 놓여 있다. 노을이 호수를 감싸는
시간, 용두교에서 미르미르섬을 바라보면 촘촘히 이어진 수직
철근이 용의 비늘처럼 꿈틀거린다.



AHILO

022 촬영지 여행

노란 봄은 다시 돌아온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일부를 전북 고창 청보리밭에서 촬영했다.

024 즐겨찾기

모두를 환대하는 페즈

누구나 쉬었다 가기 좋은 공간, 서울 한남동 페즈를 탐험했다.

026 여행자의 방

강아지가 먼저 웃는 호텔

두 팔 벌려 반려견을 맞이하는 경북 경주의 키녹 호텔에서 진정한 펫 프렌들리를 경험했다.

028 여행자의 물건

떠날 준비 완료

여행에 꼭 필요한 가볍고 경쾌한 패션 & 뷰티 제품을 골랐다.

034 시절, 풍경

고운 계절의 귀환

문득 왔다, 문득 사라지는 봄의 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042 전국 행사 달력

4월의 축제·공연·전시 소식

완연한 봄, 전국 곳곳의 행사를 모았다.

068 여행의 발견

흙과 돌을 찾아서, 울주를 감각하는 네 가지 방법

울산 울주에서 흙과 불의 조화를 감상하고, 돌과 바람의 이야기를 들었다.

084 함께 여행

누구나 극장에 간다

모든 관객에게 열린 공간이 되고자 노력하는 서울의 두 극장을 찾았다.

090 KTX 돋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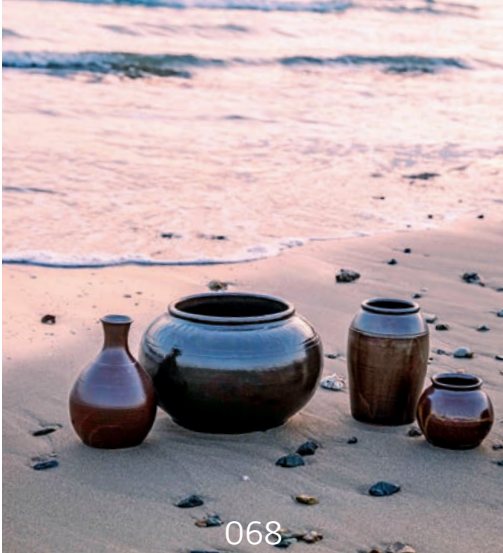
차량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KTX-산천, KTX-이음, KTX-청룡으로 이어진 KTX의 진화와 최근 개통한 열차 노선을 살폈다.

114 인터뷰

종이 위의 무용수, 이정화 서예가

온 마음을 다해 먹을 갈고 종이 위에 열정을 펼친 이정화 서예가를 만났다.



068



084



114



made in DAEJEON

대전을 만드는 공간과 사람, 일곱 가지 이야기

'노잼 도시' 대전을 '꿀잼 도시'로 만든 사람들, 대전의 상상력 넘치는 공간들을 들여다봤다.



KTX 승차권을 가져오시면 콤파니아 전국 매장에서 1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122 전시 보러 갑니다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프랑스작가 피에르 위그가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아시아 첫 개인전을 열었다.
- 134 지역 생산자들
토종 곡물 탐구 공간, 공주 곡물집
충남 공주에서 토종 곡물을 보존하고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공간과 사람을 만났다.
- 142 시장 한바퀴
장날 꽃구경, 강화풍물시장
화문석과 순무, 밴댕이 젓갈로 유명한 인천 강화풍물시장을 찾았다.
- 148 테마가 있는 골목 탐험
서촌, 취향을 찾는 여정
나도 몰랐던 취향을 발견하는 서울 서촌 편집숍을 다녀왔다.
- 154 KTX타기1시간 전
목포 원도심을 거닐다
전남 목포역을 떠나기 1시간 전, 마지막 발걸음을 찍을 곳으로 향했다.
- 160 지식 더하기
AI 시대의 예술
로봇 예술가 '아이디'의 등장으로 술렁이는 예술계의 흐름을 분석했다.
- 162 트렌드 읽기
타임머신에 올라탄 극장가
최근 극장가를 휩쓴 재개봉 영화 열풍의 이유를 진단했다.
- 164 이달의 선택
에디터가 추천하는 4월의 콘텐츠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4월의 콘텐츠를 선정했다.
- 176 플레이리스트
김사월과 떠나는 음악 여행
싱어송라이터 김사월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위한 음악을 추천했다.
-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 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KTX매거진〉은 시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이스아이 애플리케이션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글을 읽어 들려주고,
60여 개 언어로 자동 번역을 지원합니다.



122



134



142



148



2025 영주 한국선비 문화축제

선비의 온기, 만남에서 빚어진 향기

5.3.(토) ~ 5.5.(월)

문정둔치 및 순흥면 일원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2025년 4월호



제22권 제4호 통권 제250호
2025년 4월 1일 발행

발행인 한문희(한국철도공사 사장)

편집 (주)반디컴
서울시 중구 퇴계로36가길 77

편집인 박정인

편집장 최현주 ktxeditor@bandicom.com
수석 기자 김수진 ksj@bandicom.com
기자 신승희 ssong@bandicom.com
김수아 ksau@bandicom.com

객원 기자 정예지 이지혜 강은주

교열 한정아 오미경 김혜란
번역 박경리

아트 디렉터 김경배
디자이너 이원경 조경미

사진 안홍범 전재호 김은주 봉재석 황필주

광고 팀장 조현익 jony2@bandicom.com
부장 심재우 jwshim22@bandicom.com
차장 김성은 bandicom0701@bandicom.com

배포 소장 이재우

매거진 사업부 본부장 여하연 heytravel@bandicom.com
마케팅 사업부 본부장 강태선 kenkkang@naver.com

기획·제작 홍영선 nana12wq@bandicom.com

인쇄 효성인쇄사

<KTX매거진>은 KTX와 ITX-청춘 열차 전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입니다. <KTX매거진>을 보신 뒤엔 다음 승객을 위해 제자리에 꽂아 주시기 바랍니다. <KTX매거진>에 게재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도용할 수 없습니다.

문의 | 편집 070-4117-1191 광고 02-2276-1190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

KOREA PUBLIC DESIGN AWARDS

공존:
내일을 위한
공공디자인
Coexistence:
Public Design
for the Future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공공디자인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5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공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 공간을 아름답고 편리하게 조성하는데 기여한 우수한 사업과 연구를 발굴하고 시상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과 공모 요강은 공공디자인 종합정보시스템
publicdesign.kr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페스티벌
2025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Korea Craft and Design Foundation

25
2000-2025
일상의 문화를
바꾸는 우리의 미래
Our Future that changes
the Culture of Everyday Life

사람에 대한,
눈이
번쩍 뜨이는
울림

몸살을 앓으며 첫 문장을 떠올린 기자가 마침내 원고를 마무리했을 때, 그의 첫 독자로 글을 읽는 건 설렘과 긴장을 안겨 줍니다. 글 속에서 기자는 어느 호젓한 숲길을 걷고, 시골 장터를 헤매는 가 하면, 식은땀 흘리며 아슬아슬한 다리를 건너기도 하죠. 그의 발걸음을 따라 걷다 보면, 편집장의 일이란 책상에 앉아가 보지 않은 장소와 들어 보지 못한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글 주인이 써 내려간 문장과 문장, 첨표와 마침표 사이엔 어떤 장면이 숨어 있을까. 현장에서 기자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번 4월호를 만들 때는 그런 기분이 더 들었습니다. 왜일까, 생각해 보니 이달엔 유독 기자들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기만의 이야기와 철학을 가진 사람들. 칼럼 곳곳에서 이런분을 만나는 건 신나는 일입니다.

먼저 김수진 수석 기자는 경북 영주를 찾아 50년 넘게 영풍장도를 만들어 온 이면규 장도장과 가문의 360년 된 고택을 지키는 박천세, 장춘옥 부부를 만났습니다. 전통을 잇는 물건과 조상의 흔이 담긴 옛집을 소중히 여기는 일은 지난한 노력과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하죠. 뚝심 있게 자신의 철학을 지켜 가는 분들이 있어 선비촌과 무섬마을에 더가 보고 싶었습니다.

김수아 기자는 서울의 이르크·대학로예술극장과 모두예술극장을 찾아 이유진 접근성 PD와 신현우 무대감독을 만났습니다. 두 극장은 장애인 관객의 공연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배우들의 공연 활동을 돕는 예술 공간, 일명 배리어프리(barrier-free) 극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해 스크린에 자막을 띄우고, 무대에 수어 통역사가 오르는 극장. 이곳에서 이유진 접근성 PD는 소음 감소 헤드셋과 감정 카드가 든 '도움 가방'을 기획해 제공하고, 신현우 무대감독은 시각장애 배우가 무대를 감각할 수 있도록 훔듯이 무대 위를 함께 걷습니다. 고백하자면, 저에게 이런 공간, 이런 분들의 존재는 생소했습니다. 김수아 기자의 안내로 처음 발을 들인 극장에서 저는 두 분을 만나는 행운까지 얻었습니다. 낯설지만 강렬한 울림.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연극 <젤리 피쉬>가 더욱 보고 싶어졌습니다.

이탈 신송희 기자가 전남 목포에서 만난 분도 빼놓을 수 없네요. 목포역 부근에 있는 이탈리아 레스토랑 ‘피렌체역’의 오너 셰프, 박석민 대표 이야기입니다. 전직 목포역장에서 지금은 피렌체역장이 된 분. 퇴임 후 이탈리아로 날아가 요리를 배우고, 예술에 대한 남다른 사랑으로 레스토랑을 미술관처럼 꾸민 이야기는 들을수록 흥미롭습니다. 그럼 맛은 어떨까. 궁금해서 피렌체역에 꼭 가 봐야겠습니다.

이 외에 울산·울주 외고산옹기마을에서 태어나 평생 옹기를 빚은 허진규 옹기장, 지역 농부들과 협력해 토종 곡물을 탐구하는 충남 공주 '곡물집'의 김현정 대표 이야기도 귀를 쫓긋 세우게 합니다. 인천 강화풍물시장에서 아들 부부와 순무 김치를 담그는 박경애 대표와 땀방이무침을 낚그릇에 담아내는 정복남 대표의 사연도 맛깔납니다. 이달 <KTX매거진>에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분이 등장합니다. 긴 호흡으로 찬찬히 만나 보세요. 여러분의 4월을 응원합니다.

편집장 최현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연 등 회

YEON
DEUNG
HOE
燃燈會

전통등전시회

4월 16일(수)~ 5월 6일(화)
조계사, 봉은사, 공예박물관

연등행렬

4월 26일(토)
오후 7시, 흥인지문~종각

대동한마당

4월 26일(토)
오후 9시 30분, 종각

전통문화마당, 공연마당

4월 27일(일)
오전 11시~오후 7시
조계사 앞길

2025
4.26-4.27

LOTUS LANTERN FESTIVAL
www.llf.or.kr

언제 어디서나 <KTX매거진>

<KTX매거진>을 발견한 순간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주한 여행지는 어디였나요?

@ksca19



♥ 👤 ↗

서울가는 기차안, 잡지 표지를 화려하게 장식한 강원도 삼척과 강릉의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가 보고 싶었던 두 지역이라 반갑다. 평일과 주말 중 언제가 좋을까. 어서 여행 계획을 세워야겠다.
#KTX매거진 #기차타고삼척 #강릉 #곧가야지

@lovely_young42



♥ 👤 ↗

3월이 찾아오니 여기저기서 봄꽃 소식이 들려온다. 강원도 삼척의 명소부터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진해군항제, 그리고 광까지 모두 만난다. 전국 맛집도 알려 주는 알찬 잡지 덕분에.
#집으로가는길 #KTX #KTX매거진 #전국여행

@ktxmazine 계정을 태그하거나 #KTX매거진 해시태그를 달아 주시면 여러분의 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창숙 경주시 용담로
3월호에 소개한 한남동 디저트 가게 세르클의 대표 메뉴 세르클을 보고 딸이 생각났다. 서울에 산지 4년째지만 한남동은 처음이라는 딸이 '센스 있는 엄마'라며 엄지를 척 내밀었다.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는데 부쉬 먹는데 케이크라서 한 번 더 놀랐었다.

이름, 연락처, 주소와 함께 <KTX매거진> 4월호를 읽은 소감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메일 주소 KTX@bandicom.com 기간 4월 11일까지

신은를 부산시 수영구 호암로
<KTX매거진>에서 소개한 부전역은 내가 알던 모습과 사뭇 달랐다. 역 근처 커비커피는 여러 번 그 앞을 지나갔는데 잡지에서 보니 새로웠다. 기사 내용처럼 2층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햇살 아래서 여유를 누리며 부드러운 라테를 마셔야겠다.

SNS로 만나는 <KTX매거진>

QR코드를 스캔하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독자 선물

'#KTX매거진'에 선정된 분께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브랜드 아이돌의 '데일리 반지갑'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한 손에 잡히는 크기라 휴대하기 편하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제품문의 02-2256-7901



대명소노그룹 소노호텔앤리조트 2025년 신규회원모집

SONOROUS	NOBLIAN BLACK
대한민국 18개의 호텔&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는 대표 멤버십 '소노러스'	실버, 골드, 로얄, 프레지덴셜 객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VIP 멤버십 '노블리안 블랙'

I. 창립혜택

4가지 유형의 혜택 중 하나의 회원이 택하실 수 있으며, 유형별로 '객실형' 6년간 30%, '종합형' 골프 2년간 최대 50%, 지역 특성을 고려한 '남부형'은 워터파크&조식이 무료 제공됩니다.

II. 추가할인

사용가능 입회금 추가할인은 회원이 객실, 골프, 워터파크, 식음 등 전국의 주요시설 이용료를 '사용가능 입회금'으로 결제하시면 최대 30%(A상품 기준)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III. 계속되는 비전

썰비치남해가 2025년 7월 그랜드오픈 예정이며, 오는 10월 '경주'도 리뉴얼 오픈 예정입니다. 소노호텔앤리조트 멤버십은 지속적인 개발과 인수를 통해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 썰비치 남해 2025년 7월 그랜드오픈 (예정)



SONO
HOTELS & RESORTS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께 뉴멤버십 신규회원모집에 대한 카탈로그를 배송해 드립니다.
통화가 어려우실 경우, 문자 메시지로 성함 및 주소를 보내주시시오 010-4140-6540

상담문의 02)2222.5917

비발디파크 | 델피노 | 썰비치 양양 | 삼척 | 진도 | 소노캄 고양 | 여수 | 거제 | 제주 | 경주(예정) | 소노문 해운대 | 소노벨 천안 | 청송 | 변산 | 제주 | 단양 | 소노휴 양평

All Inclusive

빈틈없이 준비된 휴식의 여정

온전한 휴식으로의 몰입을 위하여 지내시는 동안 별도로 준비하실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이 포함된 휴식의 여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휴식으로의 진입을 알리는 첫 인상



차와 함께 따스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체크인 여정



머무는 동안 나만을 위해 마련된 정원과 객실



순수성을 담은 온천수의 심층적인 경험



미각과 시각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저녁 코스



공해적 빛이 차단된 야간 노천 온천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소음이 차단된 공간에서 나누는 동행인과의 깊은 대화의 시간



자연이 스며드는 아침에 든든함을 더하는 높은 완성도의 조식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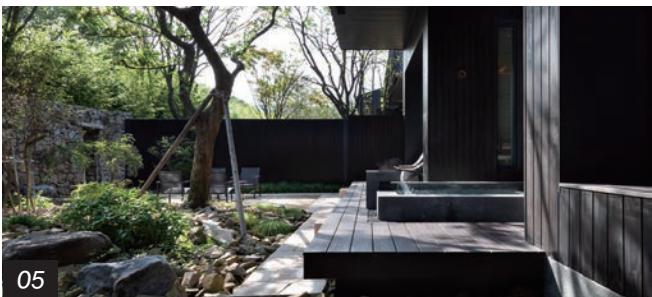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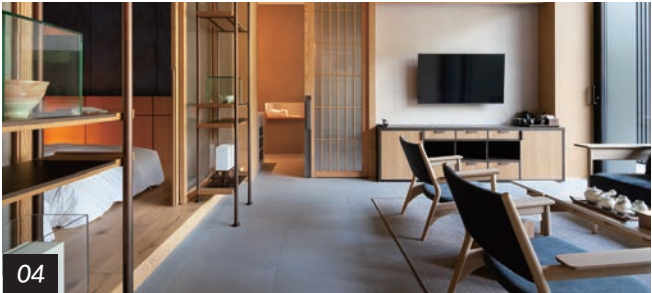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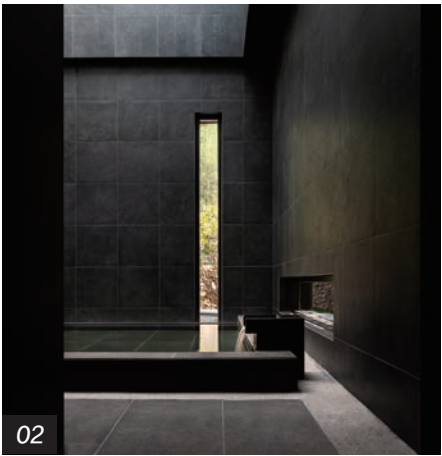
주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6
요금	• 정상가 160만 원~(1박 2식, 2명 1실 기준) • 할인가 144만 원~ (석식 : 컨템포러리 파인 다이닝 코스요리)
Check-In	15:00
Check-Out	11:00
객실 수	16실
식사	레스토랑(개별실/단체실)
온천	남/여(실내, 야외 노천), 대여탕(유료)
부대시설	라운지 수, 라운지 은, 카페, 테라피(유료 운영)



온천 문화의 새로운 변화

유원재 호텔&스파에서

53도 자연 용출수를 경험해 보세요.



01.라운지 수 02.실내탕 03.카페 04.객실 05.객실 정원 06.노천탕

충주시 / 수안보온천 Tel. 043-820-8100



留園齋

유원재 호텔&스파
<https://www.youonejae.com>



몰입 가능한 휴식

하루 동안 정원을 바라보며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 유원재

수안보가 품은 아름다운 풍경과 심신에 따스함을 더하는 온천,
진정성이 담긴 공간적 체험을 통해 도심에서 느낄 수 없는
온전한 몰입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Panasonic



우리 가족을 위한 봄맞이 선물 프리미엄 안마의자 REAL PRO MAN1

편안한 휴식과 건강을 위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

봄빛 완연한 4월, 야외 활동이 잦아지는 만큼 가족의 건강은 늘 염려되는 부분이다.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한 봄맞이 선물, 파나소닉의 프리미엄 안마의자라면 가족 모두 만족할 만한 선택이 될 것이다. 파나소닉이 최근 선보인 리얼 프로 MAN1은 90년간 축적한 파나소닉 기술력의 집합체다. 마사지 구동 영역을 확장한 SJ 프레임이 적용돼 마사지 볼이 미세한 움직임으로 목부터 척추, 허벅지까지 신체 부위를 골고루 주무르며 긴장을 풀어 준다. 상하, 좌우, 전후로 부드럽게 작동하는 3D 입체 마사지 볼은 파나소닉 안마의자 기술력의 총체. 네 개의 마사지 롤러가 마사지 전문가의 엄지손가락과 유사한 10밀리미터 간격으로 회전하며 온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한다. 안마의자에 공기 청정 기술인 나노이(Nanoe) X를 적용한 것도 놀랍다. 일반 이온보다 1000배 이상 수분을 간직한 입자가 탁월한 탈취 효과를 발휘해 쾌적한 마사지 속에 온전한 기분을 전한다. 셀(shell) 형태로 몸 전체를 감싸는 디자인은 의자에 꼭 안긴 듯한 편안함을 주고, 130도에서 170도까지 등받이가 기울어지는 리클라이닝 기능은 내 몸에 맞는 최적의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블루투스 스피커가 탑재되어 음악 감상을 하며 마사지를 즐길 수 있고, 마사지 부위를 그림으로 보여 주는 직관적인 컨트롤러 화면과 USB 충전 포트도 장착되어 있다.

- 1 새로운 프레임**
마사지 볼 도달 부위를 목에서 척추, 엉덩이, 허벅지까지 확장한 SJ 프레임이 온몸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 2 리얼 프로 3D 마사지 기법**
10밀리미터 간격으로 회전하는 파나소닉만의 독창적 기술을 적용, 전문가의 섬세한 손길 느껴진다.
- 3 전신을 감싸는 셀 디자인**
몸 전체를 감싸는 셀 형태 의자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연출해 편안하고 아늑한 휴식이 가능하다.
- 4 나노이 X**
일반 음이온의 1000배 이상 수분을 간직한 나노이 입자가 쾌적한 환경과 탁월한 탈취 효과를 제공한다.

가정의 달 특별 할인 이벤트

퍼스트 클래스 안마의자 브랜드의 선두 주자, 파나소닉에서 특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프리미엄 안마의자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벤트 기간에 리얼 프로 MAN1을 구매하면 200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간 4월 1일 ~ 30일 문의 www.panasonic.co.kr

Panasonic

파나소닉 안마의자 가정의 달 특별 할인

MAN1

200만원 상당 할인 혜택

기간: 4/1~4/30



언제나 사랑받는 안마의자
90년
선진안마기술약체

파나소닉 안마의자 전 제품 사은행사 진행중!

자세한 내용은 판매처에서 확인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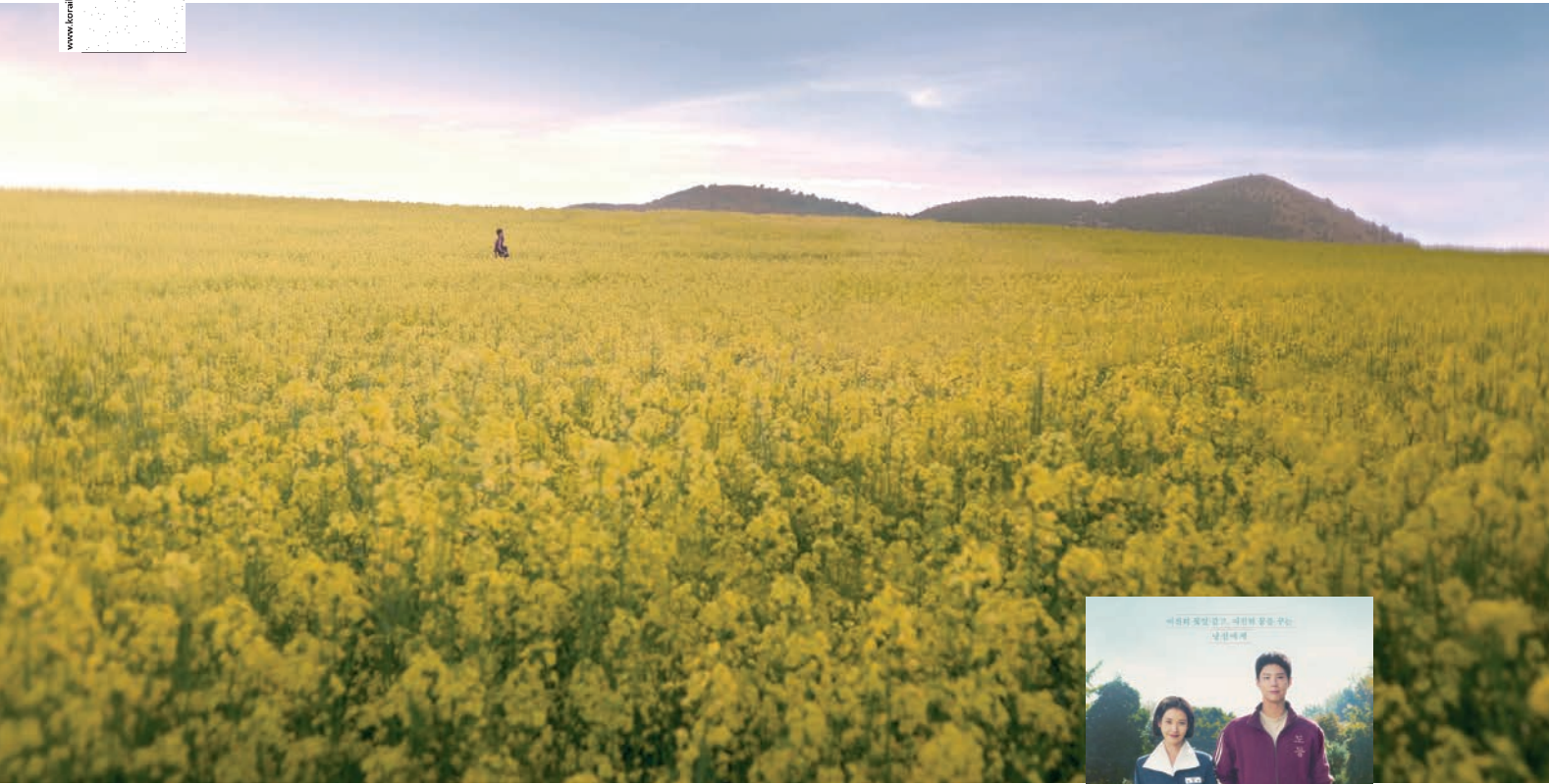


판매점 전국 파나소닉 공식 대리점 / 전국 유명백화점 및 대형 전자제품 전문점에서 질찬 판매중 • 파나소닉 코리아 고객센터 1588-8452 • 파나소닉 코리아 홈페이지 panasonic.co.kr
파나소닉 프라자 서초 본점 (02)542-8452 | 파나소닉 HM프라자 (02)755-8452 | 파나소닉 광안프라자 (051)755-8452 | 파나소닉 동아프라자 (053)427-3794 | 파나소닉 대전프라자 (042)223-8452 | 파나소닉 수성프라자 (053)421-8452 | 파나소닉 중원프라자 (051)255-0222 | 파나소닉 명성프라자 (051)633-8452 | 파나소닉 HD프라자 (062)522-2000 | 금호월드 (062)350-8397 | 롯데백화점 본점 | 롯데백화점 잠실 | 롯데백화점 강남 | 롯데백화점 입산 | 롯데백화점 센텀 | 롯데백화점 대전 | 롯데백화점 광주 | 롯데백화점 인천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 현대백화점 목동 | 현대백화점 판교 | 현대백화점 여의도 | 현대백화점 대구 | 현대백화점 중동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 신세계백화점 본점 | 신세계백화점 강남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 | 신세계백화점 대구 | 신세계백화점 센텀 | 신세계백화점 대전

봄날의 따스한 풍경 소리

봄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흔들어 깨웁니다. 황금빛 물고기의 경쾌한 몸짓.
따스한 계절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노란 봄은 다시 돌아온다

소녀와 소년이 열여덟과 열아홉이 되던 봄, 노란 유채꽃이 피었고 이들의 사랑도 만개했다.



© 넷플릭스

제주도에서 태어난 꿈 많고 당찬 애순의 삶은 시작부터 영 녹록지 않다. 바다가 아빠를 먼저 데려갔고, 누구보다 강인했던 해녀 엄마마저 물질을 하다 '숨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3월 7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드라마 <꼭삭 속았수다>는 1화부터 시청자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었다. 가까운 이의 죽음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애순의 손톱에 봉숭아 꽃물을 들이며 엄마는 담담히 말한다. “두고 봐라. 요 꽃물 빠질 즈음 되면 산 사람은 또 잊고 살아져. 손톱이 자라듯이 매일이 밀려드는데 안 잊을 재간이 있나.” 딸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이자 위로였고 당부였다. 이후 관식이 애순의 곁을 묵묵히 지킨다. 함께 유채꽃밭을 걷는 둘의 모습은 꽤 사랑스럽다. 애순이 서울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발을 빼면서도 관식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기 때문이다. 둘은 말을 빙빙 돌리다가 이때 처음으로 입을 맞춘다. 드라마 속 봄을 상징하는 이 장면은 전복 고창의 청보리밭에서 촬영했다. 올해 유채꽃이 피어나길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혹여 바쁜 일상을 보내다 꽃구경을 놓쳐도 아쉬워 말자. 삶은 흐르고, 봄은 다시 오니까.

제주에서 태어난 두 사람의 굴곡진 삶을 사계절로 풀어낸 드라마. 애순 역은 아이유와 문소리가, 관식 역은 박보검과 박해준이 맡았다.

2025



www.worldcoffeesfest.com

제1회 세계커피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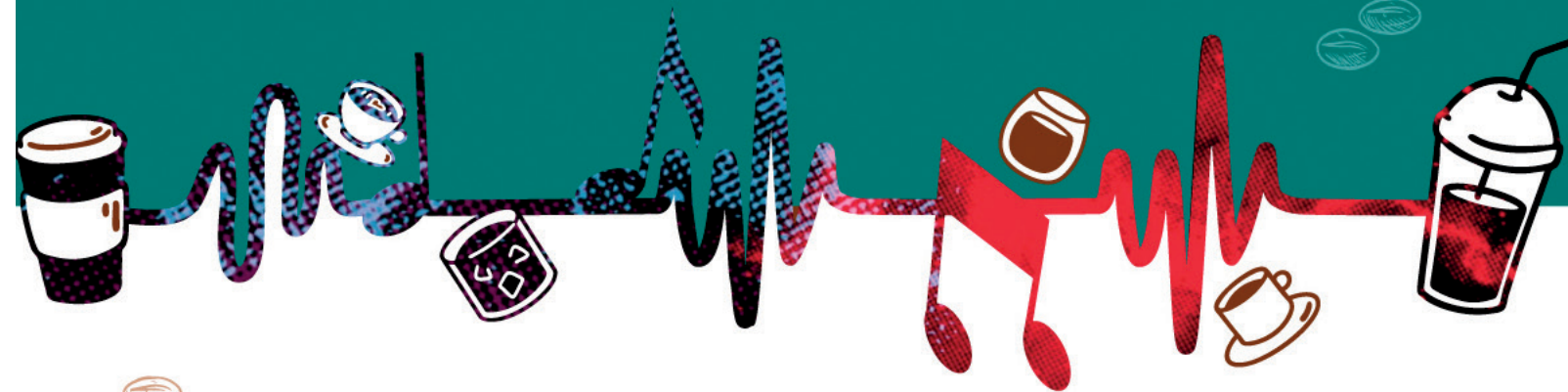
World Coffee Festival in Gangneung

개막식

5.2(금) 오후 2시 | 썬옥호텔 1F 갤러리홀

폐막식

5.6(화) 오후 2시 | 한국여성수련원 1F 다목적실



커피체험 / 커피포럼 / 해변걷기 / 서핑체험

옥계 5일장 / 긴꼬리 연날리기 / 버스킹

무료 텐트촌 / 바이크 쉼터

- 일 시: 2025년 5월 2일-6일(5일간)
- 장 소: 강릉시 옥계면 옥계해수욕장,일원
- 주 최/주관: 세계커피축제조직위원회



※ 행사관련 자세한 일정 등은 상단 QR코드 참조



© FezH



© FezH

즐거찾기

EDITOR 신송희

프로모션

모두를 환대하는 페즈

지난해 11월 서울 한남동 주택가에
누구나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 전시를 보러, 커피를
마시러, 요가를 체험하러 온다.
‘페즈(FezH)’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

1년 전까지 이곳은 디지털다임 사옥이었다. 코로나19 시기 모든 업무가 재택
근무로 전환되고 사옥의 기능이 사라지자 임종현 디지털다임 대표는 깊은 고
민에 빠졌다. 이런 때일수록 힐링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빵집과 우
물을 공유하는 모로코 구도시 페즈에서 영감을 받은 그는 한남동에 페즈를 열
었다. 모로코 도시 페즈(Fez)에 ‘힐링’ ‘한남동’의 영문 이니셜 H를 합성해 이름
지은 것으로, H는 목음이다. 지하 광장에서 흘러나오는 새소리, 재즈 바에서
음미하는 위스키 한잔, 물이 흐르는 공간에서 체험하는 명상까지, 페즈에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여러 장치가 숨어 있다.

페즈는 건축적 의미가 큰 공간이다. 공간 설계를 맡은 유이화 건축가는 벽돌
과 나무를 주재료로 사용해 한남동 골목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했다. 파
도가 덮치는 듯한 곡선 형태의 나무 구조물은 건물에 입체감을 더한다. 안으
로 들어서면 막힌 벽 하나 없이 트여 있어 개방감이 느껴진다. 계단 하나를 사
이에 두고 1층 전시 공간부터 4층 요가 공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걷다 보
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다른 공간을 마주하게 된다. 여기가 몇 층인지 혼돈
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 자유롭게 오르내리다 보면 어디든 닿아 탐험하는 재
미가 있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11길 41



© FezH



© FezH



옷에 대한 이로운 가치와 정성 아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아일로가 브랜드의 감성을 담아 산뜻한 봄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 1 리넨 소재를 사용한 모던한 디자인의 재킷(AOCJ200)**
단작과 연결되는 네크라인 중간 부분이 오픈되어 착용 시
답답하지 않다. 앞판 양쪽에 포켓을 달아 실용성을 부여한
점도 매력적. 재킷만 따로 입거나 팬츠(AOCP200)와
셋업하면 근사한 스타일이 완성된다.
- 2 컬러 배색의 조화가 매력적인 시폰 스카프(AOBZ800)**
끝부분에 브랜드 로고와 태슬 장식을 더해 아일로만의
감성이 돋보인다. 환절기 포인트 아이템으로 다양한 룩에
매치하기 좋다.
- 3 리넨 소재의 민소매 티셔츠(AOCT200)**
단정하면서도 아방가르드한 무드가 포인트다.
재킷(AOCJ200) 안에 입거나 여름철에 단품으로
착용해도 좋다.
- 4 재킷과 셋업하기 좋은 팬츠(AOCP200)**
장식용 디테일을 생각해 깔끔하면서도 쿨한 느낌이다.
다양한 실루엣의 상의와 매치하면 멋스러운 봄
스타일링이 완성된다.
- 5 부드럽고 유연한 염소 가죽 단화(AOCX900)**
동근 앞코에 입체적으로 봉제선을 넣어 자연스러움을
더하고, 뒷면은 포인트 쿠셔닝이 있는 인솔로 처리해
착화감을 높였다. 굽이 높지 않아 데일리 아이템으로
제격이다.





강아지가 먼저 웃는 호텔

두 팔 벌려 반려견을 맞이하는 키녹 호텔에서는 진정한 펫 프렌들리를 경험할 수 있다.



- 1 모던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디럭스 룸.
- 2 전용 식기, 타월, 배변판과 패드 등 반려견 전용 아메니티가 준비되어 있다.
- 3 물을 좋아하는 반려견을 위해 작은 풀을 설치한 시그니처 룸.
- 4 친환경 잔디 관리로 안전한 야외 펫 파크.

여행자의 방

EDITOR 김수진



지난해 8월 경북 경주 보문단지에 반려견을 위한 호텔이 문을 열었다. 'kick(차다)'과 'knock(노크)'의 합성어로 강아지가 발로 문을 두드리는 모습에서 착안한 키녹(Kinock) 호텔이다. 객실과 실내외 펫 파크, 반려견과 나란히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카페와 레스토랑 등 지상 3층, 지하 2층 규모의 호텔은 모든 공간을 사람과 동물이 공유한다. 반려견 눈높이에 맞춰 설계한 호텔은 입구에서부터 남다르다. 애견 유아차가 나란히 놓인 로비 곳곳에 펫 파킹 고리와 배변 봉투가 비치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입구에는 엘리베이터 내부 상황을 미리 살필 수 있도록 모니터를 설치했다. 예민한 반려동물이 다른 동물과 마주쳤을 때 발생할지도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키녹 호텔의 객실 수는 34개. 객실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반려견을 정확히 이해하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든다. 시각과 청각이 예민한 반려견을 위한 플리커프리 조명, 초인종 대신 설치한 초인등,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중문, 미끄럼 방지 바닥재, 높이가 낮은 가구, 전용 침대와 샤워실까지 어는 것 하나 놓치지 않았다. 키녹 호텔의 또 다른 강점은 넓고 쾌적한 놀이 공간이다. 약 8300제곱미터 규모의 야외 펫 파크와 300제곱미터의 실내 펫 파크는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다. 소형견과 중·대형견 존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노견과 장애견을 위한 배려 존도 마련했다.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농약을 쓰지 않고 일일이 손으로 잔디를 관리하는 점도 돋보인다. 게다가 호텔 전 직원이 펫 매니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다. 훈련사도 상주해 안전을 살핀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이 더 이상 고민이 아닌 설렘이 되는 곳, 키녹 호텔은 단순한 숙소가 아닌 두 번째 집이라 할 수 있다.

주소 경북 경주시 보문로 280-12 문의 054-778-5301

저속 노화, 줄기세포에서 길을 찾다

저속 노화의 비결은 고단백·저탄수화물 식단과 근육운동에 있다.
그에 더해 줄기세포 프로그램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저속 노화가 하나의 건강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젊음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 저속 노화는 노화를 사전에 예방하는 프리주베네이션(prejuvenation)과 일맥상통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요소는 고단백·저탄수화물 식단과 근육운동이다. 이 둘은 세포가 제 기능을 극대화하도록 돕는다. 충분한 영양 공급과 적당한 활동량.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저속 노화의 핵심은 근육량 유지

저속 노화를 위해선 근육량 유지가 필수다. 병원을 찾는 의료 소비자 중에는 식단은 철저히 지키지만 운동은 쉽지 않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다. 물론 식단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만하다. 하지만 보다 활기찬 일상을 유지하고 싶다면 운동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병원에선 아픈 곳이 없다는데, 쉽게 지치고 무기력하고 기운이 없는 것은 사실 근육이 부족한 탓이다. 근육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주고, 이를 통해 체력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기운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은 근육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근육 속에는 젊음의 비밀이 숨어 있다. 근육 속 근섬유에는 젊음을 이어 가도록 돕는 미토콘드리아가 가득하다. 미토콘드리아는 신진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다. 혈액 속 지방을 연소시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근육이 강화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늘어나 에너지 소비도 촉진된다.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세포의 노화와 관련된 쇠퇴 징후를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도 적지 않다. 문제는 노화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떨어진다. 기운이 떨어지는 이유다. 건강하게 근육을 늘려가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회복시키는 운동이 필요하다. 가장 좋은 것은 근육량이 줄어들기 전인 젊은 시절부터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중장년층에 접어들었다라도 허벅지 같은 큰 근육 위주로 강화하고, 매 끼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젊은 시절에 비해 근육 성장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이럴 때 보다 적극적인 시도로 줄기세포를 고려할 수 있다.

적극적인 저속 노화의 해법, 줄기세포

전반적으로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력이 저하된 상태라면 보통 줄기세포 정맥주사를 고려한다. 줄기세포는 자기 재생 능력과 분화 능력이 있는 원시세포다.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고, 신생 혈관을 형성해 혈액 순환을 도우며, 단백질 합성 효과를 높여 기초 체력을 끌어올린다. 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도 젊어진다. 체력 증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다. 줄기세포 치료 전문 병원인 청담셀의원에선 성체 줄기세포를 채취해 링거로 주입하는 방식을 쓰기도 한다. 이를 통해 전신 재생 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청담셀의원에서는 줄기세포를 특정 부위에 집중적으로 주입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신 줄기세포 정맥주사 '청셀(淸Cell)'을 필두로 약해지기 쉬운 인대를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활셀(活Cell)', 줄기세포를 진피층에 주입해 아름다운 피부로 개선하는 '미셀(美Cell)', 성기능을 건강하게 증진하는 '성셀(性Cell)', 두피에 직접 줄기세포를 주입해 탈모를 치료하는 '모셀(毛Cell)'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40대 이후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아는 '단골 의사'를 만드는 것도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 내 몸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프리주베네이션 치료를 더하는 식으로 관리하면 건강과 젊음을 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다. 미래 의학은 이미 노화가 진행되고 난 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나아가, 노화가 나타나기 전에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프리주베네이션에 집중한다. 건강한 몸과 외모를 오래 유지해 활기찬 인생을 설계하는 건, 건강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청담셀의원

헬스케어 디자인을 지향하는 청담셀의원은 줄기세포를 활용한 전신 항노화 치료에 특화된 의료 기관이다. 한국에서는 드물게 골수·지방 줄기세포를 모두 활용하는 기술로 '대한민국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항노화 줄기세포 치료 부문에서 6년 연속 수상했다. 청담셀의원을 이끄는 조찬호 원장은 항노화의학 전문가로,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브리검 여성 병원에서 항노화 분야를 공부했고 현재는 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부회장으로 활발하게 학술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2-514-2225

떠날 준비 완료

봄이니까, 가볍고 경쾌하게 꼭 필요한 것만 챙겼다.



1 끈을 다양하게 묶어서 활용 가능한 얇은 가죽 소재의 브라운 컬러 숄더백은 **롱상** 28개의 마이크와 2개의 고성능 노이즈 캔슬링 프로세서로 업계 최고 수준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느낄 수 있는 헤드폰은 **소니코리아**. 3 눈부신 봄 햇살을 가려 주는 와이드한 프레임의 선글라스는 **발렌시아가**. 4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걸치기 좋은 카디건은 **어몽**. 5 고급스러운 샴페인 골드 컬러 캐리어는 **샘소나이트**. 6 장시간 걷기 좋은 편안한 착화감과 트렌디한 실버 컬러가 매력적인 스니커즈는 **아쉬**.

문의 **롱상** 02-6004-3303 **소니코리아** 1588-0911 **발렌시아가** 02-6105-2188 **어몽** 031-705-1042 **샘소나이트** 02-567-2486 **아쉬** 070-5173-4797

강종열
KANG
JONG
YEOL

전남도립미술관
JEONNAM MUSEUM OF ART

동백, 시간의 얼굴
CAMELLIA, THE PORTRAIT OF TIME





1 밤 타임 제품으로 피부에 부드럽게 녹아들어 보송하고 가볍게 밀착되는 가히 에어리핏 선스틱. 2 입술의 각질, 주름, 탄력, 보습을 케어해주는 CNP 프로폴리스 립세린 프루티. 3 촉촉한 제형으로 톤업과 함께 자외선 차단 효과를 발휘하는 마녀공장 파데프리 선크림 모이스처. 4 눈 밑 깨짐 및 눈가 처짐, 다크서클을 개선하는 가히아이밤 CV. 5 스킨케어 후 피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CNP 더마앤서 액티브 부스트 앰플. 6 판테토인 성분이 보습막을 형성해 피부를 집중 케어하는 마녀공장 판테토인 딥 모이스처 마스크.

문의 가티 02-3409-2104 CNP 080-023-7007 마녀공장 02-6013-0855

ART
BUSAN

ART BUSAN 2025

MAY 9 – 11
VIP PREVIEW MAY 8
BEXCO

ASIA PACIFIC'S
PREMIER ART FAIR



전 세계 20개국 110여 개 갤러리 참가 아트부산 2025

아트부산이 올해 더욱 강력해진 라인업과 프로그램으로 돌아온다.
부산 곳곳에서 신선하고 흥미로운 예술 축제의 장을 펼쳐 보일 아트부산 2025.



Chung Hyun, 'The Standing Man', 2016, Railroad tie
Dimensions variable(each figure: 75×53×250~340(h)cm, 48pcs)
Courtesy of the artist & PKM Gallery.

국내 상반기 최대 아트 페어 '아트부산 2025'가 5월 8일 VIP 프리뷰를 시작으로 11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아트부산에는 전 세계 20여 개국 110여 개 갤러리가 참가한다. 기존의 메인(Main), 퓨처(Future) 섹션에 디자인(Design) 섹션을 더해 다채로운 미술 시장의 흐름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 미술 신을 대표하는 블루칩 작가부터 앞으로 더 기대되는 젊은 아티스트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다. 유럽과 미국의 주요 갤러리를 비롯해 프라이빗 컬렉션도 아트부산 2025에 처음 참가하면서 국내 미술 애호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시아 미술 시장의 주요 기관 관계자와 작가가 함께하는 컨버세이션스(Conversations) 프로그램, 벡스코와 부산 전역에서 펼쳐지는 아트 워크 프로그램까지, 예술로 물드는 부산의 5월이 기다리고 있다.



예술로 소통하고 미래를 그려가는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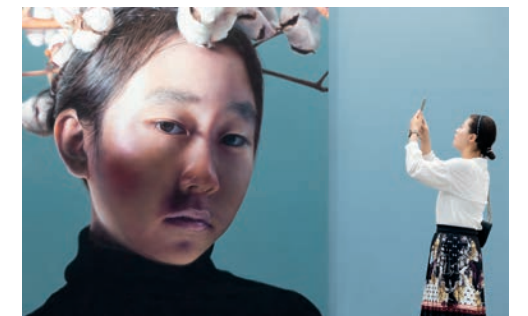
아트부산 2025에서는 110여 개 참가 갤러리가 선보이는 부스뿐 아니라, 커넥트(Connect) 특별전 섹션에서 선정된 10개 갤러리 10명의 아티스트가 준비한 솔로 전시도 예정되어 있다. 회화, 영상, 설치, 조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범주의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미래의 블루칩 아티스트를 먼저 만나 보는 퓨처 섹션은 설립 4년 미만의 유망 갤러리가 참가해 각각의 개성이 녹아든 솔로 또는 2인전을 연다. 올해 커넥트 섹션의 주제는 '조각난 세계, 살아 있는 것들'. 고원석 라인문화재단 디렉터가 총괄 큐레이터로 참여해 벡스코를 비롯한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 예술 공간에서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중 한 곳은 부산시장 관사에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한 도모헌. 이곳에서는 야외 전시와 컨버세이션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모헌의 야외 공간에는 지난해 아트 바젤 마이애미에서 큰 호응을 얻은 정현 작가

기간 5월 9~11일
장소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문의 artbusan.com

의 대형 조각 작업을 설치해 부산 시민은 물론 부산 여행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컨버세이션은 아트부산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 국내외 미술 전문가를 초청해 미술계의 주요 이슈를 소개하고 아티스트와 미술 담론을 나누는 자리다. 아트부산 2025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티스트와 미술관 디렉터, 아트 에디터, 갤러리스트, 컬렉터 등이 참여해 5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총 8개 세션을 진행한다. 현장 동시통역과 유튜브 채널을 통한 라이브도 송출해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다.

부산 곳곳에서 펼쳐지는 문화 예술 축제의 장

아트부산의 젊은 아티스트 후원 프로그램인 아트 액센트(Art Accent)도 강화된다. 아트 액센트는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지역 작가들의 다채로운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와 아트부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기 지속형 청년 작가 지원 프로젝트다. 올해는 부산시와 홍티아트센터가 협력해 오픈콜을 통해 선정한 작가 6명의 기획 전시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 중 홍티아트센터 레지던시 공간과 작가 스튜디오 비짓까지 연계해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한다. 아트 액센트는 2024년 영국왕립예술학교(RCA) 작가들과 교류 전시를 열었다. 앞으로도 선정 작가에 대한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 레지던시는 물론 전시까지 장기적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파트너사 후원으로 젊은 아티스트 어워드 프로그램을 신설해 아트 페어가 열리는 현장에서 참여 작가 1명을 선정해 수상한다. 아트부산 2025 기간 동안 부산 곳곳에서는 VIP 컬렉터부터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부산의 미술 신을 주도하는 갤러리와 미술 기관,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물론 로컬 F&B가 협력해 부산을 문화 예술 축제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5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은 아트 워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아트, 컬처, 미식, 스테이 등 4개 카테고리별 제휴 공간에 방문하면 특별 프로그램 참가는 물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운 계절의 귀환

동네 골목에도, 천년 고택 지붕에도, 고기잡이 배에도 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문득 왔다 문득 사라지는 고운 계절의 귀환.

꽃샘추위 앞세워 꿈무늬를 빼더니, 하룻밤에 봄은 한꺼번에 피어난다.
여린 팔을 흔들며 큰 숨으로 자라나는 연둣빛 생명.

2024년 4월 초순, 강원도 양구



바람이 나뭇가지를 휘감을 때 벚꽃의 보드라운 잎은 비가 되고 별이 되어 땅 위에 쏟아진다.
푸른 바다를 닮은 4월의 하늘, 한낮에 뜬 별들의 웅성거림.

2024년 4월 중순, 서울

강릉과 평창의 봄을 걷다

4월, 걷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다. 경포 해변에서 안목 해변까지 이어지는 강릉 해안 길, 발아래로 연둣빛 숲이 펼쳐지는 평창 발왕산 천년주목숲길. 지금 가지 않으면 후회할 강원도의 두 길을 소개한다.



서핑과 커피의 도시, 로맨틱 무드가 흐르는 강릉 해안 길

새 생명이 움트는 봄에는 바다 색도 영롱하다. 바람결이 유순하고 햇살이 적당한 날엔 유리알처럼 투명한 봄 바다를 걷고 싶어진다. 찰랑이는 바닷물에 두 발을 담그고 보드라운 백사장에 앉아 온전히 오후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 그럴 때 찾기 좋은 곳이 강릉 경포해변에서 안목해변까지 이어지는 5~6킬로미터 해안 길이다. 경포호 바로 너머에 있는 경포해변은 설탕처럼 고운 모래사장이 완만하게 펼쳐져 부담 없이 걷기 좋다. 해변 주위엔 구불구불한 소나무가 숲을 이뤄 바람을 막아 주고 그늘막도 되어 준다. 경포호와 경포해변 사이에는 순두부나 막국수, 활어회를 파는 음식점도 많아 출출함을 달래기에 좋다. 해안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푸른 파도 속으로 거침없이 달려가는 서퍼들도 눈에 들어온다. 낭만과 젊음의 계절, 이국적 분위기에 젖어 1시간 반 정도 더 걸으면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안목해변에 닿는다. 아름다운 에메랄드빛 바다가 동글게 호를 그리는 안목 해변 앞에는 카페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강릉을 커피의 도시로 만든 바로 그곳, 커피의 성지답다. 해변에는 커피잔과 커피콩 등을 형상화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 바다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좋다.



1 안목해변 백사장. 2 커피의 성지, 안목해변의 커피 조형물.
3 경포해변부터 안목해변까지 이어지는 강릉 해안 길.
4 스카이워크가 설치되어 있는 발왕산 정상 전망대.
5 유아차나 휠체어 이용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발왕산 천년주목숲길.



2025 글로벌 강릉 트레일 페스타

강릉에서 좀 더 본격적인 트레킹을 하고 싶다면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2025 글로벌 강릉 트레일 페스타'를 기억하자. 페스타 기간 중인 6월 14일에 열리는 '강릉 바우길 걷기 축제'에 참여하면 경포중앙광장에서 월화거리까지 가는 풀코스(14킬로미터, 5시간), 또는 경포중앙광장에서 남향진까지 가는 하프코스(6킬로미터, 2시간 30분)를 걸으며 강릉의 초여름을 만끽할 수 있다.

문의 033-640-5126



모두가 함께 걷는 평화의 길, 평창 발왕산 천년주목숲길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 바다 해안 길을 걸었으니 이제 싱그러운 숲을 만날 차례다. 평창군 진부면과 대관령면 경계에 자리한 발왕산은 이 계절에 가장 아름다운 색을 뽐낸다. 발길 닿는 걸음걸음마다 싱그러운 초록 물결이 여행자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해발 1458미터, 태백산맥 줄기인 중앙산맥에 딸린 발왕산 정상에 오르면 기묘하게 생긴 주목과 꽃을 피운 산철쭉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바로 이곳에 '2025~2026년 한국관광공사 100선'에 선정된 발왕산 천년주목숲길이 있다. 평창평화봉숲길 6.7킬로미터에 더해 2022년에 조성한 2.5킬로미터의 천년주목숲길을 걸으면, 발아래로 아득하게 펼쳐지는 발왕산의 아름다운 풍광이 한눈에 담긴다. 해발 1000미터가 넘는 고지대에 있지만 이곳까지 오르는 건 어렵지 않다. 평창의 대표 관광지인 모나오피에서 발왕산 케이블카를 타면 단 10분 만에 닿는다. 발왕산 천년주목숲길은 장애인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무장애 탐방로도 유명하다. 최근에는 기존 무장애 데크(deck) 길 2.4킬로미터에 발왕산 정상 평화봉까지 연결되는 무장애 나눔길 410미터를 추가 조성해 유아차나 휠체어 등의 이용자도 정상까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다. 모두가 함께하는 평화의 길이다.



물길따라두마을, 영주

물을 따라 시간이 흐른다. 경북 영주의 죽계천과 내성천이 굽이돌아두 마을을 스친다.
오래된 이야기를 품은 물길은 영주호에 이르러 420리의 긴 여행을 마친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과 이야기가 시작된다.

제작 지원 영주시청

가는 방법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청량리역에서
KTX-이음을 타고 영주역까지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다. 풍기역에도 정차한다.

물 위에 떠 있는 무섬마을

무섬마을에는 다섯 가지가 없다. 농토와 우물, 담장과 대문 그리고 사당. 고택 사이 좁다란 길을 걷다 보면 이 마을에만 있는 다섯 가지도 발견한다.

자전거 타고 시간 여행

영주를 가로지르는 죽계천은 도심을 지나 서천이 되고, 내성천에 실려 무섬마을을 휘돈다. 강물이 둥글게 감싸안은 '물돌이 마을'. 외나무다리가 물에 잠기면 섬처럼 고립되는 무섬마을이다. 36년 전에 놓은 콘크리트다리를 자동차로 건너니, 저 멀리 마을의 상징인 외나무다리하와 너른 모래톱, 처마를 맞댄 기와집과 초가집이 보인다. 무섬마을로 가는 길은 쉽지 않다. 대중교통이 있지만 승강장까지 10여 분 걸어야 한다. 영주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면 매주 토요일에 운행하는 '물돌이 코스'로 무섬마을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찾아간 마을은 평화롭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린다. 외나무다리와 고택이 전부인 곳. 고즈넉한 풍경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 본다.

2013년 마을 전체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무섬마을을 둘러보는 방법은 두 가지다. 느리게 걸거나 공공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것. 초록색 자전거를 타고 페달을 밟으니 몸도 마음도 가벼워진다. 오른쪽으로는 햇살에 반짝이는 내성천과 모래톱, 왼쪽으로는 단정한 고택들이 어깨를 맞대고 있다. 가끔은 뒤로 멀어지는 풍경이 아쉬워 자전거를 멈추기도 한다.

마을 입구 오른쪽 끝에는 무섬자료전시관이 있다. 마당 가운데 놓인, 시인 조지훈의 별리(別離) 시비가 발길을 붙든다. "푸른 기와 이끼 낀 지붕 너머 / 나직이 흰 구름은 피었다 지고 / ... / 십 리라 푸른 강물은 휘돌아가는데 / 밟고 간 자취는 바람에 밀어 가고 / 방울 소리만 아련히 / 꿇길 듯 꿇길 듯 고운 메아리...". 청록파 시인으로 무섬마을 김성규의 사위였던 그는 방학 때마다 이곳에 내려와 시심(詩心)을 쌓았다. '겨막이' '떠앗강변' 등 무섬마을과 관련된 표현은 그의 작품 여러 곳에 남아 있다. 전시관은 그리 크지 않지만,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품과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만족재, 오헌 고택 편액과 홍선대원군이 쓴 해우당 편액 진본을 비롯해 무섬마을 출신 선비들의 책과 문서, 무섬마을과 외나무다리 조형물 등이 무섬마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준다.



1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만족재 고택의 섬계초당. 멀리 내성천과 외나무다리가 보인다.
2 무섬마을은 내성천이 마을을 둥글게 감싸안은 물돌이 마을이다.
3 자전거를 타고 무섬마을을 한 바퀴 돌아본다.





1989년 마을과 세상을 잇는 수도교가 놓이기 전까지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은 오직 외나무다리뿐이었다. 매년 홍수 때마다 떠내려가 다시 놓기를 반복했던 다리. 가마를 타고 시집와야 했고, 상어를 타야만 나갈 수 있었던 다리. 불과 150미터 길이의 다리에는 지난 수백 년의 삶이 서려 있다. 지금의 외나무다리는 마을 주민과 출향민이 힘을 모아 예진 모습으로 재현해 놓은 것이다. 물은 깊어야 1미터 정도지만 다리를 건너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불과 20~30센티미터 너비의 좁은 다리에 발을 내딛는다. 발아래로 흐르는 물만 바라보다가는 머리가 어지러워진다. 다행히도 길 곳곳에 서로 비켜 설 수 있는 짧은 다리, ‘비껴다리가 놓여 있다. 마주 오는 이에게 길을 양보하며 잠시 멈추는 곳. 외길이라도 혼자가 아니다. 고맙다, 괜찮다 서로를 토닥이는 곳. 바로 무섬마을이다.

한 마을과 한 가족의 시작, 만죽재고택

무섬마을은 1666년(현종 7년) 반남 박씨 박수(朴樹)가 만죽재를 짓고 터를 잡으며 시작되었다. 이후 90여 년이 지난 1757년(영조 33년), 그의 증손서인 선성 김씨 김대(金臺)가 처가인 이곳에 자리 잡으며 마을은 두 성씨의 집성촌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고 외지인의 발길이 잦아졌지만 마을 사람들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40여 가구 50명 남짓한 사람들은 여전히 태어나고 자란 이곳에서 소박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무섬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 360년 역사를 가진 만죽재고택을 찾는다. 멀리서 봐도 기품



1



© 국가유산 ©



영주 반평관광택시

규정 요금의 반값을 영주시에서 지원하는영주 반평관광택시. 최소 4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관광비수기인 2·7·8·12월에는 10퍼센트 더 지원한다.
문의 www.yeongju.go.kr/open_content/tour/index.do

이 느껴진다. 문 앞에 나란히 자리한 두 개의 계단. 춤춘 것은 사람이, 너른 것은 소가 다니던 길이다. 외양간이 있던 자리엔 다듬이돌과 재봉틀, 인두, 등잔불 등이 놓여 있다. 안채 벽에는 빛바랜 가족사진과 밥상이 걸려 있다.

만죽재는 미음(ㅁ) 자형 기와집으로, 디귤(ㄷ) 자형 안채와 일자형 사랑채가 자연스러운 중정을 이룬다. 마을의 여느 고택과 달리 중문 원편에 손님을 맞이하는 사랑채가 있다. 360년 된 고택이라는 걸 믿을 수 없을 만큼 튼튼하고 정갈한 이 집의 주인은 반남 박씨 가문의 12대 주손 박천세와 그의 아내 장춘옥이다. 고택을 지키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서울과 영주를 오가다 4년 전 고향으로 돌아왔다. “마을에 처음 들어와 터를 잡고 정착한 입향조로부터 13대째 같은 집에서 살았어요. 저는 이 집 안방에서 태어났고요. 삶의 시작도, 마무리도 이곳에서 하려고 합니다.”

오래된 집은 종종 앓는 소리를 낸다.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손길을 빌리기도 하지만, 집 안 구석구석 부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날이 따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군불을 때 습기를 날린다. 집에 사람이 살아야 불을 피우고, 불을 피워야 집이 숨을 쉰다. 오래된 집이 건강한 이유다. 몸을 놀려야 살 수 있는 집에는 살아가는 재미가 있다. 긴 세월 동안 손때 묻은 대청마루에 앉아 찬찬히 집을 둘러본다. 아궁이에서 장작타는 냄새가 안주인이 내준 곡물 차치럼 구수하다.

아궁이 옆 문을 열고 나서면, 장독대를 지나 별채로 이어지는 길이 보인다. 교육과 시문학 공간이었던 섬계초당.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섬계초당 마루에 서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한 폭의 그림이다. 멀리 내성천과 외나무다리가 보인다. 사시사철 자연을 품어 안는 고택. 봄 다르고, 여름 다르다. 아들이 아들에게, 또 그아들에게 옛집의 지혜를 대물림한다. 그렇게 무섬마을의 시간이 흘러간다.

1360년 된 만죽재를 지키는 반남 박씨 가문의 12대 주손 박천세와 그의 아내 장춘옥.
2, 3, 4 무섬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고택인 만죽재는 여느 고택과 달리 중문 원편에 사랑채가 있다. 13대째 살아온 시간만큼 집 안 곳곳 가족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황금빛 용이 내려앉은 영주호

내성천 상류에 생긴 댐이 주변 풍경을 바꾸고 있다.
댐이 만든 영주호에는 섬과 섬을 잇는 두 개의 다리가 놓였다.

호숫가에 새롭게 깃든 삶

영주 곳곳을 흐르는 물길은 평온면에 이르러 더욱 깊고 푸르러진다. 9년 전 영주댐이 건설되면서 영주 호가 생겼다. 그물 아래, 한때 금강마을이라 부르던 마을이 있었다. 비단금(錦), 강 강(江). 비단같이 흐르는 강을 품었던 마을은 금강마을이란 이름만 남긴 채 호수 아래로 사라졌다. 400여 년을 이어 온 인동 장씨 집성촌이었고, 내성천이 감싸안은 터전이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친변을 따라 고택들이 들어서 있었고, 마을을 수호하던 국가유산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러나 댐이 완공되면서 모든 것이 물속으로 잠겼다. 이전할 수 있는 것은 옮겼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다행히 용마루 공원 초입에 조성한 영주 전통문화체험단지에 일부 고택과 국가유산이 보존되어 있다. 호숫가에 새로운 터전을 꾸린 이들도 있다.



영주시티투어 버스

주요 관광지를 알차게 둘러볼 수 있는 영주시티투어 버스가 매주 주말에 운행한다. 요금은 성인 8000원, 청소년·어린이·장애인 4000원. 입장료와 체험비, 식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코스는 두 가지. 부용대와 관사골, 영주중앙시장을 거쳐 영주댐 관광지와 용마루공원, 무섬마을을 둘러보는 '물둘이 코스'와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죽계구곡 등을 둘러보는 '선비 코스'다. 출발 장소는 영주역, 영주시외버스터미널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야 하며, 잔여석에 한해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www.yjtour.kr



3



4



영주댐 ©

영주댐 건설로 생긴 거대한 인공 호수 한가운데, 섬처럼 떠오른 용마루에도 새로운 공간이 조성됐다. 용마루의 '용(龍)'은 이 지역 옛 이름에서 따왔다. 댐이 들어서기 전 이곳은 '용혈리(龍穴里)', 즉 용의 거처라 불렸다. 자연스럽게 공원 이름도, 다리 이름도 용의 형상을 따게 되었다. 영주호 안으로 쏙 들어온 금광리의 하트 모양 땅에는 용마루1공원을, 용두교와 용미교를 건너 만나는 미르미르섬에는 용마루2공원을 조성했다. 이중 용마루1공원에는 댐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전망대와 정자, 카페가 공원에 들어서며 여행자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전망대까지 자동차로 오를 수 있어 부담도 적다. 전망대는 용이 구름을 휘감고 승천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건축물로, 영주댐의 총담수량 1억 8110만 세제곱미터를 기념해 18.1미터 높이로 세웠다.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따라 오르면 탁 트인 영주호가 한눈에 담긴다.

미르, 용이 깨어나다

용마루1공원에서 용마루2공원 주차장까지는 약 700미터. 그 길을 따라가면 두 개의 출렁다리를 건너 옛 평은역사까지 이어지는 산책로를 만난다. 주차장에서 택을 따라 내려서면 첫 번째 출렁다리, 용미교가 모습을 드러낸다. 75미터 길이의 아치교는 예상보다 흔들림이 적지만, 중간에 설치한 여러 개의 투명 유리가 긴장을 불러일으킨다. 발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호수를 내려다보면 아찔한 전율이 밀려온다. 다리를 건너면 장미터널과 산책로가 이어지고, 그 끝에 용두교가 기다린다. 150미터 길이의 현수교로, 용미교보다 조금 더 출렁거린다. 용 꼬리에서 머리까지 이어지는 두 개의 출렁다리를 따라 걷다 보면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과 구름, 호수에 반사된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다가온다. 용두교에서 옛 평은역사까지는 두 갈래 길로 나뉜다. 하나는 영주호의 절경을 보며 걷는 길, 다른 하나는 전망대를 향해 오르는 등산로다. 오가는 길에 서로 다른 풍경을 보고 싶어 등산로를 택했다. 경사가 가파른 길을 오르니 심장이 빠르게 요동친다. 전망 텍과 기념비 광장으로 내려가면 영주댐 수물 지역 이주민들의 이름이 새겨진 두 개의 표석이 보인다. 호수를 향해 자리한 벤치가 혹여 그들을 위한 자리일까 싶어, 순간 가슴 한구석이 시려 온다. 그렇게 10여 분쯤 걸었을까. 동서남북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 조형물 너머로 옛 평은역사가 모습을 드러낸다. 영주댐 건설로 철도가 이설되면서 2013년에 폐쇄했다가 2015년 다시 이전 복원되었다.



5

1 영주댐 건설로 폐쇄한 평은역이 복원됐다.
2 용이 승천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전망대.
3 영주댐 건설로 발생한 수물 이주민들의 이름이 새겨진 표석. 그 앞으로 영주호가 보인다.
4, 5 영주호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는 용마루공원.

풍류와 충절이 깃든 순흥마을

옛 선비의 풍류가 흐르는 땅을 지나 금성대군의 충절과 한이 서린 마을을 찾았다.

선비의 풍류를 따라

영주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21킬로미터, 봉황이 알을 품은 형상의 비봉산 아래에 순흥면이 있다. 바로 이곳에 우리나라 3대 서원인 소수서원이 있다.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소수서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다. 1542년(중종 37년) 풍기군수 주세붕이 성리학자 안향을 배향하기 위해 세운 백운동서원이 그 시작이었다. 서원이 널리 알려지게 된 건 1548년(명종 3년) 풍기군수로 부임한 퇴계 이황의 노력 덕분이다. 그는 조정에 사액(賜額)을 바라는 글을 올리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명종은 '이미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 닦게 했다(既廢之學 紹而修之)'는 뜻이 담긴 소수서원 현판을 내렸다. 강학당과 장서각, 영정각 등 건물마다 충, 효, 예, 학의 선비 정신이 살아 숨 쉰다.

서원 입구에서 방문자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건 울창한 송림이다. 봄바람에 실려 오는 솔향이 마음을 투명하게 한다. 숲을 지나 서원 앞에 다다르면, 죽계천 건너 이황이 터를 닦았다는 취한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자연을 벗 삼아 시를 짓고 학문을 논하던 곳. 정자에 서면 누구라도 시 한 줄쯤 읊고 싶었을 것 같다. 죽계천을 따라 조금 더 걸으면 경자바위가 보인다. 바위에 새겨진 '白雲洞(백운동)'은 퇴계 이황의 글씨, 그 아래 '敬(경)'자는 주세붕의 것이다. 공경과 근신의 자세로 학문에 정진하라는 뜻이다. 또 다른 이야기도 전해진다. 정축지변으로 죽계천에 수장된 원혼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붉은색으로 글자를 칠하고 제를 올렸다는 것. 이곳에도 순흥의 아픔이 서려 있다.

소수서원 위쪽으로는 소수박물관, 선비촌, 선비세상이 자리한다. 2022년에 문을 연 선비세상은 K-문화 테마파크를 표방한다. 한옥, 한복, 한식, 한지, 한글, 한음악 등 여섯 개 테마를 기반으로, 보고 입고 먹고 즐기며 선비정신을 체험하는 공간이다. 한음악 감상실, 다도 체험, 한지 뜨기 체험, 한식 쿠킹 클래스, 한복 천 공예 등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가장 인상적인 곳은 한복촌에 있는 18미터 길이의



2



1

1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소수서원. 건물마다 선비 정신이 살아 숨 쉰다. 2 선비세상 내 한복촌 옥상에 자리한 포토존. 3 경자바위에 새겨진 '백운동(白雲洞)'은 퇴계 이황, '경(敬)'은 주세붕의 글씨다. '경'자를 붉은색으로 칠한 건 죽계천에 수장된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4 선비세상에서는 한지 뜨기 체험을 할 수 있다.



3



4



1 선비세상 한옥촌에서는 우리나라 차 문화와 예절을 배울 수 있다. 2, 3 수천 번의 손길이 닿아야 한 자루의 장도가 완성된다. 이면규 장도장이 만든 산양·노루 뿔 장도와 을자우골장도. 4 을자우골장도의 칼집과 칼자루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암소 다리뼈로 만든다.

오토마타 인형극장이다. 영주도령이 과거에 급제하고 한양에서 영주까지 오며 겪는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 부석사, 소수서원, 무섬마을 등 오밀조밀한 풍경 위로 인형들이 살아 움직인다. 스토리를 읊는 개그맨 김태균의 목소리도 반갑다. 여섯 공간을 누비다 보니 선비세상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렴풋이 와닿는다. 주야장천 책만 읽는다고 선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잘 노닐어야 선비다. 멋도 없고 여유도 없는 '뽕생원'은 처량하다. 선비세상에서 한바탕 잘 놀고 나니, 마음에 풍류가 흐른다.

영풍장도, 흔들림 없는 마음을 담다

선비세상에서 나와 선비촌으로 향한다. 봄을 맞아 활기가 넘치는 선비촌. 커다란 선비상 뒤로 '무형문화재 제15호 영풍장도장, 풍기 은장도라 적힌 작업장 간판이 보인다. 가만히 안을 들여다보니 이면규 장도장이 망치로 무언가를 두들기고 있다. 소뿔로 장도를 만들고 있는 것.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장도에 대해 물으니, 한 자루의 장도를 만들려면 수천 번 손길이 닿아야 한다고 말한다.

열여덟에 세공 일을 시작한 소년은 이듬해에 스승 김일갑(경상북도 무형유산)을 만나 장도의 길에 들어섰다. 한때는 칼을 만드는 대장장, 칼집과 칼자루를 만드는 장도장, 금속 장식을 만드는 장식장이 힘을 모아 장도를 만들면 전국 팔도강산으로 팔려 나가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한다. 장도 한 자루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에서 보름. 한 달을 꼬박 작업해도 세 점을 완성하기 어렵다. 외롭고 지난한 작업이지만 그는 우직하게 자신의 길을 간다. 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받은 그는 전통 장도 기술을 보전하는 한편, 자신만의 장도를 만들어 내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동물의 뿔과 이빨을 이용한 장도, 현대적 감성을 더한 증표 장도, 을자 문양과 일자 장도까지. 그의 손끝에서 장도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새롭게 태어난다.

장도는 허리춤에 차면 패도(佩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낭도(囊刀)로 차는 위치에 따라 이름이 달라진다. 용도도 다양하다. 호신용으로 지니기도 하고, 노리개처럼 장식용으로 쓰기도 한다. 손주가 뽕이를 깎아 달라고 할 때, 체해서 손을 따거나 제사상에 올릴 밥을 갈 때, 향을 자를 때 장도는 요긴하게 쓰인다. 칼집과 칼자루의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뿔이다. 폭 고아 기름기를 완전히 제거한 암소 다리뼈는 단단하고 맑은 흰빛을 띤다. 뼈로 만든 장도는 세월이 흘러도 색이 바래지 않는다. 언제나 첫 마음을 간직하라는 듯 첫 빛을 그대로 유지한다.





© 국가유산청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

5월 3일부터 5일까지 경북 영주시 문정동치와 선비촌 일원에서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가 열린다. '선비의 온기, 만남에서 빛어진 향기'를 주제로 선비의 야간 유등 퍼레이드, 국악 공연, 흥콘서트 등이 펼쳐진다.

문의 www.yctf.or.kr/seonbi

“제 호가 소당, 작은 집입니다. 항시 자신을 낮추라는 뜻으로 지었어요. 저는 인생에 100이라는 숫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9단, 은의 순도도 99.99퍼센트, 100퍼센트란 존재하지 않죠. 50년 넘게 장도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바라는 것은 단 하나,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장도를 만드는 것입니다.”한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장인의 손끝, 그리고 그 속에 깃든 온기와 열정. 그의 장도에는 그렇게 삶이 녹아 있다.

금성대군의 핏빛 어린 충절

소백산에서 발원된 죽계천은 선비촌과 소수서원을 지나 순흥면을 가로지른다. 죽계천과 나란히 흐르던 길이 갈라지는 지점에서 피끝마을 표지석을 만난다. ‘피끝’은 말 그대로 피가 끝난 자리. 섬뜩한 이름과 달리 이곳은 슬픈 역사가 깃든 마을이다.

세종의 여섯째 아들 금성대군은 강직한 성품으로 조카인 단종을 보호하려 했으나, 1456년(세조 2년) 단종 복위 사건에 연루되어 순흥도호부로 유배되었다. 그에 굴하지 않고 다시 단종 복위를 위한 거사를 도모했으나, 한 관노의 밀고로 죽음을 당한다. 정축지변(丁丑之變). 그해 순흥은 피로 물들었다. 거사에 가담한 이들은 모두 처형당했고, 순흥 근방 30리 안에 사는 사람들과 무참히 희생되었다. 죽계천을 따라 흘러간 피는 10리 너머 지금의 안정면 동촌1리까지 닿았다고 한다. 피끝마을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생겨났고, 약 57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불린다.

정축지변이 순흥에 남긴 상처는 깊지만, 사람들은 지난 역사를 되새기며 아픔을 보듬는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 땅은 불탔다. 다행히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은 고마운 먹거리가 되었다. 순흥 사람들을 먹여 살린 귀한 메밀은 지금 순흥을 대표하는 건강 식재료로 대우받는다. 역사 깊은 메밀묵집도 몇 곳 있다. ‘순흥전통묵집’은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메밀묵 전문점. 매일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펴 쭈어 낸 메밀묵에 진한 멸치 육수와 조밥 한 그릇을 곁들인 묵밥이 이곳의 유일한 메뉴다.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만들어 낸 맑은 맛. 습습한 묵밥 한 숟가락에 달콤한 명태포를 얹어 먹으면 진심으로 위로받는 기분이 든다.

묵집에서 2킬로미터쯤 가면 금성대군의 마지막 이야기가 깃든 금성대군신단을 만난다. 따스한 봄기운이 신단을 감싸고, 뒤편에는 1200년을 산 은행나무가 바람에 잎을 흔든다. “순흥이 죽으면 나무도 죽고, 나무가 살아야 순흥도 살아난다”라는 옛 노랫가락이 바람결에 들려오는 듯하다. 정축지변 때 고사한 나무가 226년이 흐른 뒤 잎을 틔우고 가지를 뻗은 것은 우연이었을까. 1683년(숙종 9년), 순흥도호부가 복원된 해였다. 사주문을 들어서면 좌우로 제청과 주사가 보인다. 제사를 준비하고 지내는 이 두 건물은 1980년 무렵에 만들었다. 매년 봄가를 순흥 유림이 이곳에서 성심을 다해 제향(祭享)을 지낸다. 일각문을 지나 신단으로 들어서면 품(品)자 형태로 놓인 세 개의 재단과 순의비가 눈에 들어온다. 상단은 금성대군신단, 중단은 이보흠부사신단, 하단은 순절의사신단이다. 신이 아닌 인간을 위한 재단, 그 앞에 서니 마음이 숙연해진다.



1 금성대군의 마지막 이야기가 깃든 금성대군신단.
2 피가 끝난 자리, 피끝마을을 알리는 표지석. 3 순흥 사람들을 먹여 살린 메밀. 메밀묵밥은 지역의 인기 먹거리다.

3

Exploring Yeongju's Refined Culture and History

Time flows along the water. The streams of Jukgyecheon and Naeseongcheon meander through two villages in Yeongju, Gyeongbuk, infusing them with the quiet stories of time. These tales flow gently into Yeongju Lake.

Time Travel by Bicycle in Museum Village

About a 20-minute drive from downtown Yeongju, Museum Village is encircled by a gently curving river, giving it the nickname "Muldori Village" (Water-Circling Village). The village has a long history dating back to the Joseon Dynasty. If you prefer not to drive, you can take the Yeongju City Tour Bus, which offers a "Muldori Course" every Saturday, stopping at Museum Village. Designated as a National Folklore Cultural Heritage in 2013, Museum Village is known for its beautiful natural landscape and the preserved lifestyle of the Joseon-era scholars who once lived there. The village features around 40 traditional houses with tiled roofs nestled close together. There are two main ways to explore the village: by walking or by renting a public bicycle for a ride around the village. Visiting the Museum Exhibition Hall beforehand is helpful for understanding the village's history, architectural styles, and natural environment. Until a concrete bridge was built in 1989, the village was accessible only by a single log bridge. The bridge, often swept away by floods and repeatedly rebuilt over the years, has now become a symbol of the village and a popular attraction. Although the river beneath is no deeper than 1 meter, crossing the narrow bridge, which is only 20 to 30 centimeters wide, is quite a challenge. Thankfully, small bypass bridges are installed at intervals along the way to allow people to pass each other. The village hosts the Museum Single-Log Bridge Festival every October, featuring various performances and activities such as traditional wedding reenactments, log bridge walking performances, and traditional funeral procession reenactments, along with a variety of hands-on programs and exhibitions.

Museum Village Address Sudo-ri, Munsu-myeon, Yeongju-si, Gyeongsangbuk-do

Tracing the Heritage of Classical Scholars

To the north of Yeongju's city center, at the foot of Bibongsan Mountain—said to resemble a phoenix protecting its egg—lies Sunheung-myeon. Sunheung is rich with historical cultural assets and landmarks. The most notable is Sosu Seowon Confucian Academy, which was designated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2019. The first to greet visitors at the entrance to Sosu Seowon Confucian Academy is a dense pine forest. The scent of pine carried on the spring breeze clears the mind. It's a place where scholars once composed poetry and discussed knowledge, surrounded by nature's beauty. Standing here, anyone might feel inspired to recite a verse or two. Above Sosu Seowon Confucian Academy lies the Sosu Museum, Seonbi Village, and Seonbee World. Among them, Seonbee World, which opened in 2022, is a modern cultural theme park blending tradition and contemporary life. It's designed around six themes—hanok (traditional Korean houses), hanbok (traditional Korean clothing), hansik (Korean cuisine), hanji (Korean paper), hangeul (Korean alphabet), and han music—where visitors can see, wear, taste, and experience the values and spirit of scholars. Each space offers interactive activities and hands-on experiences. Visitors can enjoy a traditional music appreciation room, tea ceremony sessions, hanji paper-making, hansik cooking classes, and hanbok fabric crafts. There's no shortage of things to see and do. From May 3 to May 5, the 2025 Yeongju Korean Seonbi Culture Festival will take place at Seonbi Village and Munjeong riverside area in Yeongju. Under the theme "The Elated Scholar's Grand Outing," the festival will feature various hands-on activities and performances that recreate the daily life and culture of scholars. Highlights include the official letter delivery ceremony, street performances, and traditional open-air plays.

Sosu Seowon Confucian Academy Address 2740, Sobaek-ro, Sunheung-myeon, Yeongju-si, Gyeongsangbuk-do

Seonbi Village Address 2796, Sobaek-ro, Sunheung-myeon, Yeongju-si, Gyeongsangbuk-do

Sunbee World Address 1, Seonbisesang-ro, Sunheung-myeon, Yeongju-si, Gyeongsangbuk-do



The Awakening of the Dragon in Yeongju Lake

At the center of Yeongju Lake, an artificial reservoir created by the construction of Yeongju Dam, sits Yongmaru, which rises like an island. A park has been built on this site, and the name "Yong" (Dragon) was chosen because, before the dam was built, this area was known as Yonghyeol-ri (Dragon's Lair). Yongmaru Park 1 is located on a ridge at an elevation of 290 meters. The park features an observatory with a view of the dam, a pavilion, and a café famous for its bread made with apples and Buseoktae beans, Yeongju's specialty products, which continue to attract visitors. The observatory was designed to resemble a dragon coiling through the clouds and ascending to the sky. It stands 18.1 meters high in honor of Yeongju Dam's total water storage capacity of 181.1 million cubic meters. From the top of the observatory, visitors are treated to a panoramic view of the vast Yeongju Lake. From Yongmaru Park 1 to the parking lot of Park 2 is a walk of about 700 meters. Entering Park 2, visitors cross two suspension bridges, Yongmi Bridge and Yongdu Bridge, which lead to a peaceful walking trail extending to the site of the former Pyeongeun Station. The bridges represent the dragon's tail and head, and walking along them feels like moving along the length of a dragon. The changing sky, shifting clouds, and the lake's reflections create a scene as vivid and picturesque as a painting. Another interesting sight is the old Pyeongeun Station, which was closed in 2013 when the railway was rerouted due to the construction of Yeongju Dam. The remnants of the station offer a nostalgic glimpse into the past.

Yongmaru Park 1 Address 579-2, Geumgwang-ri, Pyeongeun-myeon, Yeongju-si, Gyeongsangbuk-do

Yongmaru Park 2 Address 1401, Geumgwang-ri, Pyeongeun-myeon, Yeongju-si, Gyeongsangbuk-do



Manjukjae Historic House: 360 Years of History

Seventeen of Museum Village's traditional houses are available for overnight stays, offering visitors the chance to experience the charm of a traditional hanok. Among them, the most historic is the Manjukjae Historic House, which boasts a history spanning 360 years. Its neat and sturdy appearance remains impressive even from afar. Two sets of stairs stand side by side at the entrance — the narrower set was used by people, while the wider one was for cattle. The former stable now serves as a small exhibition space displaying artifacts that reflect Manjukjae's history, including laundry stones, sewing machines, irons, and oil lamps. Manjukjae is a square-shaped hanok with tiled roofs. Its main quarters and guest quarters are connected, forming a natural central courtyard. Unlike other historic houses in the village, the guest quarters are located to the left of the middle gate, where visitors are welcomed. Guests can stay in rooms within the main quarters, guest quarters, study, or Seomgye Chodang. Despite its age, the house is equipped with modern conveniences such as a TV, refrigerator, air conditioner, and microwave. However, as it is an old hanok, the bathroom and shower are located separately outside the house. For those seeking privacy, Seomgye Chodang is highly recommended. Once used as a space for scholarly learning and poetry, this room sits at the highest point in the village. The view from its windows frames the village like a painting, with the Naeseongcheon River and the log bridge visible in the distance.

Manjukjae Historic House Address 11-10, Museum-ro 234beon-gil, Munsu-myeon, Yeongju-si, Gyeongsang buk-do

봄볕이 흥건한 땅, 울산 울주로 떠난다. 외고산옹기마을에서 열리는
울산옹기축제에서 흙과 불의 황홀한 조화를 감상하고, 옛 성곽과 너럭바위를 떠돌며
돌과 바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시간이다. 자연을 닮아 품미 깊은 먹거리는 덩치럼 주어진다.

흙과 돌을 찾아서, 울주를 감각하는 네 가지 방법

가는 방법 서울출발을 기준으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울산역까지 2시간 10분 정도 걸린다.

제작 지원 울주군청



1 | 흙에 가까이 닿다 외고산옹기마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의 본능일까. 흙의 온기가 고스란한 옹기를 들여다볼 때면 어지러운 머릿속은 가라앉고 마음이 고요해진다. 온양읍 고산리의 완만한 언덕에 펼쳐진 한국 최대 규모의 옹기 집산지, 외고산옹기마을 풍경 또한 이토록 너그럽다. 옹기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 1950년대, 지역 곳곳을 전전하며 가마를 축조하던 허덕만 장인은 외고산에 정착하기로 결심한다. 흙이 좋아 가마를 세우기에 유리했고, 주변 지역보다 기후가 온화해 옹기를 굽기에 더할 나위 없었다. 무엇보다 교통이 편리해 전국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기에 편리했다. 허 장인을 중심으로 옹기점이 하나둘 모여들어 형성된 외고산옹기마을은 시대와 생활환경에 따라 흥망과 부침을 거듭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25년 역사에 빛나는 울산옹기축제를 통해 생활 공예의 명맥을 잇는 전통의 수호 기지로 자리매김했음은 물론이다. 이곳엔 생애를 바쳐 옹기를 빚어 온 장인들의 작업장, 옹기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울산옹기박물관, 이 고장의 생활사와 풍속을 망라한 울주민속박물관이 옹기종기 자리해 산책하듯 휘 둘러보기 좋다. 옹기가 담벼락처럼 이어진 정다운 골목 한편엔 온갖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해 만든 옹기 조형물이 손님을 마중하듯 늘어서 있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3길 36 문의 052-237-7894



울산옹기축제

고려시대부터 전통을 이어온 옹기의 가장 현재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싶다면, 5월 3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울산옹기축제에 참여한다. 9년 연속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대상을 수상한 울주 대표 축제답게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손수 흙을 빚어 옹기를 만드는 체험 코너와 옹기콘서트, 주민 참여 공연인 옹기열전 등이 어우러져 흥을 더한다. 외고산옹기마을 장인의 시연 행사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기간 5월 3일~5일

장소 울산시 외고산옹기마을 일원

문의 052-980-2232, @us.onggi



1 허진규 옹기장의 작업장 겸 전시 공간 '옹기골도예'와 가마터.
2, 3, 5 외고산옹기마을을 걷다 보면 옹기를 모티브로 한 구조물이 자주 눈에 띈다. 평면적인 설치물부터 이국적 디자인의 옹기 탑, 사랑스러운 옹기 인형까지. 마을 골목 곳곳이 사진 촬영 스팟이다. 4 흙가래를 쌓아 올려 타림질을 하는 허진규 옹기장. 흙을 빚을 때는 머리를 비우고 오직 옹기 형태에만 집중한다.



1



2

1 질감과 문양, 소재, 출신 성분이 다양한 옹기가 한자리에 모여 있다.
2 울산옹기박물관 앞마당에는 마을을 상징하는 캐릭터 '옹신', 강아지 '시루' 동상이 자리한다. 시루는 허진규 옹기장의 반려견이다.
3 가마솥부터 장독까지, 한국인의 식문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옹기의 모든 것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다.

축제 여행자를 위한 추천 코스

울산옹기박물관 한국 식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 공예품, 옹기의 진면모를 만나러간다. 울산옹기박물관은 옹기의 역사와 전통, 생활 문화와 미학을 보여주는 곳으로 우리가 익히 아는 장독은 물론, 간수를 받아내는 간수 독, 소주를 증류하는 소줏고리, 곡식을 갈 때 쓰는 확독과 확돌 등 다채로운 사료를 전시해 옛사람들의 삶을 상상하게 한다. 입구에는 높이 223센티미터, 둘레 517센티미터에 달하는 <기네스북> 인증 세계 최대 옹기가 자리해 이목을 끌고, 1층과 2층 사이에 옹기가 마치려 꾸민 통로가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한다. 5월 5일까지 열리는 특별전 <心(심): 대한민국 옹기장>은 옹기장의 빼어난 기술과 우아한 신념을 조명한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3길 36
문의 052-237-7894

울주민속박물관 선사시대 문화유산을 간직해 온 울주 사람들의 삶과 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다. 지역 문화가 지닌 가치를 재구성해 네가지 테마의 전시를 열고 있다. '역사와 민속' '일생의례' '세시풍속과 생김' '사람·삶·사랑'으로 이어지는 전시실엔 지랑마을의 혼례복, 동천리 마을의 동계 문서, 농부의 가마니틀과 삼태기, 해녀의 물안경과 테왁 등을 진열해 이 고장의 풍속을 소개한다. 음력 2월의 칼바람을 신격화한 존재 '영등할만네' 이야기와 그에 얽힌 습속을 다룬 기획전 또한 흥미롭다. "나는 바람이다.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다." 나직한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실감 영상은 울주 땅을 가로지르는 영등할만네의 모습을 신비롭게 담아냈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1길 4-19
문의 052-204-4033



1

2

1, 2 인터랙티브 아트와 실감 영상을 동원한 특별전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전시의 주인공은 울주의 음력 2월 바람 신, 영등할만네다.
3, 4 울주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모든 이야기가 울주민속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관혼상제, 세시풍속 등 생활에 밀착한 전시품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3



4

INTERVIEW

옹기골도에 허진규 옹기장



가업을 이어 옹기를 빚고 계시지요. 네, 외고산옹기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 옹기를 만들었습니다. 열여덟에 정식으로 옹기를 빚기 시작했고, 그보다 더 어린 시절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도와 이런저런 잡무를 거들었지요. 경남 양산에서 옹기를 만들던 할아버지께서 먼 친척인 허덕만 장인이 외고산에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들곤 이곳으로 이주하셨다 들었습니다. 그 이래로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네요.

옹기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된 과정이 궁금해요. 여기서 나고 자라 지금까지 옹기를 만드는 사람은 저 뿐일 거예요. 워낙 노동 집약적인 일이라 다들 건디지 못하고 떠났거든요. 흙을 빚고 나서 결과물을 보려면 한 달은 족히 걸리니 인내와 기다림이 필수요 건이기도 하고요. 제 눈엔 흙 빛는 마을 어르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해 보였기에, 언젠가 곳곳이 이 두 손으로 옹기를 완성하고 싶었어요. 쉽진 않았습니 다. 흙가래를 끊임없이 쌓아 타림질을 하고, 형태를 갖춘 그릇을 숯불에 건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니까요. 잠깐 다른 생각을 하며 발물레를 돌리면 스승님이 "너 무슨 생각하니?" 하며 귀신같이 알아차리곤 하셨죠. 그렇게 흙 빛는 일 하나에 골몰하다 보니 어느덧 42년이 흘렀네요.

이미 300여 가지 옹기를 만들고 일가를 이룬 옹기장에게도 새로운 목표가 있을까요. 범용성 높은 옹기 제조 기술을 조금 더 널리 알리고 싶어서 후학을 양성하는 중입니다.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건져 올려라." 작업장에 써 붙인 문장을 등불 삼아 오늘 옹기, 내일의 옹기를 고민하며 천천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2 | 돌 사이에 고인 시간 언양읍성과 서생포왜성

여행에 즐거움을 더하는 모험 중 하나는 높은 곳에 올라 발아래를 굽어보는 일일 테다. 그럴싸한 전망대도 좋지만, 오래된 성곽에서 도시를 조망할 때면 옛사람의 마음에 동화된 듯 감상적인 기분에 사로잡힌다. 울주 땅에는 유서 깊은 성곽이 둘 있다. 하나는 울주 중심인 언양에 자리한 언양읍성이다. 삼국시대에 토성으로 축조한 언양읍성은 조선 시대에 석성으로 개축해 사대문과 12개소의 치성, 해자를 갖춘 어엿한 건축물로 거듭났다. 무수한 전쟁과 일제강점기를 건디는 동안 거의 소실되었으나 1991년부터 정밀 지표 조사를 실시해 복원 작업을 시작했고, 2013년 8월에는 진남문인 영화루를 정비해 일반에 공개했다. 최근엔 영화루를 기점으로 한 마을 탐방 코스 '언양갈래길'을 마련하기도 했다. 벽화와 과거 사진으로 꾸민 골목길을 거닐며 마을의 역사와 자취를 좇는 재미가 쏠쏠하다. 걸음은 물길을 따라 이어진다. 울주의 또 다른 성곽인 서생포왜성은 회야강과 진해해변이 만나는 요충지에 위치한다. 임진왜란 때 왜장이 세운 구조물로, 현존하는 왜성 중 보존 상태가 양호해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는다. 이 견고한 석성을 쌓았을 조선인의 땀과 눈물을 감히 짐작할 수 있을까. 성에서 마주하는 바다와 마을 풍경은 덧없이 눈부시지만 하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성안1길 1(언양읍성),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서생3길 12-8(서생포왜성)

1, 4 언양읍성에 올라서면 검푸른 산의 능선이 파도처럼 아물거리는 풍경을 마주하게 된다. 성곽과 마을이 다정하게 어우러진 모습도 인상적이다. 2, 3 언양갈래길을 걷는 동안 벽화와 옛 마을 사진을 구경한다. 이곳 출신 문인 오영수의 자취도 살펴본다. 5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쌓아 올린 서생포왜성은 여느 성곽보다 위압적인 모습이다. 6, 7 서생포왜성은 회야강과 진해해변이 만나는 지점을 한눈에 굽어보도록 설계했다. 강양방파제와 강양항을 잇는 명선교, 진해해변에서 육계사주로 연결되는 명선도가 풍경에 낭만을 더한다.





3 | 너럭바위에 누워 작괘천과 작천정

신불산에서 간월산으로 이어지는 북쪽 계곡엔 예부터 묵객들이 찾아와 노닐던 은신처가 있다. 이름하여 작괘천. 널따란 화강암 암반 지대에 생성된 구혈이 꼭 술잔을 닮았다 해서 술 부을 작(酌), 걸 과(掛)자를 쓴다. 산 좋고 물 맑으니 몸 기댈 자리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터.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선비들이 열망해 온 정자는 1902년 에야 준공되어 작천정이란 이름을 얻었다. 정각 구석구석에는 옛사람들이 작괘천과 작천정을 노래한 시, 노래, 글줄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억지로 작은 다락을 지어 별세계를 열고/ 기이한 바위에 대응하여 맑은 시내를 끌어 안네/ 무심한 구름은 피어 나와 처마에 기대어 자고/ 심지 않은 꽃이 피어 산기슭이 그윽하네”. 갑진년(1904년) 6월 상한에 만취 오인선이 썼다고 전하는 문장은 각별히 아름다워 시선이 오래 머문다. 정자 마루에 앉아 물길을 바라봐도 좋지만, 너럭바위에 대자로 누워 온몸으로 봄벌을 느끼는 쾌감과 비교하긴 어렵다. 훗훗한 바람, 싱그러운 숲 내음, 음악처럼 반짝이며 흐르는 물 소리가 감각세포를 곤두세운다. 작괘천 길목에 늘어선 빛나무도 머지않아 만개해 봄기운을 더할 것이다. 가만히 눈을 감고 그 모습을 상상하는 동안 마음이 꽃눈처럼 부풀어 오른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삼남읍 등억알프스로 133



1,2너른 화강암 암반에 잔 모양 구혈이 생성되어 운치를 더하는 작괘천. 곧 빛나무에 꽃이 흐드러질 것이다. 제일 전망 좋은 자리에 작천정이 올라섰다. 3 작괘천 바위 곳곳에 이름과 시구 등이 새겨져 있다.



1, 2, 3 도예가 신용균의 도자기는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최대한 자연을 닮고자 한다. 왕방요의 공간과 찻자리가 모두 그의 작품 세계를 담았다. 4, 6 목리459 울산점은 내부 공간의 채도를 낮추는 대신 자연의 변화무쌍한 풍경을 인테리어 요소로 활용한다. 5 휴과 바위를 닮은 디저트와 음료가 이채롭다.



4 | 땅의 기운을 들이마시다 왕방요와 목리459 울산점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태화강 선바위와 안양지석묘... 지구의 아득한 시간이 응축된 울주 땅에서 돌과 흙의 심상이 어른거리는 건 축물을 발견한다. 삼동면 왕방마을에 자리한 '왕방요'는 도예가 신용균이 빛은 다구로 찻자리를 마련한 카페다. 가마터와 아틀리에, 갤러리를 겸한 복합 문화 공간이기도 하다. 노출 콘크리트 벽체로 공간을 구획하며 연결해 나가는 신묘한 구조. 벽과 벽 사이에서 들이치는 빛. 곳곳에 놓인 도자기는 멋과 운치를 더한다. 검박한 덩벙 분청 잔에 향긋한 '김탕홍차'를 따라 마시는 동안 자연과 하나 되는 듯한 기분을 만끽한다. 연화천과 주원천이 굽이치는 두동면 구미리엔 카페 '목리459 울산점'이 자리한다. 모던하고 환한 상아색 건물에 들어서자 짙은 먹색과 나무, 바위로 장식한 공간이 들뜨 마음을 가라앉힌다. 채도와 조도를 낮추는 한편, 시시각각 변화하는 풍광을 그대로 담아 차경의 미학을 충실히 실현하는 창호가 인상적이다. 탁 트인 바에 앉아 현무암을 닮은 치킨과 크로플을 곁들인 브런치 메뉴 '목리폴', 농밀한 먹빛을 띤 흑임자 아인슈페너 '목라테', 먹물 크루아상에 아이스크림을 얹은 디저트 '주상절리'를 맛보는 동안은 신선이 부럽지 않다. 배경음악처럼 들리는 물소리마저 상념을 씻어 준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출강왕방길 124(왕방요),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인보구미로 324-13(목리459 울산점)
문의 @cafe_wangbangyo(왕방요), @mukri459_ulsan(목리459 울산점)





Four Ways to Experience Ulju

This spring, head to Ulju in Ulsan. Experience the harmonious blend of clay and fire at the Ulsan Onggi Festival in Oegosan Onggi Village. Explore ancient fortresses and broad rock formations while listening to the whispers of stone and wind.

1 Oegosan Onggi Village and Ulsan Onggi Festival

In the 1950s, as demand for onggi (traditional earthenware) surged, master potter Deok-man Heo decided to settle in Oegosan. Over time, other potters followed, forming what is now Oegosan Onggi Village. The village has weathered the ups and downs of changing times and lifestyles, becoming a symbol of enduring craftsmanship. Since 2000, it has also served as the heart of the Ulsan Onggi Festival, preserving and celebrating this living art form. Today, Oegosan Onggi Village is home to the workshops of master potters dedicated to lifelong craftsmanship, the Ulsan Onggi Museum, which preserves the history and culture of onggi, and the Ulju Folk Museum, showcasing the region's way of life and local customs. It's the perfect place for a leisurely stroll through history and artistry.

Address 36, Oegosan 3-gil, Onyang-eup, Ulju-gun, Ulsan **Contact** 052-237-7894

+ Ulsan Onggi Festival

If you want to see the most authentic expression of this centuries-old tradition, visit during the Ulsan Onggi Festival from May 3 to May 5. Having won the Korea Festival Contents Award for eight consecutive years, this is Ulju's signature festival. It features a rich lineup of events, including a hands-on clay shaping corner where you can try making your own onggi, the lively Onggi Concert with music and performances, and the Onggi Contest, which is a vibrant showcase of local tal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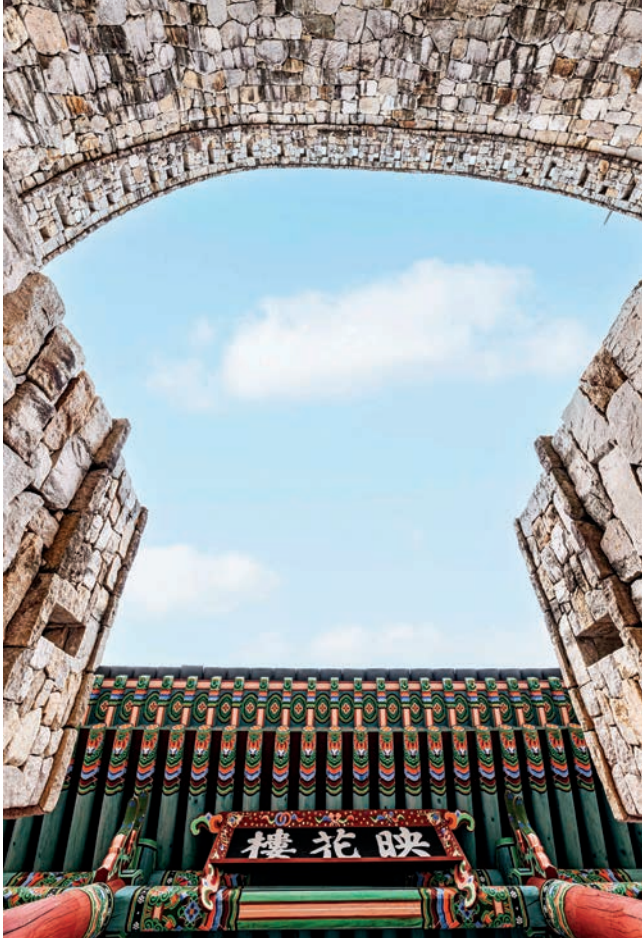
Dates May 3-5 Place Oegosan Onggi Village, Ulsan **Contact** 052-980-2232, @us.onggi



2 Eonyang Eupseong Fortress and Seosaengpo Waeseong Fortress

Ulju is home to two historic fortresses, each preserving the traces of the past. One is Eonyang Eupseong Fortress, located in the heart of Eonyang. Though it suffered significant damage through numerous wars and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detailed surveys were conducted starting in 1991, leading to restoration efforts. In 2013, the Yeonghwaru Pavilion was rebuilt and opened to the public. Recently, the village has also introduced a walking trail called Eonyang Gallae-gil, starting from the pavilion. Strolling through the alleyways decorated with murals and historic photos offers a charming glimpse into the village's history and legacy. The other fortress, Seosaengpo Waeseong Fortress, stands at a strategic point where the Hoeya River meets Jinha Beach. The breathtaking view of the sea and village from the fortress evokes both admiration and a sense of solemnity.

Address Sungan 1-gil, Eonyang-eup, Ulju-gun, Ulsan (Eonyangeupseong Walled Town) 12-8, Seosaeng 3-gil, Seosaeng-myeon, Ulju-gun, Ulsan (Seosaengpo Waeseong Fortress)



3 Jaggwaecheon and Jagcheonjeong

Nestled in the northern valley between Sinbulsan Mountain and Ganwolsan Mountain, Jaggwaecheon has long served as a retreat for poets and scholars. The natural rock formations seem like wine cups carved into the granite bedrock. The clear mountain air and refreshing waters make it the perfect spot to rest your body and soul. In 1902, after centuries of longing by local scholars, a pavilion named Jagcheonjeong was finally built. The pavilion is filled with old poems, songs, and writings dedicated to Jaggwaecheon and Jagcheonjeong. Sitting on the wooden floor of the pavilion while gazing at the water is soothing, but nothing compares to the pleasure of lying flat on the wide rock and feeling the spring sunlight on your skin. The gentle breeze, fresh scent of the forest, and the sparkling sound of flowing water awaken your senses.

Address 133, Deungeogalpeuseu-ro, Samnam-eup, Ulju-gun, Ulsan



4 Ulju's Architectural Spaces, Wangbangyo and Mukri 459 Ulsan Branch

Wangbangyo, located in Wangbang Village in Samdong-myeon, is a tea house created by ceramic artist Yong-gyun Shin. As the name suggests, it is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that includes a kiln site, an atelier, and a gallery. Its exposed concrete walls are thoughtfully designed, and the carefully placed ceramic works add to the refined atmosphere. Sipping Kimtaeng Black Tea from a simple Buncheong ware cup enhances the sense of harmony with nature. Meanwhile, Mukri 459 Ulsan Branch is located in Gumi-ri, Dudong-myeon. Its interior, adorned with deep shades of black, wood, and stone, calms the mind. The large windows, designed to reflect the ever-changing natural scenery, embody the aesthetics of "borrowed scenery." The highlight is the Muk Latte, a black sesame espresso topped with rich cream, and the Jusangjeolli dessert, a squid ink croissant topped with ice cream.

Address 124, Chulgangwangbang-gil, Samdong-myeon, Ulju-gun, Ulsan (Wangbangyo), 324-13, Inbogumi-ro, Dudong-myeon, Ulju-gun, Ulsan (Mukri 459 Ulsan Branch) **Contact** @cafe_wangbangyo (Wangbangyo), @mukri459_ulsan (Mukri 459 Ulsan Branch)



장
극
예
수
로
대
학
·
아
르
코
·
이
에

누구나 극장에 간다

예술에는 장벽이 없다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미술관이나 공연장을 이용할 때 상당한 불편을 느낀다. 모든 사람에게 열린 공간이 되고자 노력하는 서울의 두 극장을 발견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친구와 예술을 보러 가다〉의 저자 가와우치 아리오는 한 시각장애인과의 함께 미술관에 가자는 친구의 말에 머뭇거린다. 빛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본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의아해하는 그에게 시각장애인 시라토리 겐지는 무엇이 보이는지 말해 달라고 요청한다. 시라토리가 작품을 감상하는 법은 한 작품에 대한 여러 사람의 해석을 듣는 것. 볼 순 없어도 눈앞의 작품을 느끼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다.

공연은 전시를 관람할 때보다 더 많은 감각을 필요로 한다. 배우의 움직임, 각종 음향, 무대를 구성하는 장치 등 수많은 요소가 결합된 복합 예술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장애인 관객이 공연을 감상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장벽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하는 아르고·대학로예술극장과 모두예술극장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았다.

모든 관객은 극장의 손님

서울 혜화동에는 국공립 극장인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이 있다. 아르코예술극장은 국공립 극장이 더 필요하다는 연극인들의 요구에 따라 1981년 당시 문예진흥원이 설립했고, 대학로예술극장은 대학로에 중극장을 열겠다는 목적으로 2009년에 개관했다. 그리고 2010년 가까이 자리한 두 극장이 손을 잡았다. 이 중 아르코예술극장 입구 경사로가 건물을 처음 세웠을 때보다 평평해진 점이 눈에 띈다. 경사로가 울퉁불퉁해 극장 안까지 휠체어로 이동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돌을 갈아 내 지금의 경사로가 탄생했다. 2018년에는 한영 상호교류의 해를 맞아 내한한 칸두코 댄스 컴퍼니의 공연에서 처음으로 객석 한 줄을 없애고 휠체어석을 추가로 마련했다. 이때 칸두코 댄스 컴퍼니 단원을 비롯한 다수의 장애인 예술인과 스태프가 극장을 방문했는데, 이것이 접근성 문제를 인식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일반 객석을 뜯어냈던 라 구역은 탈부착이 가능한 의자로 교체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대학로예술극장은 2023년, 자막 해설 모니터를 부착하는 공사를 하면서 맨 앞줄을 바퀴가 달린 이동식 객석으로 바꿨다. 공연 때마다 무대 가까이에서 관람하기를 원하는 휠체어 이용객 수 만큼 의자를 빼내고 그 자리에 휠체어석을 표시하는 매트를 깐다.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에서 일하는 이유진 접근성 PD는 장애인 관객이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한다. 대관 공연을 신청한 단체에 공연장에 설치할 빔 프로젝터를 빌려 주고, 자막 해설 오퍼레이터 섭외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제공하는 등 지원을 이어 간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제안하고, 나아가 같이 공연을 제작하기도 한다. 지난해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을 수상한 <공동창작 실패 다큐멘터리: 생존자프로젝트는 생존할 수 있을까>는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과 극단 생존자프로젝트가 공동 기획한 연극이다. 본주 연출가는 연극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공연을 보길 바랐고, 자문 회의를 거쳐 ‘열린 객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열린 객석을 도입할 경우 공연 중 관객의 행동에 엄격

한 제한을 두지 않아 자극에 민감한 사람도 충분히 관람할 수 있다. 입장과 퇴장도 자유롭다. 공연 중 뜻하지 않은 자극이나 불안감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용한 ‘도움 가방’도 준비했다. 청각 자극을 줄이는 소음 감소 헤드셋과 일화용 이어플러그, 긴장을 완화해 주는 스트레스 볼, 공연 중 스태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사용하는 감정 카드 등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다양하게 구성했다.

이처럼 접근성 PD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연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작품을 무대에 올리기까지 고려해야 할 수많은 가능성 앞에서 창작자가 포기하지 않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 “공공 극장 PD는 경험을 공유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작 과정 기록집을 공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어렵다는 생각에 시도조차 못 하는 창작자에게 정답은 없고 우리도 계속 실패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공연이든 모든 관객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극장이 조금씩 변화하면서 한 번도 공연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관객을 만날 기회도 늘었다. 모든 회차의 자막 해설을 제공하고 일부 회차에는 수어 통역사가 무대에 오르기도 한 청소년극 <광!>은 서울농학교 학생 100여 명이 단체로 보러 와 큰 기쁨을 안겼다. 그가 이토록 열심히 공연을 꾸려가는 데에는 스스로를 위한 마음도 있다. “나이가 들어 감각이 퇴화하면 저도 소외될 거잖아요. 모든 관객을 고려한 공연 시스템이 정착되면 나중에도 지금처럼 예술을 향유할 수 있겠죠.” 공연을 사랑하는 한 명의 관객이 또 다른 관객을 부른다.



연극 <카운팅>은 공연 전에 단차가 있는 무대를 모형으로 만들어 관객이 만져 볼 수 있게 했다.

© 아르코·대학로예술극장

혹시 마루중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1

1 청소년극 <광!>은 자막 해설과 수어 통역을 함께 제공했다. 수어 통역사는 작품 내용에 맞춰 체육복을 입고 무대에 올랐다.

2 무용 공연 <벨레방: 씹소리>는 시각장애인의 공연 감상을 돕기 위해 촉각 카드를 제작했고, 연극 <랄라라>는 점자 팸플릿을 만들어 작품 즐거움을 안내했다.

3 이유진 접근성 PD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탈부착이 가능한 객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라 구역만 미묘하게 색이 다르다.





1



2



3

1 휠체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안내 데스크 높이를 조정했다. '허어링 루프 존'에 인공 와우나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들어서면 주변 소음이 차단되고 안내원의 말이 명료하게 들린다.

2 가족 화장실 입구에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점자 촉지도를 부착했다.

3 무대감독의 역할과 제작 과정에 얹힌 에피소드를 들려주는 신현우 무대감독. 객석 앞쪽에는 휠체어석임을 표시하는 매트가 깔려 있다.

4 낭독 공연 <볼링의 역사> 출연 배우들이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 프로그램 시작 전에 각자 인상착의를 설명한다.

4

바지를 입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척 역할을 맡은 배우 하지성
이고요.

저는 파스텔 톤의 상의와 청바지를 입고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sharetyping



© 한국장애인문화예술포럼

바라봐도 되나, 어떻게 봐야 하나.

찰나의 자문자답 속에서 그동안 장애인을 향한
시선에 폭력과 비폭력만 존재했음을 깨닫는다.

객석에서 무대까지

극장에 가는 사람은 작품을 보러 가는 관객일 수도 있고, 공연을 하러 가는 예술인일 수도 있다. 장애인도 객석에서 퍼포먼스를 감상하거나 무대 위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할 수 있다. 2023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에 문을 연 모두예술극장은 장애 예술인의 창작을 지원하는 공연장이다. 개관 프로그램으로 기획한 뮤지컬 <푸른 나비의 숲>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배우가 함께 출연해 더불어 사는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소리로 세상을 느끼는 주인공 던은 저시력 장애 배우 이근하가 맡았고, 푸른 나비 역할은 저신장 배우 김범진과 김유남이 연기했다. 여섯 명의 수어 통역사가 그림자처럼 배우와 함께 움직이며 통역에 안무와 연기를 더해 대사를 입체적으로 전달했다. 4월 13일까지 열리는 연극 <젤리피쉬>는 발달장애인 배우 백지윤이 주인공을 맡아 다운증후군 여성 젤리를 연기한다. 모두예술극장은 관객, 배우, 제작진 등 누구나 공간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없어야 하기에 공간 전체를 단차 없이 설계했다. 또 공연을 올리거나 연습할 공간이 필요한 장애 예술인에게 대관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모두예술극장에서 기획 공연을 주로 담당하는 신현우 무대감독은 장애 예술인과 함께 일하며 새로운 시각을 배운다고 말한다. 소통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을 발견하기도 한다. “시각장애인 배우가 사전 답사를 하러 와서 무대의 폭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4미터라고 답했더니 미터 자체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무대 크기를 감각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에게는 미터 개념을 익힐 법이 없었던 거죠. 무대를 같이 걸으며 크기를 가늠하도록 도와줬어요.” 장애 배우가 출연하는 작품이 많아지는 건 어쩌면 비장애인 관객에게 더 큰 의미를 갖게 한다. 무대와 객석



발달장애인 배우가 주연을 맡은 연극 <젤리피쉬>.

의 경계를 허문 극장은 배우와 관객의 거리가 어깨를 스칠 정도로 가깝다. 바로 앞에서 장애 배우의 움직임에 집중하다 보면 혼란스러운 순간이 찾아온다. 일상에서 이들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쳐다보는 일 자체가 폭력적이라 여겨 의도적으로 눈길을 돌렸는데, 응시할 대상으로 마주하니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바라봐도 되나, 어떻게 봐야 하나. 찰나의 자문자답 속에서 그동안 장애인을 향한 시선에 소통과 공감이나 폭력과 비폭력만 존재했음을 깨닫는다. 무대 위 배우가 관객의 존재를 확인하고 현장 반응을 살피는 수단은 박수와 웃음소리다. 박수 소리가 우렁차고 웃음소리가 호쾌하면 배우는 더 신이 난다. 그러나 장애인을 향한 웃음은 부정적으로 비쳐지기 쉬워 장애 배우가 던지는 농담에 편하게 웃기 어렵다. “왜 우리는 마주 보며 기꺼이 기쁘게 웃어 본 적도 없을까.” 장애인 극단의 창작 과정을 관찰해 온 공연 예술 연구자 김슬기의 말이 마음을 쿡하고 찌르는 이유다.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극장에서 자주 만나야겠다. 한 공간에서 눈을 맞추는 시간이 쌓이면 서로를 향해 웃는 행동이 자연스러워질 테다. 그러려면 누구나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극장이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

KTX차량은 어떻게 진화했을까

KTX-산천, KTX-이음, KTX-청룡은 고속철도 차량 국산화 작업 31년의 눈부신 성과다. 무엇이 얼마나 진화했을까.



도움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현대로템

꿈의 속도, 시속 300킬로미터

‘육상 교통의 혁명’이라 불린 KTX가 첫 운행을 시작한 지 어느덧 21년이 되었다. 서울-부산 2시간 40분. 당시 제일 빠른 새마을호보다 1시간 30분 단축한 KTX는 대한민국을 만나질 생활권으로 만들었다. 한국 철도 126년 역사상 가장 큰 혁신이었다. 이후 14년 만에 국내 기술로 만든 KTX-산천이 첫선을 보였고 KTX-이음, KTX-청룡이 차례로 등장했다. 2004년 4월 1일, 한국 땅을 달린 KTX는 프랑스 알스톰사의 떼제베(TGV) 차종이었다. 일부 차량은 프랑스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국내에서 제작했다. 프랑스의 도움으로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지만, 지속 가능한 철도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내 기술로 만든 고속철도가 필요했다. KTX 개통 이전부터 있었던 이 논의는 1996년 ‘시속 350킬로미터급 한국형 고속 차량 HSR-350X(G7) 개발 프로젝트’로 이어졌고, 착수 6년 만에 시험 차량 HSR-350X(G7)의 첫 주행에 성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 KTX-산천이 탄생했다. 차체, 대차, 견인 전동기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80퍼센트에 달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자체 고속철도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되었다. KTX-산천의 ‘산천’은 토종 물고기인 산천어에서 따왔다. 초창기에는 KTX-II로 불리다 공모전을 통해 ‘KTX-산천’으로 명명했다. 현재 110000호대, 140000호대(원강)로 나뉘어 다양한 노선에서 운행 중이다.

KTX-이음의 등장과 KTX-청룡의 비상

KTX-산천 이후 등장한 KTX-이음은 처음으로 동력 분산식이 적용됐다. KTX와 KTX-산천, KTX-산천(원강)에서 채택한 동력 집중식은 시속 3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영역에서 점착력 한계, 궤도 유지·보수 비용 증가, 수송 용량 증대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에 반해 동력 분산식은 객실 바닥에 플로팅 플로어(바닥 패널이 바닥에서 떠 있는 형태) 기술을 적용해 소음과 진동이 적고 승차감이 좋은 장점이 있다.

2007년, 동력 분산식 고속 차량 국산화에 착수했고 2012년 최고 시속 430킬로미터급 차세대 한국형 고속 시험 차량 HEMU-430X를 개발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20년 KTX-이음이 탄생했다. KTX-이음은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완성한 준고속열차로, 기존 선로에서도 운행이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순우리말인 ‘이음’은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이어 준다는 의미를 갖는다. 2024년 5월, KTX-이음보다 성능이 향상된 시속 320킬로미터급 동력 분산식 고속 차량 KTX-청룡이 운행을 시작했다. 청룡의 해를 맞아 힘차게 도약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운행 초기 46편성에 불과했던 KTX는 현재 KTX-산천, KTX-산천(원강), KTX-이음, KTX-청룡을 포함해 총 105편성으로 늘어났다. 이제 대한민국은 시속 400킬로미터 이상의 HEMU-430X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2033년에 도래하는 초기 KTX의 내구 연한에 대비해 차세대 고속열차도 개발 중이다.

동력 집중식과 동력 분산식, 뭐가 다를까?

열차의 동력 방식은 동력 집중식과 동력 분산식으로 나뉜다. KTX와 KTX-산천, KTX-산천(원강)은 동력 집중식 열차다. 열차의 맨 앞과 맨 뒤에 붙은 동력차에 추진 시스템과 집전 시스템이 집중되어 있어서 차량의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객차에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이 적다. KTX-이음과 KTX-청룡은 동력 분산식을 적용했다. 차량 하단에 동력 장치가 분산 배치되어 있어 가속 능력이 뛰어나다. 덕분에 역 간 거리가 짧은 국내 철도 환경에 적합하다. 동력차가 없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승객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객차 아래 동력 장치가 있어 소음이나 진동에 취약할 것 같지만, 객실 바닥에 플로팅 플로어(바닥 패널이 바닥에서 떠 있는 형태) 기술을 적용해 승차감을 개선했다.

동력 집중식



동력 분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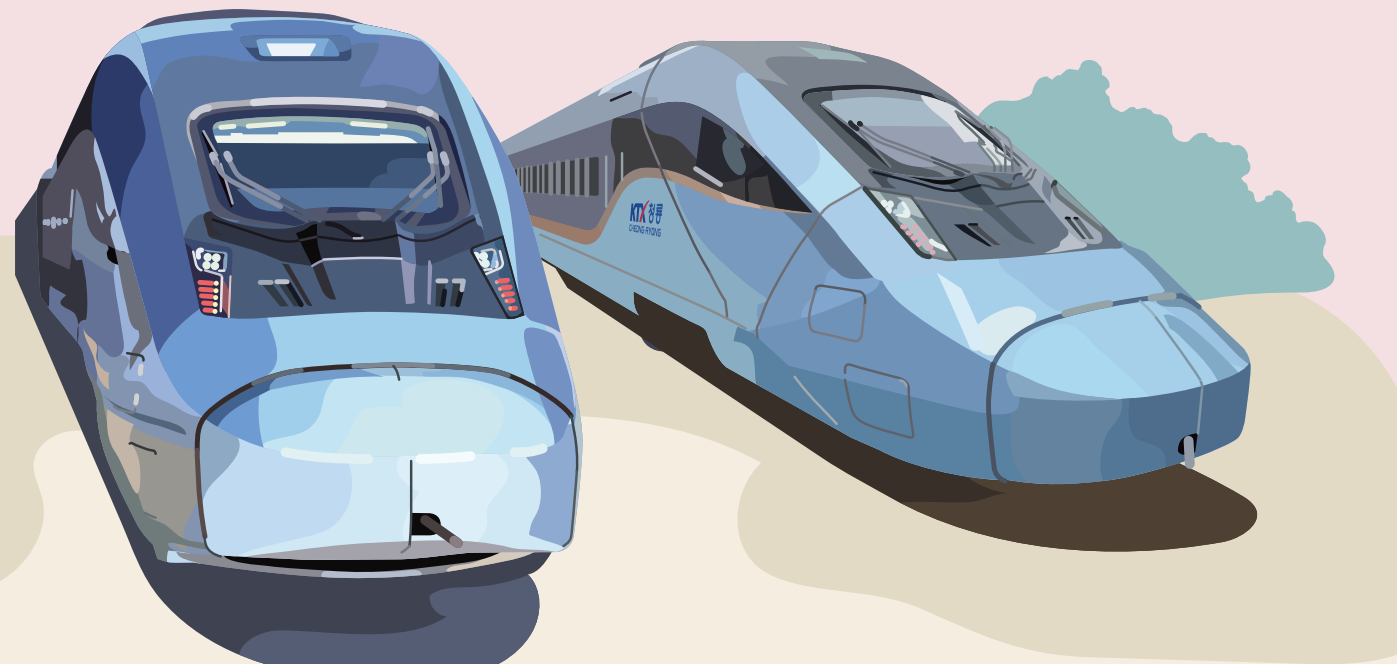


KTX

보유량	46편성 좌석수 955석(20량 1편성-운전실 2, 특실 3, 일반실 15)
주요 제원	동력차(LxW) 22,607×2,814mm 편성 길이 388.1m 출력 18,184Hp 중량 701.1t 제동 거리 3,300m 내구 연한 30년 동력 방식 동력 집중식 승강장 형식 저상 홈
속도	영업 최고 속도 300km/h 설계 최고 속도 330km/h
재질	마일드 스틸
편의 시설	3.3석당 1개 전원 콘센트, 휴대물 보관소, 남녀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1개), 휠체어 보관소(1개), 휴대전화유료 충전기(5개), 음료·스낵 자판기(5개), 수유실(2개), 기저귀 교환대(2개), 자동 심장 충격기(4·10·15호차 비치), 소화기(호차간 통로 비치)

KTX-산천 & KTX-산천(원강)

보유량	KTX-산천 24편성 좌석수 379석(10량 1편성-운전실 2, 특실 1, 일반실 7) KTX-산천(원강) 14편성 좌석수 410석(10량 1편성)
주요 제원	동력차(LxW) 22,700×2,814mm 편성 길이 201m 출력 11,800Hp 중량 403t(KTX-산천(원강)은 406t) 제동 거리 3,000m 내구 연한 30년 동력 방식 동력 집중식 승강장 형식 저상 홈
속도	영업 최고 속도 300km/h 설계 최고 속도 330km/h
재질	동력차 연강 객차 알루미늄 압출재
편의 시설	1석당 1개 전원 콘센트, 휴대물 보관소, 남녀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1개), 휠체어 보관소(1개), 음료·스낵 자판기(2개), 수유실(1개), 기저귀 교환대(2개), 자동 심장 충격기(KTX-산천은 4호차, KTX-산천(원강)은 6-7호차 통로 비치), 소화기(호차간 통로 비치)



KTX-이음

보유량	19편성 좌석수 381석(6량 1편성-우등실 1, 일반실 5)
주요 제원	동력객차(LxW) 24,300×3,150mm 편성 길이 150.5m 출력 8,150Hp 중량 318t 제동 거리 2,408m 내구 연한 30년 동력 방식 동력 분산식 승강장 형식 고상·저상 홈
속도	영업 최고 속도 260km/h 설계 최고 속도 286km/h
재질	알루미늄 압출재
편의 시설	1석당 1개 전원 콘센트, 휴대물 보관소, 남녀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1개), 휠체어 보관소(1개), 음료·스낵 자판기(2개), 수유실(1개), 기저귀 교환대(2개), 자동 심장 충격기(2-3호차 통로 비치), 소화기(호차간 통로 비치)

KTX-청룡

보유량	2편성 좌석수 515석(8량 1편성-우등실 1, 일반실 7)
주요 제원	동력객차(LxW) 24,300×3,150mm 편성 길이 199.1m 출력 12,225Hp 중량 425t 제동 거리 4,000m 내구 연한 30년 동력 방식 동력 분산식 승강장 형식 고상·저상 홈
속도	영업 최고 속도 320km/h 설계 최고 속도 352km/h
재질	알루미늄 압출재
편의 시설	1석당 1개 전원 콘센트, 휴대물 보관소, 남녀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1개), 휠체어 보관소(1개), 음료·스낵 자판기(3개), 수유실(1개), 기저귀 교환대(2개), 자동 심장 충격기(2-3호차 통로 비치), 소화기(호차간 통로 비치)



새로운 열차 노선, 확장된 여행 지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서해선, 동해선, 중앙선, 중부내륙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개통했다. 새로 놓인 철도는 기존 노선을 연결하며 도·군을 가뿐히 넘어선다. 지역과 지역이 가까워졌고, 여행은 더 풍성해졌다.

충남을 관통하다, 서해선



홍성역 충남 홍성의 상징인 조양문을 형상화한 한옥 양식 건물로, 기와지붕과 꽃담 문양의 담벼락이 멋스럽다. 광장에는 민속 열사들의 동상이 있다.

정차역



* 기존 서해선 대곡-원시 운영 중



안중역 서해선 최대 규모의 역사로, 백로가 날개를 펼친 듯한 형상과 우뚝 선 소나무를 본떠 도시와 자연이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는 역의 모습을 담았다.

개통일	2024년 11월 2일
운행 열차	ITX-마음(67분 소요)
운행 횟수	상·하행선 각 4회씩 총 8회

충남 홍성과 경기 서화성을 1시간대에 연결하는 노선. 평균 시속 150킬로미터급 ITX-마음이 하루 8회 왕복 운행한다. 서해선의 기존 대곡-원시 구간과 분리되었지만, 2026년 신안산선 4킬로미터 서화성-원시 구간이 개통되면 KTX-이음 열차가 홍성에서 대곡까지 직행한다.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는 서화성역과 초지역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하루 4회 운행한다.

서화성역 출발 08:10, 11:45, 15:25 **초지역 출발** 07:40, 11:15, 14:55, 18:30

동해의 새로운 여행법, 동해선



고래불역 경북 영덕의 동해선 무인역. 바닷속을 유영하는 고래가 떠오르는 디자인으로, 2층 대합실에서 고래불해수욕장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정차역

ITX-마음 열차별(1234·1250·1252·1256호), 운행 구간별 정차역 상이



삼척역 죽서루의 처마와 기둥, 석축 기반을 형상화한 새로운 역사로 재탄생했다. 유선형 지붕은 삼척을 가로질러 바다로 흐르는 오십천을 본떠 설계했다.

개통일	2025년 1월 1일 신규 개통
운행 열차	ITX-마음(강릉-부전 5시간 소요) ITX-마음(강릉-동대구 4시간 소요) 누리로(4시간 30분 소요)
운행 횟수	ITX-마음(강릉-부전 상·하행선 각 4회씩 총 8회) ITX-마음(강릉-동대구 상·하행선 각 1회씩 총 2회) 누리로(강릉-동대구 상·하행선 각 3회씩 총 6회)

올해 1월 동해선 삼척-영덕 구간이 개통하면서 강원권과 경북권이 5시간 생 활권이 되었다. 이제 열차를 타고 동해, 삼척, 울진, 영덕, 포항 등 관동팔경을 감상하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앞둔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도 탐방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강원도, 부산, 울산, 경북 등 4개 시도는 동해선 철도를 이용한 관광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동해선 이용객은 1월 하루 평균 6000여 명, 한 달 누적 18만 명에 달한다. 이 중 강릉-부전 구간 이용자는 9.8퍼센트로 가장 많다.

82년 만에 이어진 중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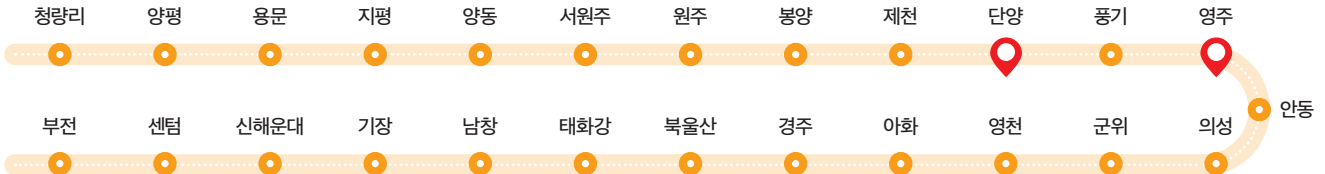


영주역 소수서원과 부석사의 정취가 깃든 역사. 한옥의 세살분합 창살 문양으로 전면부를 꾸몄다. 무량수전의 배흘림기둥을 닮은 기둥 8개가 역사를 떠받치고 있다.

정차역 KTX-이음 열차별(703·709·713호), 운행 구간별 정차역 상이



정차역 ITX-마음



단양역 남한강을 앞에 두고 커다란 산세에 폭 안긴 듯 자리한 역사. 단양팔경 중 하나인 도담삼봉을 표현한 지붕의 곡선이 눈길을 끈다.

개통일 2024년 12월 20일 연장 개통

운행 열차 KTX-이음(약 3시간 56분 소요)

ITX-마음(약 5시간 40분 소요)

운행 횟수 KTX-이음(상·하행선 각 3회씩 총 6회)

ITX-마음(상·하행선 각 2회씩 총 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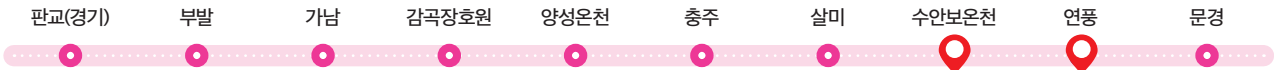
서울에서 경북 안동, 경주를 거쳐 부산까지 이어지는 중앙선 철도가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 전철로 바뀌었다. 지난해 12월 중앙선 도담-영천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이 마무리되며 중앙선 전 구간이 고속철도로 연결된 것이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은 2010년 청량리-덕소, 2011년 제천-도담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2021년 원주-제천, 영천-경주에 이어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까지 복선 전철화를 완료했다.

국토 종단의 새로운 축, 중부내륙선



연풍역 충북 괴산군 최초의 철도역.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가 돋보인다. 옥상 전망대의 기와지붕은 문경새재의 관문인 조령관문을 형상화했다.

정차역



* 2단계 구간 연장 개통



수안보온천역 수안보 옛 고개를 부드러운 곡선 지붕으로 형상화한 역사. 수안보 시내까지 도보 20분 거리다.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충주 콜버스를 운행한다.

개통일 2024년 11월 30일

운행 열차 KTX-이음(94분 소요)

운행 횟수 KTX-이음(상·하행선 각 4회씩 총 8회)

2030년 완공을 앞둔 중부내륙선은 서울 수서에서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국토 종단 철도 노선이다. 그중 2단계 구간이 지난해 11월 개통했다. 기존 1단계 구간인 이천-충주 54킬로미터에 이어 충주-문경 39.2킬로미터 구간이 연결된 것. 판교에서 문경까지 1시간 34분 만에 도착한다. 이번 개통으로 수안보온천, 월악산국립공원 등 충북 지역 명소에 빠르게 갈 수 있게 됐다.

made in

대전을 만드는 사람과 공간, 일곱 가지 이야기

DAEJEON

no.04

영영
다. 우리 동네를 변화시킨 주인공



1

몇 해 전부터 대전 어궁동에선 동네 축제, 취향 모임, 해커톤('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로, 기획자나 개발자 등이 제한 시간 내에 주제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공모전) 등 재미있는 이벤트가 활발히 열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2017년 이태호 대표가 창업한 영영이 있다. 영영은 창업자와 지역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직주락(업무·주거·여가) 공간과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다. 2017년 대전도시공사가 진행한 100억 원 규모의 도시 재생 사업에 참여해 주민과 행정기관, 전문가를 연결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동네 거점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었다. 이후 영영은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코워킹 스페이스, 카페, 공유 공간 등을 조성했다. 어궁동의 대표 축제 '안녕, 축제'도 영영이 기획한 프로젝트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마을 상인들이 플리마켓과 장터를 여는 식이다. 동네가 활기를 띠자 재건축과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들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기도 했다. 고민 끝에 영영은 '비스트리트(B.Street) 동네 자산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대해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창업자들의 안정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함께 살자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주민이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것이 영영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대전시 유성구 농대로 2번길 15



3



- 1 프로젝트 영영의 본거지로 스페셜티 커피를 선보이는 세레데이커피.
- 2 영영을 만드는 사람들.
- 3 제로 웨이스트 숍, 은영상점.
- 4 은영상점에서 직접 만든 친환경 비누.
- 5 귀여운 조형물이 보는 재미를 더하는 어궁동의 한 건물.

4

interview

이태호 영영 대표

'어궁동'은 대전의 정식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어서 지역 주민은 물론 여행자에게도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궁동은 충남대학교와 카이스트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어은동'과 '궁동'을 합쳐 부르는 명칭입니다. 부흥과 쇠퇴의 역사가 함께하는 동네죠. 1973년 대전시 유성구 일대가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부근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어요. 인구가 급증하면서 고급 한정식집과 술집도 많이 생겼죠. 덕분에 이 지역은 한때 자동차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전국 곳곳의 특구 개발로 점차 활기를 잃어갔습니다. 급기야 카이스트 학생들이 어은동에서 궁동으로 이동할 때 거쳐 가는 동네로 쇠락했죠. 지금은 카페와 공동체 공간, 창업 공간이 하나둘 생겨나면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눈여겨볼 만한 공간은 어디인가요? '세레데이커피'는 코워킹 스페이스 별집 1층에 있는 커뮤니티 카페로, 커피에 진심인 곳입니다. 2017년부터 자체 로스팅을 시작했는데 원두 맛이 뛰어나죠. 로컬 창작자, 동네 서점, 지역 브랜드와 협업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전의 굿즈와 로컬 블랜딩 원두를 판매하고, 바리스타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마시는 세미나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숍 '은영상점'은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비롯해 직접 만든 꿀들이 굿즈를 판매합니다. 천연 비누, 면 생리대, 천연 고체 치약 등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고, '자가 수리 주간'이나 '의류 잡화 교환소' 같은 특별한 이벤트도 합니다.



5



2



1

- 1 헤레디움 전시 관람 후
쉬어 가기 좋은 헤레디움 카페의 메뉴.
- 2 헤레디움 내부의 원형 계단.
- 3 헤레디움 전시장 모습.
- 4 대전창작센터 내부.
- 5 정영복 미술공간 내부.
- 6 정영복 미술공간 외관.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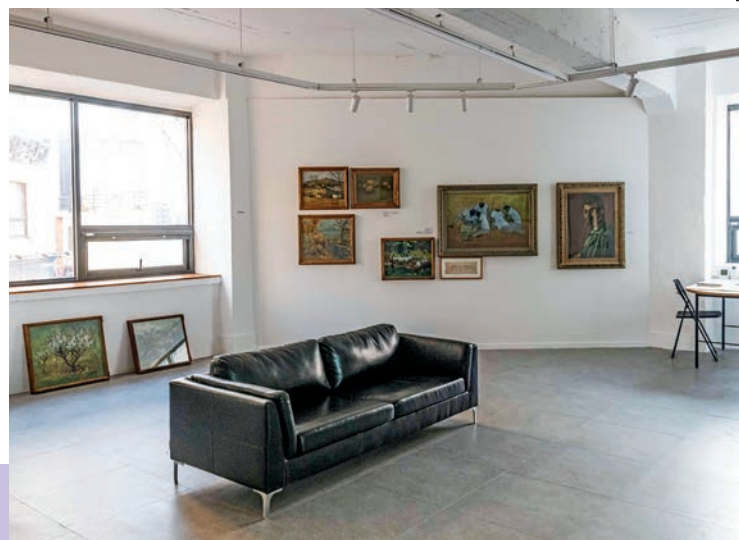
대전 예술의 재정립 대전창작센터, 헤레디움, 정영복 미술공간



4

대전은 흔히 과학·행정의 중심지로 알려졌지만 20여 개의 굵직한 미술관이 자리한 예술의 도시이기도 하다. 현대미술과 공연 예술, 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경험하기에 대전만큼 편리한 도시도 드물다. 1930년 일제강점기부터 1990년대까지 대전세무서로 사용하던 건물을 개조한 대전창작센터도 그중 하나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공간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전시가 열린다. 신진 예술가들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레지던시 역할도 한다. 대전창작센터에서는 오는 5월 6일까지 '역사의 틈새에 끼인 미시사의 공간'을 주제로 5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공백을 채우십시오>전이 열린다. 일제강점기 대표적 수탈 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 대전 지점을 개조한 헤레디움은 2022년에 문을 연 복합문화 공간이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라는 의미의 헤레디움에선 주로 클래식 음악 공연과 현대미술 전시가 열린다. 대전 출신 원로 작가 정영복의 이름을 딴 공간으로, 구현주의 그래피티 작업 '빈티지룩'이 남아 있다.

④ 대전창작센터 대전시 중구 대종로 470 헤레디움 대전시 동구 대전로 735
정영복 미술공간 대전시 중구 중앙로112번길 29



5



6



1



2



- 1 대전을 대표하는 구움
과자 전문점, 정동문화사.
- 2 10명이 넘는 직원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다.
- 3 오픈 전부터 입구에서
대기 중인 손님들.
- 4 정동문화사 한쪽 벽에는
구움 과자 틀이 전시돼 있다.
- 5 정동문화사의 대표 메뉴,
에그타르트.
- 6 테이블 공간에서 커피와
함께 갓 나온 구움 과자를
맛볼 수 있다.

4



3

5



6



성심당을 잇는 베이커리 정동문화사

대전에서 성심당을 이을 만한 베이커리 브랜드가 있을까? 대전역 바로 뒤편에서 시즌 1을 끝내고 최근 철공소 거리에 새롭게 오픈한 구움 과자점 정동문화사라면 가능하다. 파당시에 맞집으로 입소 문이 자자한 정동문화사는 오픈 직후부터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인기몰이 중이다. 오후 12시에 문을 여는데, 1시간 전부터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다. 밖에서 줄을 선 후 실내로 들어와도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구움 과자를 살 수 있고, 3시쯤 되면 메뉴 대부분이 동난다. 정동문화사는 철공소 거리의 오래된 공장, 배우 손석구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남선기공을 개조한 곳에 들어섰다. 오랜 시간 방치됐던 이곳은 한때 카페 겸 공연장으로 사용했는데, 높은 층고 덕분에 악기 소리와 목소리가 잘 어우러져 장기하, 유마치 등 여러 뮤지션이 공연을 했다. 정동문화사로 바뀐 지금도 공간 한가운데를 차지한 피아노가 과거의 분위기를 말해 준다. 테이크아웃 손님이 90퍼센트를 넘어 테이블 공간은 비교적 여유로운 편이다. 커피와 함께 갓 구운 과자를 즐기고 싶다면 자리를 잡고 앉는 것도 좋다. 인근 철공소 거리에는 뮤직 펍 '원동락공소'를 비롯해 젊은 창작자들의 작업실이 많다.

📍 대전시 동구 창조2길 11



1

내향인을 위한 외향적 공간

눅시

“대전에서 신나게 놀고 싶다면 눅시로 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다. 독서, 영화, 러닝, 축구를 하는 나날을 보내다 어느 날 갑자기 열광적인 댄스 파티를 여는 곳. 눅시는 20대를 군대에서 보낸 정호석 대표가 전역 후 차린 공간이다. 경기도 김포 출신인 그가 3년 전, 연고도 없는 대전에 내려와 눅시를 연 건 오래 고민하기보다 일단 실행하고 보는 그의 행동파 기질 덕분이었다. “군대에서 행사 기획을 주로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군대에서 하기에는 제약이 많았어요. 마침 은사님이 ‘대전에서 하면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바로 결심했죠. 당시 결혼 준비 중이어서 지금의 아내도 대전에서 같이 살게 됐어요. 고민의 시간은 짧을수록 좋잖아요.” 정 대표는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즉시 작당 모의를 하고 행동에 나선다. 덕분에 눅시에선 매주 즐거운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다. 여자 축구팀 ‘눅시 FC’, 토요일 아침 일찍 모여 한 주를 돌아보는 ‘이끼클럽’, 책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소셜 디깅클럽’, 술로 탈출을 위한 ‘눅시 데이’ 등 비범한 아이템이 넘쳐난다.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는 소셜 파티 ‘눅시 데이’는 대전 시민은 물론 여행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다. 눅시의 새로운 도전이 궁금하다면 인스타그램을 눈여겨보자.

📍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29

interview

정호석 눅시 대표

경기도 김포에서 나고 자랐잖아요. 외지인으로서 바라본 대전은 어떤 느낌인가요? 지난 3년간 대전에 살아보니 사람들이 대체로 수줍음이 많고 나서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저처럼 모임을 이끌고 활발히 활동하는 사람을 낯설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마음을 열었죠. 지금은 다음 아이템을 기다리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눅시를 대전을 대표하는 커뮤니티로 만드는 데 시간이 꽤 걸렸겠어요. 그동안 힘들진 않았나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대전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내향인의 도시예요.(웃음)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상을 벗어던지고 놀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3년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고 커뮤니티가 커졌어요. 저는 다만 대전 사람들의 흥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뿐이죠. ‘노잼 도시’에서 ‘유잼 도시’로 변모하며 대전이 새로운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어요. 이 도시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도시에서도 자연을 풍부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에요. 온천, 국가 습지보호지역, 하천 등 자연을 느끼며 숨 쉴 수 있는 곳이 도처에 자리하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다른 도시에 가면 답답함을 느낄 정도예요. 도시 곳곳에서 근대건축물을 새롭게 활용한 공간을 만날 수 있는 것도 대전의 매력입니다.



2



3

1 대전 지역 프로 축구팀을 비롯해 다양한 축구팀의 유니폼이 걸려 있는 눅시. 2 공간 곳곳에서 정호석 대표의 감각적이고 실험적인 도전이 느껴진다. 3 눅시에 가면 참신하고 재미있는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4 프로 축구팀 대전하나시즌 유니폼(오른쪽).



4



1



4



5

- 1 바이닐042 외관. 2 바이닐042 내부.
- 3 디제잉을 하고 있는 고진성 디렉터.
- 4 캠프프로젝트 내부의 한쪽 벽면.
- 5 캠프프로젝트에선 재즈를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이 열린다.
- 6 캠프프로젝트의 외관.



2



3



6

바
문
화
를
주
도
하
는
음
악
감
상
소

바
이
닐
0
4
2,
캠프프로젝트

대전에는 카페 겸 갤러리, 여기에 음악 감상소까지 겸하는 독특한 바 문화가 있다. 바이닐042와 캠프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복합 문화 공간 바이닐042는 고진성 디렉터가 도전하듯 문을 연 공간이다. “이곳은 레코드 숍이자 카페, 바, 힙합 공연장입니다. 일본 유학을 다녔고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던 중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퇴사하게 됐어요. 창업이 꿈이었지만 서울에서는 자본이 부족해 지방을 찾다가 ‘노잼 도시’라는 타이틀이 재미있어 대전으로 내려왔지요.” 대전의 지역 번화를 따서 상호명을 지은 바이닐042는 라이브 공연, 전시, 플리마켓, 월간지 제작 등 지역 내 문화 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뮤지션이 앨범을 발표하거나, 축구팀 대전하나시티즌과 협업체 시축을 하기도 한다. 대전을 찾는 여행자를 위해 인근 성심당에서 빵을 사 오는 손님에겐 포크와 접시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 다른 복합 문화 공간 캠프프로젝트(C.A.P PROJECT)는 커피와 문화,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다. 서울에서 실용음악을 전공한 박성수 대표와 피아노 전공자인 박 대표의 사촌 동생이 의기투합해 만든 공간으로, 커피나 술을 마시며 편안하게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 “재즈를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이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처음엔 생소했는데 커피를 마시던 손님이 재즈 공연이 시작되면 나가 버리기도 했죠. 하지만 2년여 동안 계속 유지해 오다 보니 많은 사람이 찾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어요.” 캠프프로젝트에선 지역 예술가의 전시나 그림으로 마음을 치료하는 심리 상담 클래스 같은 특별한 이벤트도 연다.

📍 바이닐042 대전시 중구 중앙로156번길 41-7
캠프프로젝트 대전시 대덕구 중리로53번길 42



1

오래된 동네를 바꾸는 가게들

소제동 관사촌 거리



3



2

대전역을 등지고 걸으면 마주하게 되는 작은 동네, 소제동. 이곳은 1920년대 일제 강점기에 대전역에서 근무하는 일본인 철도 관료들을 위해 조성한 철도 관사촌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철도 관사촌으로 이름을 날리던 곳이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쓰임을 잃고 버려진 마을처럼 황폐한 분위기였다.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소제동에 새로운 바람이 분 건 익선동을 서울의 핫플로 바꾼 익선다다트렌드랩 덕분이다. 익선다다트렌드랩은 관사촌의 집들을 사들여 감각적인 공간으로 개조했으며, 여기에 젊은 창작자와 상인이 모여들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소제동을 찾는 여행자가 1년에 고작 300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최근에는 연간 60만 명이 넘을 정도다. 소제동은 이제 대전에서 가장 핫한 동네가 된 것이다. 개성 있는 맛집과 카페가 줄줄이 들어섰다. 소제동에서 평생을 살아온 이가 운영하는 '대전버거', 눈과 입을 즐겁게 하는 카레집 '미도리카레', 날씨가 좋은 날엔 야장이 열려 골목에 활기를 더하는 '소제점방', 다양한 티 컬렉션을 선보이는 '소제예찬1927' 등 감각적인 밥집과 카페가 즐비하다. 그중 대나무가 우거진 '풍류소제'는 관사촌 거리의 터줏대감 같은 곳이다. 입구에서부터 하늘을 가득 덮은 대나무가 비밀의 숲에 들어선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과거 집주인 할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에게 볼거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마당에 손수 대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사랑이 일군 대나무 숲이 지금은 소제동에서 가장 유명한 감성 사진 명소가 되었다.

⑨ 대전버거 대전시 동구 동광장로 86 미도리카레 대전시 동구 수향길 75
소제점방 대전시 동구 대동천천안5길 45 소제예찬1927 대전시 동구 수향길 19
풍류소제 대전시 동구 수향길 31



4



5

1 중식당 림춘의 인기 메뉴, 멘보샤. 2 풍류소제의 싱그러운 대나무 숲. 3 관사촌 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인 대전버거. 4 아늑한 분위기의 풍류소제 내부. 5 미도리카레의 귀여운 캐릭터. 6 소제예찬1927 외관. 7 대전전통나라관에서 바라본 소제동.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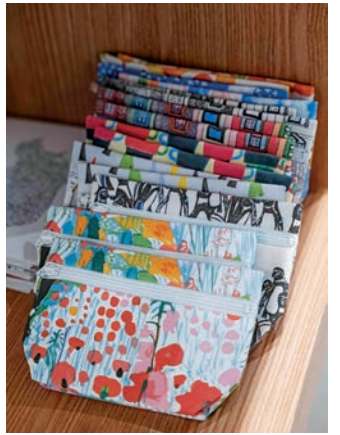
7



1



4



5

더 비블리오그래피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독립 서점

최근에 문을 연 더 비블리오그래피는 어궁동에서 가장 주목받는 공간 중 하나다. 비블리오그래피(bibliography)는 참고 문헌이라는 뜻. 보통 참고 문헌 하면 레퍼런스(reference)를 떠올리지만, 엄밀히 말해 두 단어의 의미는 살짝 다르다. 레퍼런스가 누군가의 작업, 일, 연구에 직접 인용한 구체적인 참고 문헌을 뜻한다면, 비블리오그래피는 직접 인용한 자료뿐 아니라 직접 인용하지 않았더라도 창작물의 바탕이 된 유·무형의 모든 텍스트를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의 참고 문헌을 가리킨다. 무심코 넘긴 일상의 작은 영감, 공중을 부유하는 먼지처럼 희미하지만 분명 커켜이 쌓였을 그 영감들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비블리오그래피다. 그 의미처럼 이곳은 누군가의 일상, 작업, 연구, 창업 등에 영감을 주는 독립 서점이다. 감각적으로 꾸민 내부에는 철학, 문학, 사회정치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서적이 가득하다. 책 외에 대전에서 활동하는 지역 창작자들의 수공예 작품도 전시, 판매한다. 더 비블리오그래피의 가장 큰 특징은 손님도 서점주가 되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작은 서점을 운영해 보고 싶은 꿈이 있다면, 혹은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이야기하고 싶다면 누구나 한 칸짜리 서점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책 외에 관련 엽서나 책갈피, 노트 등도 판매 가능하다.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203번길 17



2



3



6

1 내 집 거실처럼 편하게 책을 읽다 갈 수 있는 공간.
2 더 비블리오그래피의 이웃인 실크스크린 판화점, '소세계프레스'에서 제작한 가방. 3, 5 일본에서 제작한 친환경 소품도 판매한다.
4 충남대학교 도예과 재학생의 작품. 6 오래된 주택을 개조한 서점, 더 비블리오그래피.

no.04

DAEJEON



KTX MAGAZINE

윙윙

대전창작센터, 헤레디움, 정영복 미술공간

정동문화사

눅시

바이닐042, 캠프로젝트

소제동 관사촌 거리

더 비블리오그래피

지금 여기

종이 위의 무용수, 서예가 이정화 |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리미널>전 | 토종 곡물 탐구 공간, 충남 공주 곡물집
봄맞이 오일장에 찾은 인천 강화풍물시장 | 취향을 찾아 떠난 서울 서촌 | 전남 목포 원도심 탐방



종이 위의 무용수, 서예가 이정화

온 마음을 다해 먹을 갈고 종이 위에 열정을 펼친 이정화 서예가에게 또 하나의 예술을 배운다.
그의 삶 속 수많은 장면이 섬세하고 때론 강렬하게 화선지에 새겨진다.



젓가락 사용법을 배울 무렵, 한 아이의 손에 작은 붓이 쥐여진다. 아이는 바로 달려가 먹물이 가득한 벼루에 붓을 담그고 화선지 위로 거침없이 손을 뻗는다. 이 아이에게 서예 도구는 일종의 놀잇감이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인중 이정화 서예가. 일곱 살 때 송민 이주형 선생을 따라 처음 붓을 잡았고, 대학교 서예학과에 진학하면서 서예의 세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내디뎠다. 지난 15년 동안 그는 자신만의 필체를 획득했고,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선보였으며, 각종 상을 수상했다.

서예가로서 입지를 다진 후에는 서예를 알릴 기회라면 마다하지 않고 나섰다. 2020년 서예가의 일상을 담은 에세이 <일희일비하는 그대에게>를 출간했고, 이듬해에는 TV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서예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향수 브랜드 패키지 작업에 참여하고 한복 디자인과 협업하는 등 뷰티와 패션 영역까지 발을 넓히고 있다. 드라마 <동이>를 시작으로 <뿌리깊은 나무> <미스터 션샤인> <호텔 델루나> <옥씨부인전> 등 다수의 사극 작품에서 대필 작업도 이어 왔다. 한글 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에 바로 그를 떠올린 건 당연한 일이었다.

먹색으로 남기는 삶의 철학

서예를 생각했을 때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드는 글귀를 붓으로 따라 쓴다고 전부 서예는 아니다. “나만의 철학과 울곧은 뜻이 있어야 비로소 서예가 완성돼요. 별생각 없이 글씨를 썼다면 그건 단순한 먹칠에 불과하죠.” 이정화 서예가가 붓끝에 담고자 하는 건 세상의 아름다움이다. 선현들의 문장을 따라 쓰던 중 글은 평생 남는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강렬하게 사로잡았다. 이후 글을 통해 후대 사람들에게 어떤 세상을 보여 주고 싶은지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가 다양한 형태의 사랑을 전하기로 다짐한 건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결국은 따뜻한 말, 진심 어린 표정, 다정한 행동이 그를 일으켜 세웠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야 하니 일상을 세심히 관찰하는 건 기본이다. 기억하고 싶은 말이나 순간, 거기에서 파생되는 생각을 일기장에 기록해 필요한 순간에 주제에 맞는 소재를 꺼내 쓴다. 작품 하나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갈아야 한다. 작품 주제에 어울리는 종이와 붓을 꺼낸 후 붓에 먹물을 묻혀 글씨를 쓰는 건 그다음이다. 이 과정을 거칠 때마다 만나는 종이, 붓, 벼루, 먹은 그에게 도구 이상이다. 어린 시절부터 많은 시간을 함께한 것은 물론,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어려운 감정을 종이 위에 써 내려갈 때 늘 곁을 지켜 준 친구들이기 때문이다. 그중 붓은 몸이 닳고 닳을 때까지 희생하기에 망가지더라도 차마 버릴 수가 없다. 나중에 제대로 작별하겠다는 그의 눈빛에 애뜻함이 한가득 서려 있다.

자연을 닮은 예술가

이정화 서예가가 본격적으로 서예를 시작할 때 아버지가 자 스승인 송민 이주형 선생은 딱 한 가지를 강조했다. 자외구서(字外求書), 즉 글자 밖에서 글씨를 구하라는 뜻이다. 저마다 형태가 다른 나뭇가지와 일정하지 않은 물의 움직임 등 자연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선을 화선지 위에 옮기라고 조언했다.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길 바라는 마음이 었을 테다. 이정화 서예가는 가벼운 빗방울에도 슬픔이 쏟아지고,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 금세 용기를 얻는 등 주변 상황에 쉽게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다. 그야말로 일희일비하는 삶을 산다. 가끔은 그런 모습에 스스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날마다 다른 하늘이 이상하지 않듯 들쭉날쭉하는 감정도 자연스럽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온 마음을 자연에 맡기고 감정이 흔들리게 두는 삶. 그 감정을 잠시 머금었다가 종이에 옮기는 과정. 하나의 서예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그는 종이, 붓, 벼루, 먹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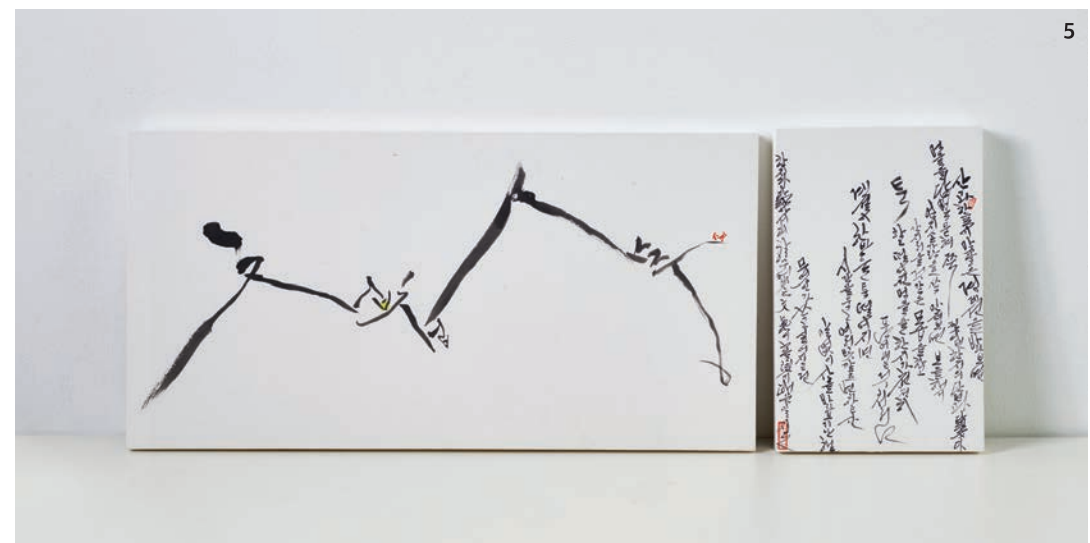
“털모. 송곳추. 스승자.
언제나 보드라운 털의 모습으로 포근히 감싸주지만,
때로는 송곳처럼 날카로운 가르침을 주기도 하는
나의 오래된 작은 선생님, 붓.”
-〈일희일비하는 그대에게〉중에서



1 할머니와 손주의 관계를 풀어 낸
'꽃은 꽃이었던 흙이 키워준다'.
2 이구아수 폭포에서 영감을 받은
'틈 사이에'. 3 문방사우를 비롯한
서예에 필요한 도구. 4 이정화
서예가가 현장에서 떠오른 생각을
써 내려가고 있다. 5 '산을 보면 왜
글이 쓰고 싶을까'는 바위산의
매력을 느낀 후 탄생했다.



4



5

서예 작품에는 작가의 호흡과 감정이 담겨 있어요. 생생한 기록물이
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이 점이 캘리그라피와 서예의 차이 같아요. 캘리그라피는 정
제된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지만, 서예는 미학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두 번째 개인전을 열며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전시장을
채울 작품을 고르는데 아버지께서 몇 개를 제외하는 거예요. 이유를
물었더니 서예라고 부를 수 없는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때 알았죠. 감정이나 호흡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면 점과 점이 연결
된 선일 뿐 획이 되지는 못하는구나.

서예의 매력은 지워지지 않는 점이라고 밝힌 적이 있죠.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라고요. 이 말에서 서예를
대하는 결의가 느껴져요.

지워지지 않는 게 매력이지만, 그래서 두렵기도 해요. 요즘 ‘메멘토 모
리(Memento mori)’라는 말에 꽃혀 있는데,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
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예요. 죽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
라는 거죠. 제가 써 놓은 글씨는 불태우지 않는 한 죽음 이후에도 남
을 테니 자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요. 왜 글을 쓰는지, 어떤 내용
을 담고 싶은지. 이렇게 초심이 계속 되살아나요.

불확실한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불변’이라는 단어는 희소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곁을 지켜 온 문방사우를 특별하게
여기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종이는 지워지지 않는 글씨를 새기는 거고, 붓은
사용할수록 자꾸 손상되고, 먹도 베틀과 마찰하면서 닳잖아요. 30
년 가까운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이 희생이 새삼 고맙다는 생각이 들
더라고요. 조선 시대 문인 이언진은 “집에 친구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
아도 나는 문방사우가 있어 외롭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 말에 공감
해요. 옛사람들에게 문방사우는 친구였고, 저에게도 모든 감정을 털
어놓는 소중한 존재예요.

주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다고요. 최근에는 어떤 풍경이 마음을 건
드렸는지 궁금해요.

지난 2월 스위스에서 라인 폭포를 구경했는데, 10년 전 아르헨티나에
서 이구아수 폭포를 봤을 때와 느낌이 확연히 달랐어요. 그때는 폭포
를 보러 가는 중에 시냇물에 시선을 두고 나의 잠재력은 언제 발휘될
까, 고민이 깊었거든요. 마침내 길 끝에서 폭포를 마주했을 때, 지금처
럼 성실하게 노력하면 목표에 다다를 거라는 믿음이 생겼죠. 이번에는
폭포를 먼저 봤는데 오히려 잔잔한 물결에 시선이 가더라고요. 지
금 평온한 상태를 원한다는 걸 자각했죠. 같은 대상이라도 상반된 감
정을 느낀다는 점이 흥미로워서 나중에 작품에 담아 보려고요.

대부분의 작품이 먹색인데 종종 다른 색도 보였어요. 작품에서 색을
쓰는 기준이 있나요?

먹색이 아닌 다른 색으로 글씨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오래 쳐다보
기가 어려워서요. 배경을 채우거나 작게 꽃을 그릴 때 다른 색을 사용
하는 편이죠. 포인트를 줄 때는 웬만하면 오방색을 골라요. ‘꽃은 꽃이
있던 흙이 키워준다’라는 작품은 지금의 삶이 누군가의 희생 덕분이
라는 생각으로 할머니와 손주의 관계를 풀어 낸 건데, 봄의 시작을 알
리는 개나리를 표현하려고 노란색을 썼어요. 또 아이를 개나리에 비
유하기도 하잖아요.

한글 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후 달라진 점이 있나요? 주변
반응이나 개인적인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을까요?

서예를 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는 축제 분위기예요. 드디어 때가 왔다
고 말하죠. 간혹 ‘서예’라는 용어가 어렵다고 ‘먹글씨’ ‘붓글씨’라고 표
현하기도 하는데 ‘서예’를 그대로 사용한 점도 마음에 들어요. 한글 서
예를 ‘먹과 붓을 통해 쓴 글씨’로 정의한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제가 강
의할 때 붓과 먹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거든요. 미술 시간에 사용하는
붓은 서양 붓인데 그 붓으로는 서예의 맛을 낼 수 없으니, 100명을 대
상으로 하는 수업에는 붓을 100개 가져가요. 앞으로도 이 자세를 꼭
유지해야겠다 생각했죠. 아리랑 유랑단으로 해외에서 한글 서예를
알린 것처럼 앞으로는 또 어떤 방법으로 전 세계에 소개할지 계속 고
민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한글 작품을 더 많이 선보이겠다고 다
짐하게 되었죠.

지난 2월 서울 인사동에서 열린 제1회 한국 서예아트 페어에 참여했
는데, 그 과정이 알고 싶어요.

전통 서예를 현대 예술로 표현하는 손동준 교수님이 의견을 내셨어
요. 아트 페어에 많이 참여하는 분인데 행사에서 서예가 눈에 잘 띄지
않아 서예가들끼리 새로운 아트 페어를 만들자고 제안한 거죠. 한글
서예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시기와 우연히 맞물렸어요. 저는
판소리하는 친구와 협업해 그 친구의 소리를 서예로 표현했어요. 앞
으로 2회, 3회도 열릴 예정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28년 동안 서예를 하며 시기별로 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 같아요.

10대 때 서예는 당연한 거였어요. 부모님이 서실을 운영한 데다 당시
서예 학원이 많이 생겼고 배우는 친구들도 많았으니까요. 20대 때는
놓을 수 없는 유일한 끈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이 각자 꿈을
찾아나아갈 때 저는 이걸 업으로 정했으니 절박한 심정이었죠. 30대
인 지금은 생의 끝까지 동행할 친구라고 생각해요. 아직 30대 중반이
라 단언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제 손에 붓
하나쯤은 들려 있지 않을까요.



세계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피에르 위그의 개인전 <리미널>에서 전면에 보이는 작품은 'U울벤트 - 안리' (2018-2025), 수조에 담긴 바위는 '캄보리아기 대폭발 16' (2018). © 리움미술관, 레스(UES)

인공지능(AI)이 생활의 일부가 되고 우주 탐사의 새 시대가 열린 지금, 서울 리움미술관에서는 한 편의 SF 영화 같은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다. 피에르 위그의 아시아 첫 개인전 <리미널(Liminal)>이다.



인리의 상상 이미지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 '마음의 눈(S)'(2022).

“왜 우리는 여기 있을까?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우리는 모두 혼자인가? 다음은 무엇일까?” 이 철학적인 질문들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 홈페이지에 실린 ‘우리가 우주에 가는 이유’와 연결된다. 반세기가 넘는 동안 과학자들은 인류의 근원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우주를 탐사했다. 반면 어떤 예술가들은 아무 데도 가지 않고 우리가 ‘지금, 여기’를 여행할 수 있는 보다 심오하고 안전한 방법을 제시한다. 피에르 위그는 그러한 예술가 중 하나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재구성해 새로운 체계를 시험하는 그의 작품에서 사공간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종의 구분 또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7월 6일까지 리움미술관(이하 리움)에서는 프랑스 현대미술가 피에르 위그의 아시아 첫 개인전 <리미널>이 열린다. 지난해 베니스비엔날레 기간 동안 화제가

된 바로 그 전시다. SF 영화나 사변적 과학소설 같은 이번 전시는 피노 컬렉션의 푼타 델라 도가나 미술관과 리움이 공동으로 제작 지원한 신작들을 포함해 그의 대표작들을 옴니버스식으로 엮어 소개한다. 전시 관람객이라면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당신은 수수께끼를 좋아하는가. 둘째, 암흑 공포증 같은 문제는 없는가. 셋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 모두 ‘그렇다’라고 답한다면 자격은 충분하다. 이 세계가 창조되기 이전, 혹은 모든 것이 파괴되고 난 후일지도 모를 철학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보자.

제1막 세계의 끝, 혹은 새로운 시작

전시 제목이자 작품 이름이기도 한 ‘리미널’의 의미에 대해 작가는 “생각지도 못한 무언가가 출현할 수 있는



‘주드람 4’(2011). 수족관 속 브랑쿠시의 유명한 조각 작품(복제품) 안에 소리케기가 살고 있다.



철테아터카미타시막에서 무덤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해골을 둘러싸고 기계들이 의식을 행하는 ‘카미타’(2021-현재).



심정서를병원과 헬업으로 제작한 '임세포 변환기' (2016).

과도기적 상태”라 말한다. 인간과 자연, 기계, 다양한 종이 공존하는 변화무쌍한 환경, 독립적이며 자율적인 생명체들이 상호작용하며 진화해 가는 과정,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1층 블랙박스 전시관의 감감한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건 가운데가 움푹 파인 현무암 조각 ‘에스텔라리움’이다. 태초의 빛이 탄생하기 전, 하늘과 땅이 아직 구분되지 않고 시간 개념도 없는 어느 시공간에 첫발을 디딘 여행자처럼 관람객은 어리둥절한 상태로 이 작품 앞을 지나게 된다. 달 표면에 인류가 남긴 첫 발자국 같기도 한 이 기묘한 표지석에는 “출산 직전 임신부의 배가 남긴 흔적”이라는 짧은 설명이 붙어 있다. 곧이어 나타나는 건 거대한 스크린. 공허로 둘러싸인 메마른 대지 위, 벌거벗은 여성에겐 얼굴이 없다. 화면 속 여성은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주위를 살피고 손을 보는 듯한 자세를 취하기도 한다. 실시간 시뮬레이션 작품 ‘리미널’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관람객이 접하는 이 영상의 이미지가 매번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이다. 미술관 측에 따르면 ‘이 형상의 움직임과 시선은 센서가 포착한 환경 조건과 인공 신경조직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전시 공간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관람객 수, 온도 등 외부 데이터를 학습하고 기억을 쌓아 가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작품은 스스로 변모한다. ‘리미널’ 뿐이 아니다. AI와 유기체, 살아 있는 것들로 이뤄진 이 전시에서 고정불변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직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처럼 각 작품은 영원히 완성될 수 없는 진행형의 상태로 관람객과 만난다. 예를 들어 ‘주드람 4’에서는 수족관 바닥에 가라앉은 가면을 소라 껍데기 삼아 살아가는 소라게와 화살개를 볼 수 있다. 수지 소재의 이 가면은 추상 조각을 개척한 브랑쿠시의 1910년 작 ‘잠든 뮤즈’를 복제한 것이다. 20세기

전시 관람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당신은 수수께끼를 좋아하는가. 둘째, 암흑 공포증 같은 문제는 없는가.
셋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 모두 ‘그렇다’라고 답한다면 자격은 충분하다.

모더니즘 예술가가 인체 대신 사물을 조각화했다면 ‘주드람 4’는 이중 교합의 살아 있는 조각이다. 컴퓨터가 생성한 인간 형상은 얼굴 부위가 텅 비어 있지만, 누락된 이 얼굴들은 뜻밖의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출몰한다. 일본 후쿠시마 주변의 핵 배제 구역을 배경으로 한 영상 작품 ‘휴면 마스크’는 가면을 쓴 원숭이의 움직임을 쫓는다. 폐허가 된 마을의 식당은 원래 원숭이들이 서빙하는 것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가면과 가발을 쓰고 사람처럼 옷을 입은 해괴한 모습으로, 원숭이는 나무가 그려진 벽지와 커튼 앞을 오가며 습관적인 동작과 본능적인 행위를 반복한다. 이 가짜 숲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은 원숭이와 바퀴벌레, 버려진 음식을 뒤덮은 구더기, 그리고 창을 두드리는 빗방울과 바람뿐이다.

제2막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리미널〉은 오페라처럼 1막과 2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가는 이를 따로 구분 지어 설명하지 않지만, 관람 동선이 있는 미술 전시의 특성상 관람객은 자연스럽게 막과 막 사이를 오가며 그 차이를 느끼게 된다. 1막이 어둠 속에서 전개된다면 2막은 창백한 빛의 세계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관람객은 마치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생의 자국, 혹은 문명의 흔적으로 시작되는 1막이 인간이면서도 인간이지 않은 형상과 이중의 생명체들의 움직임을 통해 우리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면, 지하의 그라운드갤러리에서 이어지는 2막의 이야기는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을 예고한다.

공간을 가로지르는 반투명한 대형 스크린에서는 정확한 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존재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진다. 언뜻 사람 같기도 하고 원숭이, 새, 혹은 구름 사이에 등장한 천사 같기도 한 이 형상들은 ‘실재



하지 않는 인물인 안리(Annlee)를 상상하는 누군가의 뇌 활동을 기록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의해 생성된다. 이러한 'U움벨트-안리'의 이미지는 지속적인 학습과 인식 과정을 거치며, 이미지의 시퀀스들은 주변 조건의 변화에 의해 계속수정된다. 가상의 인물 안리는 지난해 리움에서 개인전을 연 필립 파레노의 작품에도 등장했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1999년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로부터 이차원 배경 캐릭터의 저작권을 구입해 이것에 안리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른 작가들과 함께 다채로운 형식으로 안리를 모델로 한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아무도 모르던 단역 배우가 일약 스타가 된 셈이랄까? 두 작가는 안리를 재현의 세계에서 해방시킨다는 명목 아래 안리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만화 같은 이미지와 은유로 예쁘게 포장되어 있지만 피에르 위그가 펼친 일련의 작업들은 냉혹하고 비정한 현실 사회의 이면을 놓치지 않는다.

'U움벨트-안리' 뒷면에는 '암세포 변환기'가 놓여 있다. 인큐베이터안에는 실제 암세포가 있고, 이들 세포는 환경에 따라 분열한다. 이러한 변화는 현미경 이미지 데이터에 기록되어 다시 'U움벨트-안리' 화면에서 재생산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전시장에 비치된 설명문에 따른 정보일 뿐이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시장 기둥 높은 곳에 주위의 변화를 감지한다는 금속 공들이 매달려 있긴 하지만, 센서들의 정확한 배치와 AI가 이를 해석해 통합 운

영하는 과정, 그기술의 정확한 결과는 여전히 모호하다. 이 모든 것은 허구일까?

이 하드보일드한 원더랜드의 마지막 무대는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이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사막으로 알려진 이곳은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밖의 외계 행성을 연구하는 시험장이기도 하다. 자기 생성 영상 작품 '카마타'는 이곳에서 우연히 발견된 해골 모습을 담는다. 영상 속에서 로봇들은 건조한 모래더미 위에 놓인 해골을 중심으로 수수께끼 같은 의식을 수행한다. 이 영상은 시작도 끝도 없다. 관람객이 영상을 보는 동안에도 AI가 실시간으로 편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상 속 장소는 분명 현실 세계이지만 쓸쓸하고 황량한 분위기를 풍겨 문명이 극도로 발전하고 난 이후의 미래 세계를 비추는 듯하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과정에서 진화하고 퇴화하고 소멸했다가 다시 태어나는 술한 존재들. 피에르 위그는 근미래로 향하는 사변적 고찰과 예술적 상상력을 통해 우연적이고 불확실한 이 세계에서 불안전하지만 독특하고 신비로운 순간들을 발굴하여 수면 위로 끌어 올린다. 피에르 위그가 이끄는 이 특별한 세계를 여행해 보라.



피에르 위그 Pierre Huyghe

1962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피에르 위그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다. 현재는 칠레 산티아고에 거주 중이며, 그의 작품은 파리 퐁피두센터,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런던 테이트 모던 등에 소장되어 있다. 다양한 예술 형태를 시험하는 그의 작품은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학습하며 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는 퍼포먼스를 포함하고 있다. 오전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부터 전시장에서는 황금색 가면을 쓰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음성과 몸짓을 보이는 이들은 '이디엄(Idiom)'이라는 작품으로, 이 역시 전시의 일부이니 놀라지 말 것. 이번 전시를 후원한 럭셔리 패션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는 작가와 협업해 '이디엄'을 위한 의상을 제작했다.



빛과 안개, 소리, 그리고 향기가 결합된 작업 '오프 스프링'(2018).



금색 LED 마스크와 인공지능에 의해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목소리 '이디엄'(2024-현재).

2025 문경 찻사발 축제

문경 찻사발, 새롭게 아름답게

2025.05.03.(토) ~ 05.11.(일) / 9일간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

개막식 2025.05.03. 15:00
문경새재야외공연장

2025 마한역사문화제
영암군 시종면 마한문화공원 2025.4.18. FRI ~ 19. SAT
전남 영암군 시종면 옥0리 526

주최 : 영암군

주관 : 마한역사문화관광재단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협력 : 마한문화재단





안동의 봄, 신나게 놀아 볼까? 2025 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

대한민국 민속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기회.
봄기운 완연한 5월엔 경북 안동으로 향하자.

경북 안동에서 5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2025 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가 열린다. 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의 전신은 50년 역사를 간직한 안동민속축제. 매년 10월에 열리던 안동민속축제를 5월로 옮기고, 이름도 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로 바꿨다. 기존 민속 행사의 틀을 벗고 안동의 대표적인 봄 축제로 거듭난 것. 올해는 '안동의 봄, 대한민국 민속을 한자리에'를 주제로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안동을 비롯 전국 민속 공연단의 퍼레이드가 펼쳐지고, 차전놀이와 뽕다리밟기를 주제로 한 스토리 테마 공연도 열린다. 전국 어린이 및 학생 씨름 대회와 전국 동호인 씨름 대회가 축제의 열기를 더하고, 민속 장터에서는 향토 음식과 사찰 음식, 추억의 간식이 방문객의 입맛을 돋운다. 안동차전놀이(국가무형유산)와 안동뽕다리밟기(경상북도 무형유산), '도전! 나도 장군, 도전! 너도 공주' 등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대한민국 민속의 날 제정 축구를 위한 캠페인과 함께 전국 민속 단체 참여자들의 교류식도 열린다.

안동 민속 양대 대동놀이인 차전놀이와 뽕다리밟기는 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의 핵심 모티브가 됐다. 이 두 놀이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 축제의 목표이기도 하다. 차전놀이는 후삼국 시대 고창(안동의 옛 지명) 전투에서 고려 왕건이 안동 삼태사의 도움으로 후백제 견훤에게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된 남성 대동놀이. 뽕다리밟기는 고려 공민왕과 그의 부인 노국공주가 안동으로 몽진을 떠나던 당시 마을 아낙네들이 허리를 굽혀 등을 밟고 강을 건너게 했고 그 후 여성 대동놀이로 전승됐다.

지구온난화로 봄이 점점 짧아지는 요즘, 5월은 하루하루가 아까울 만큼 소중하다. 연중 가장 화창한 이 계절을 추억의 한 페이지로 간직하고 싶다면, 2025 차전장군 노국공주축제가 열리는 안동으로 향하자.



기간 5월 1일~6일
장소 중앙선1942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일원
문의 054-840-3433





토종 곡물 탐구 공간, 공주 곡물집

곡물집은 토종 곡물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쇼룸이자 그로서리 카페다.
지역 농부들과 협력해 토종 곡물을 보존하고, 토종 곡물의 다양성을 활용해 제품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씨앗의 멸종을 막고 지역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곡물집은 토종 곡물이란 공통분모 아래 다양한 미식을 탐구하는 실험실 같다. 호기심 가득한 실험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바로 고객. 이들의 피드백은 다시 곡물집의 데이터베이스로 쌓인다.

다큐멘터리 영화 <노티나무 아래>에는 토종 씨앗과 함께 생존하는 농부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잔잔하게 사계절이 흐르는 가운데 마트에선 보기 힘든 곡식과 채소가 자란다. 수확량은 볼품없고 경제성도 낮다. 하지만 농부들은 토종 씨앗이 자연 상태에서 자라고 순환하도록 송고한 마음으로 파종하고 채종하는 지난한 과정을 반복한다. 고집스럽게 우리 종자의 종별 다양성을 지켜 온 사람들. 곡물집은 그들과 동행한다. 네이버 라인프렌즈의 브랜드 MD였던 김현정 대표는 농부처럼 삶을 주체적으로 일구기 위해 가족과 함께 충남 공주로 내려왔다. 그리고 2020년 8월, 제민천 인근 한옥에 터를 잡고 ‘곡물집’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다. ‘쌈지농부’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농가와 농부를 브랜딩하던 남편 천재박 대표와 함께였다. 자연이 키운 농작물의 가치와 농부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이들이 주목한 것은 토종 곡물. 특정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응해 오랫동안 살아남은 곡물이다. 곡물집은 토종 곡물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쇼룸이자 그로서리 카페다. 지역 농부들에게 공급받은 작물을 활용해 다양한 음료와 디저트를 선보인다. 그뿐 아니라 산지의 매력을 탐구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해 지속가능한 미식 경험을 디자인하는 등 도시와 농촌을 잇는 일을 하고 있다.

토종 곡물을 전시한 곳간 같은 카페

“곡물집의 ‘집’은 한자로 모을 집(集) 자를 써요. 천재박 대표는 평소 ‘치즈집’ ‘마늘집’ ‘간장집’처럼 하나의 카테고리 내에서 습관처럼 다양한 품종을 수집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첫 번째 프로젝트가 토종 곡물을 모으

는 ‘곡물집이 된 거죠.”

쇼룸은 2020년부터 곡물집이 수집하고 탐구한 토종 곡물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곡물 형태를 볼 수 있도록 쇼케이스에 담아 전시하고 이름표를 붙였다. 선비잡이콩, 대추밤콩, 배틀콩, 아주까리밤콩, 비목수수, 재팔, 버들벼, 흑갱, 돼지찰벼 등 이름이 모두 낯설다. 쇼케이스 옆에는 해당 곡물의 역사 및 곡물집의 탐구 활동을 적은 카드와 노트를 비치했다. 맛과 향, 식감과 목 넘김은 물론 어울리는 음식까지 적었는데, 효능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토종 씨앗 보존과 지속가능한 미식에 방점을 찍고 곡물 자체의 가치를 알리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향을 맡고 맛을 보면서 직접 토종 곡물을 경험한 다음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면, 음료로 제조해 드려요. 토종 곡물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처음에는 토종 곡물을 접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렵지만, 한번 오셨던 분들은 알아서 주문을 해요. 인기 있는 조합은 제품으로 출시하기도 하고요.”

곡물집은 토종 곡물이란 공통분모 아래 다양한 미식을 탐구하는 실험실 같다. ‘같은 콩(사실 커피콩은 씨앗이다)인데 커피콩과 토종 콩을 볶아서 섞으면 어떤 맛이 날까?’ ‘싱글 오리진 커피처럼 하나의 곡물 가루로 음료를 만들면 곡물 특유의 맛이 도드라질까?’ 호기심 가득한 실험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바로 고객. 이들의 피드백은 다시 곡물집의 데이터베이스로 쌓인다. 전문가 소견이 아니기에 김현정 대표는 이러한 활동에 ‘탐구’라는 이름을 붙였다. 가볍고 경쾌하게 공간을 이끌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역 장인이 로스팅한 원두에 곡물 가루를 블렌딩한 커피 티백과 선비잡



1



2



3



4

1 토종 쌀 ‘흑갱’과 토종 밀 ‘얇은키밀’로 만든 곡물집 과자. 공주 밤과 검은 참깨, 유자를 올렸다. 2 토종 곡물 탐구 활동을 정리한 노트. 3 고객이 다양한 토종 곡물을 경험하고 남긴 피드백은 곡물집의 데이터베이스가 된다. 4 식경험 디자인 질문을 통해 토종 곡물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식생활을 가꾸는 곡물 경험 워크숍.



“곡물집은 낫선 토종 곡물을 경험하고, 친숙하게 만들어 식생활화 하기 위한 활동을 해요. 토종 곡물이 일상이 되면 소비가 늘고, 농부들은 생산량을 늘리며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죠.”



1 감성적인 한옥에 자리 잡은 곡물집.
2 콩·밀·팥·수수 네 가지 토종 곡물과 커피 원두 4종을 블렌딩한 커피백, 그리고 토종 곡물 가루로 만든 미수.
3 커피백은 차처럼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신다. 4 직접 곡물을 선택해 음료를 주문할 수 있다. 5 곡물집과 지역 농부들의 협업 제품도 판매한다.

이콩, 대추밤콩, 베틀콩, 아주까리밤콩으로 만든 곡물 차 '미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세상에 나왔다.

곡물집이 지역과 공생하는 방식

“모두가 알 것 같지만 사실 토종 곡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토종 작물의 매력을 익히 알았고, 좋은 생산자는 물론 농업 기반 기관과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토종 곡물을 모으는 것은 다른 문제였죠.”

토종 곡물은 누가 얼마나 생산하는지 알 수 없고, 개인이 소량 생산해 소비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정량화가 어렵다.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로 낙제점이다. 그러나 토종 작물을 기르는 농부들 역시 곡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대물림하기 위해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다. 올해 농사를 쉬어 씨앗을 남기지 못하면 내년에는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곡물이 된다는 것을 알기에 힘들어도 매년 조금씩 농사를 짓는 것이다. 김현정 대표는 그와 같은 사명감을 지닌 전국 씨앗도서관협의회에 도움을 구했다. 이곳은 전국을

다니면서 토종 씨앗을 모으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작물 농사를 이어 가는지 조사하며 토종 씨앗을 보존하는 민간단체다.

“곡물집은 낫선 토종 곡물을 경험하고 친숙하게 만들어 식생활화 하기 위한 활동을 해요. 토종 곡물이 일상이 되면 소비가 늘고, 농부들은 생산량이 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죠. 곡물집을 운영하며 지역 생산자들과 네트워크가 생겼고, 그 결과 생산량이 늘어난 경우가 많아요. 자식 같은 농산물이 어디서 어떻게 소비되는지 모르는 것보다 곡물집을 통해 소비되길 바란다며 문의하는 젊은 농부도 많아졌어요.”

반대 경우도 있다. 김현정 대표는 우연히 공주에서 유기농 밤 농사를 짓는 생산자와 만나 대화를 하다 밤을 이용한 디저트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밤은 1~2주마다 불규칙하게 소량 입고된다. 시작할 때부터 각오한 일이다. 말이 유기농 밤 농사지만 산을 통째로 파는 일이기에 안정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니까. 밤을 올리는 와플은 앳키밀을 사용한다. 소량의 밀을 가루로 만들어 줄 제분소를 찾지 못한 농부는 밀가루를 대량만들었는데, 판로가 막히자 곡물집을 찾아왔다. 와플에 밤



1 사라져 가는 토종 씨앗을 디자이너 50명의 시선으로 해석한 포스터. 전시 <Long Live the Seed 20 Grains 50 Posters>에서 공개했다. 2 곡물집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3 2024년 8월에 진행된 ACG 아카데미 프로그램. 호스트는 아워플래닛이었다.

을 올린 곡물집의 인기 메뉴는 그렇게 탄생했다. “곡물집은 토종 씨앗을 대물림하는 농부들의 노력으로 운영되는 공간이에요. 가끔 그분들이 오셔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던 일을 하느라 힘들었는데, 곡물의 가치를 알아주고 잘 포장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세요.”

지속 가능한 미식을 위한 다양한 시도
“곡물집은 지속 가능한 미식이란 명제 아래 주로 토종 곡물을 다루지만, 궁극적으로 미식 콘텐츠를 만드는 조직이에요. 토종 곡물을 수집하는 일로 시작해 지역 생산자들의 식품 컨설팅을 하고, 지역 생산물을 브랜드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취향에 맞는 토종 곡물을 찾는 재미도 중요하지만, 보다 입체적인 경험은 일상을 변화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해 ‘곡물 경험 워크숍’을 열고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직접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 토종 경작단도 출범했구요.”

다양한 토종 곡물을 직접 감각하고, 좋아하는 것을 골라 자신을 위한 밥을 지은 다음 전문 셰프가 계절 식재료로 차린 밥상을 받는 곡물 경험 워크숍은 곡물집의 인기 프로그램이다. 술에 밥을 짓는 동안 불 조절을 하

며 집중하는 시간을 ‘밥멍’이라 하는데, 반응이 좋아 키트로 제작, 판매하고 있다. 키트에는 워크숍 순서와 같은 사용설명서가 들었다. 김연수 작가는 셰프와 함께 소설 속 요리를 만들어 나눠 먹으며 북토크를 진행했고, 사라져 가는 토종 씨앗을 50명의 디자이너가 자신만의 시선으로 해석한 포스터를 제작해 전시를 열기도 했다.

“곡물집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대부분 토종 곡물이 좋아 타 지역에서 공주로 이주했어요. 일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일을 익힌 뒤 독립해서 토종 곡물과 지역 생산물로 상을 차리는 밥집을 운영하는 친구도 있지요. 토종 경작단은 지역 어르신들로 구성되는데, 자투리 땅에서 토종 작물을 길러 공급해 주세요. 곡물집 워크숍에 참석하는 수강생 대부분이 타 지역에서 오는 청년들이고요. 곡물집을 통해 농부와 소비자가, 청년과 어르신이, 도시와 시골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북유럽의 미식 수도 덴마크 코펜하겐은 2000년대 초반부터 덴마크 요리의 정체성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그 선두에 셰프들이 있었다. 그들이 발표한 ‘뉴 노르딕 키친 선언서’에는 현지 식재료를 사용하고, 자연과 다시 연결되는 생산과 소비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여기서 매드(MAD) 아카데미가 파생됐다. 현대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미식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들의 특강으로 이루어져 수업료가 높는데, 국가에서 장학금을 제공하기도 한다. 김현정 대표는 덴마크 매드 아카데미를 모티브로 지속 가능한 미식을 탐구하는 ‘ACG(A Collective Gastronomy)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농업 분야에서는 교육 콘텐츠가 비즈니스가 되고, 비즈니스 콘텐츠가 다시 교육이 되는 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ACG 아카데미를 공주시와 협력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미식 교육 기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곡물집은 어컬렉티브(A Collective)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브랜드예요. 쇼룸으로 시작해 지속가능한 미식 전반의 제조업, 콘텐츠업, 교육 서비스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함을 잃지 않고 유쾌한 탐구를 지속할 우리의 활동을 지켜봐 주세요.”





장날 꽃구경, 강화풍물시장

꽃은 산천에만 피어 있지 않다. 인천 강화군의 얼굴, 강화풍물시장에 가면 알록달록한 화문석과 보랏빛 순무가 자아내는 꽃 같은 풍경을 맞닥뜨린다.



강화풍물시장

이 고장의 멋과 맛이 집약된 곳, 강화풍물시장이다. 오일장이 서지 않는 날에도 상설 시장이 열려 언제나 성업 중이다. 3월 마지막 주부터 늦가을까지는 주말 야시장이 개장해 즐거움을 더한다.

주소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중앙로 17-9
문의 032-934-1318, 카카오톡 채널 '강화풍물시장'
장날 2일, 7일



섬이라는 지형학적 특성은 언제나 여행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잘생긴 산과 바다, 눈부신 풍광과 유구한 문화를 품어 온 강화엔 섬 고유의 환경이 길러 낸 맛 좋은 먹거리도 여럿이다. 강화 인삼, 강화 사자발약쑥, 강화 속노랑고구마, 강화 섬쌀, 강화 섬포도... 강화라는 이름에 따라붙는 특산물만 해도 다섯손가락으로 못다 헤아릴 정도다. 섬 곳곳에서 생산하고 수확한 농수산물 한데 그리모는 강화풍물시장은 여행의 시작이자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테다.

언제나 미더운 맛, 자매김치

시장 건물에 들어서자 '자매김치'라고 쓴 형형한 간판 아래 손님들이 북적북적하니 모여 있다. 강화의 또 다른 특산물인 순무로 담근 순무 김치가 이곳의 대표 메뉴다. 20여 년 전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자영업에 뛰어들 박경애 대표는 동생과 함께 무작정 장터로 나가 어깨너머로 순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 생계를 잇기 시작했다. '자매'라는 정겹고 미더운 이름은 바로 그 시절에 탄생했다. 9년 전부터는 동생이 아닌 아들 부부와 함께 운영하고 있어 '가족김치'가 된 지 오래지만, 이미 자매의 맛과 정성에 길들여진 무수한 단골손님을 배려해 상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순무 김치는 무를 미리 절이지 않아요. 납작하게 썬 순무와 양념을 확확 버무리고, 이틀에서 사흘 정도 익혀 먹지요." 박 대표가 대야에 가득한 순무를 휘저으며 말을 잇는다. "그래야 달콤 씹싸래하고 톡 쏘는 맛이 잘 살아나거든요." 양념이 적당히 밴 청보랏빛 순무

한 조각을 베어 물자 인삼이나 겨자처럼 알싸한 풍미가 입안 가득 퍼진다. 기분 좋은 탄산감도 혀끝을 자극한다. "간이 딱 맞죠? 집에서 담그면 이 맛이 안 난다고 들 하대요. 순무며 고춧가루며 제일 좋은 것만 쓰고, 가게에서 신선하게 버무리 내는 게 비법이라면 비법이지요." 이렇게 말하지만, 그의 여문 손끝이야말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비법일 것이다.

손끝에서 핀 꽃, 고려화문석

서해 바다의 잔물결처럼 일렁이는 왕골의 짜임새를 들여다본다. 화문석. '꽃문양 자리'를 뜻하는 이름이 제 모습만큼이나 곱디곱다. 강화는 고려와 조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화문석의 주요 생산지로 손꼽히는 땅이다. 차진 흙과 소금기 어린 해풍이 질 좋은 왕골을 길러 낸 덕이다. 그리하여 화문석의 제조 공정은 상당부분 강화의 자연에 의존한다. 먼저 봄에 파종해 여름에 거둬들인 왕골 줄기를 세 갈래로 갈라 바람과 햇볕에 건조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푸른빛이 가시고 미색으로 없어진다. 이렇게 잘 말린 줄기를 고드랫돌로 엮어 돛자리 형태로 짠다.

알싸한 풀 냄새가 감도는 강화풍물시장 2층. 강화 화문석의 유구한 역사와 가치를 알리는 공예품 상점 '고려화문석'이 자리해 있다. 1980년 10월 영업을 시작한 이곳은 송해면 당산리 화문석마을에서 생산한 최상품을 선별해 판매하는 상점으로, 강화군 왕골 공예품 경진 대회 심사를 맡고 있는 이경옥 대표가 가업을 이어 오고 있다. "남편의 할머니가 화문석을 만드셨고,



1 빨간 양념이 곱게 밴 순무 김치가 가지런히 담겨 있다. 2 장날에 빠질 수 없는 풍경. 옛장수와 흥겨운 노랫가락. 3 자매김치의 박경애 대표가 갓 버무린 순무 김치를 보여 준다. 4 시장 건물 1층에는 김치와 젓갈, 채소, 건어물 등을 파는 가게가 들어서 있고 2층에는 화문석과 전통 공예품점, 식당가가 자리한다. 5 자리를 꺼내 촘촘한 짜임을 살피는 이경옥 고려화문석 대표.





1



3



2

1, 2 밴댕이가득한집은 낚그릇 가득 밴댕이구이, 무침, 회를 담아내는 게 특징이다. 차림새가 먹음직스럽다.
3, 4, 5 장날이면 활기가 감도는 강화풍물시장 풍경. 상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걸려 있다.



4



5

저 또한 자리 찌는 법을 익혔지요. 보기보다 고된 일입니다. 화문석마을의 어르신 두 분이 자리 한 장 찌는데 꼬박 보름이 걸릴 정도니까요.”
춤춤하게 엮힌 화문석 표면엔 원앙, 봉황, 기와, 완자 등 전통 문양은 물론 강강술래와 꽃가마 행렬 같은 옛 풍습을 표현한 알록달록한 그림이 들어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색색의 문양도 좋지만 제 마음을 끄는 건 민무늬예요. 고른 짜임새로만 승부해야 하니 소재 선별이나 공정 등이 훨씬 까다롭고, 자연히 완성도가 높아지거든요. 곁에 두고 쓰면서 길들이는 동안 색깔도 한층 깊어져요. 세월에 멋이 더해지는 셈이죠.” 왜 아니겠는가. 진정한 멋이란 영영 변치 않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는 데 있다. 우리가 옛것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다.

섬이 차린 식탁, 밴댕이가득한집

경남 거제 출신인 정복남 대표는 어머니가 만들어 준 멸치무침 맛을 잊을 수 없었다. 대체할 음식을 궁리하던 끝에 시도한 것이 바로 밴댕이무침이다. 멸치 대신 밴댕이, 막걸리 식초 양념 대신 과일 청을 사용해 풍미를 살렸는데,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 “30여 년 전, 강화풍물시장 전신인 강화장 노점에서 밴댕이

무침을 팔았어요. 갓은 채소와 직접 찐 참기름을 듬뿍 넣어 맛을 냈죠.” 담백하고 고소한 밴댕이 살과 새콤달콤한 양념이 조화로운 이 음식은 머지않아 강화장을 대표하는 명물로 자리매김한다.

밴댕이무침이 한창 인기를 누리던 2004년, 강화장을 덮친 큰 화재로 점포를 잃은 정 대표는 2007년 개장한 상설 시장 건물 2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여기서 ‘밴댕이가득한집’이란 간판을 걸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시장에 밴댕이를 파는 식당이 여러 곳이라 차별화가 필요했어요. 그게 낚그릇을 사용한 계기예요.” 악명 높은 ‘소갈딱지’ 탓에 잡아 올리자마자 금세 죽어 버리는 밴댕이. 이를 맛있게 요리하려면 선도 유지가 관건이라, 살균성이 좋고 담음새가 아름다운 낚그릇을 쓰기 시작한 것이다.

반들반들한 낚그릇엔 밴댕이무침을 비롯해 구이와 회 등 밴댕이로 만든 다양한 음식과 맛갈스러운 밑반찬이 착착 놓인다. 이들이 한데 모여 ‘밴댕이 모듬’을 이룬다. 멸치와 새우, 김을 넣고 문근하게 끓인 김국이에 피타이저로 입맛을 돋운다. 가격은 2인분에 3만 5000원. 고물가 시대에 이보다 흡족한 코스 요리를 찾거나 결코 쉽지 않다. 고려산에 진달래 피는 계절, 밴댕이가득한 식탁이 상춘의 흥을 돋운다.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갖춘 브랜드를 한꺼번에 만나기에 서울 서촌만 한 동네가 없다.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백자 그릇부터 예술적 패턴이 돋보이는 양말까지. 나도 몰랐던 취향을 발견하는 편집숍을 찾았다.



1

감각적 조명과 가구를 경험하는 공간

마이초이스

의자, 소파, 탁자는 물론 조명, 스피커, 공예품까지 일상생활에 유용하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제격인 물건이 모여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서면 코르크 소재의 지붕 아래 빼대만 남은 듯한 나무 골조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기둥 사이로 공간의 여백을 채우는 다양한 제품은 어디서도 본 적 없는 독특한 디자인에 탄탄한 기능까지 갖췄다. 산속의 화강암을 똑 잘라 놓은 듯한 도서 거치대 '마이 스톤'은 두꺼운 아트 북 열 권도 거뜬히 지탱하고, 곧게 뻗은 기둥에 직사각형 나무 블록과 평평한 널빤지를 교차해 조립한 조명은 은은한 빛으로 낭만적 분위기를 더한다. 개성 강한 아이템 중에서도 특히 이목을 끄는 제품은 '리릭 스피커'. 가사를 보여 주는 화면과 크고 작은 스피커 두 개로 이루어진 이 제품은 곡 분위기에 따라 가사의 타이포그래피가 달라진다. 가령 발라드 곡은 잔상을 남기듯 단어가 느리게 떠오르고, 리듬감이 느껴지는 팝송은 단어가 통통 튀었다가 빠르게 사라진다. 음악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닌 눈으로 보는 세계가 열렸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28 문의 02-734-7778





공예품과 생활용품의 조화

3

상상 그 이상의 양말 천국 삭스타즈

2011년에 오픈한 국내 최초 양말 편집숍 삭스타즈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전 세계에서 공수한 독특한 양말을 꾸준히 선보인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브랜드는 '본 메종과 '세컨드 팔레트'. 전 세계 패셔니스타가 사랑하는 프랑스 브랜드 본 메종은 알록달록한 그림 한 점을 양말에 수놓았고, 해외에서 인지도를 넓히고 있는 국내 브랜드 세컨드 팔레트는 낙엽, 물고기 비늘 등 독특한 무늬를 좌우 짝이 다르게 새겼다. 품질 좋은 기본 양말을 마련하고 싶다면 삭스타즈가 자체 제작한 24색 골지 양말을 추천한다. 버려질 뻔한 여러 색상의 실을 조합해 오묘한 색감을 자아내는 자투리 양말도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종류의 양말을 판매하니 마음껏 취향을 탐색해 보자.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6길 9(서촌점) 문의 0507-1353-7615



2

한국 전통 공예의 세련된 재해석 일상여백

한국 작가의 공예품과 예술 작품을 소개하는 갤러리이자 공예 편집숍. 일상에서 쓰기 편한 식기와 찻잔은 물론 화병, 달항아리, 골동 소반, 합까지 판매한다. 공통적으로 실용적이며 예술성이 강조된 물건들이다. 결정 유약을 겹겹이 발라 흰색의 눈꽃 결정이 뿌려진 듯한 윤상현 작가의 찻잔과, 단단한 박달나무를 여러 차례 깎고 다듬어 반질거리는 질감을 끌어낸 최성우 작가의 은행잎 모양 접시가 대표적이다. 작가 고유의 기술과 정성이 깃들어 만들새가 단단하고, 골드를 포인트로 얹은 백자처럼 작은 디테일에서 미적 감각이 드러난다. 1만 5000원짜리 수저 받침부터 60만 원짜리 소반 합까지, 폭넓은 가격대의 제품을 두루 갖추어 누구나 공예품 하나쯤 소장하기 좋다. 작품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사용해 보는 경험을 위해 비정기적으로 식기를 활용한 식사 모임이나 다기를 활용한 다회도 진행한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2-15 문의 02-743-7001



한국철도공사
www.korail.com

4

무궁무진한 인도 수공예품의 향연 두번째인도

인도산 패브릭으로 만든 제품을 모아 놓은 편집숍. 인도 여행을 갔다가 수공예품의 매력에 빠진 장인혜 대표의 품질 좋은 인도산 패브릭을 소개하기 위해 2016년 두번째인도를 열었다. 이곳에서 가장 먼저 눈을 사로잡는 건 다채로운 패턴과 색깔의 원단. 모든 패턴은 색을 입힌 나무 블록을 하나하나 찍어 내는 인도 전통 염색 방식으로 완성한다. 옷과 파우치, 스카프, 앞치마, 이불, 담요는 기본이고, 손으로 정교하게 짠 물고기·양·해바라기 모양의 나무 블록과 인도에서 아프간 여성이 자립을 위해 리사이클링 원단으로 바느질해 만든 인형까지 제품이 다양하다. 종종 자원 순환의 의미로 자투리 원단 나눔도 하는데,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티코스터나 고양이가 장난감 공, 머리띠 같은 소품을 만드는 데 활용하기 좋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로 25 문의 02-737-7788

5 | 일상에 온기를 더하는 물건 보따리상점

대나무, 라탄, 리넨 등으로 만든 생활 도구를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소품 숍. 모든 물건은 손으로 만들어 모양이 화려하진 않아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진다. 시그너처 제품은 손잡이 달린 사각 바구니. 베트남에서 수확한 라탄으로 만들어 짜임새가 단단하다. 책이나 장난감 등을 넣어 두기 좋고, 손잡이가 있어 옮기기도 편하다. 대나무 채반은 말린 식재료나 후숙이 필요한 과일을 담기 좋고, 대나무 사각 바구니는 손수건이나 리모컨 등 잡다한 물건을 한데 모아 두기에 제격이다. 모양새가 소박해 어느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쓸수록 질감이 자연스러워져 오랫동안 곁에 두고 싶다. 수납 기능이 있는 제품 외에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는 천연 수세미, 박테리아나 알레르기에 강한 리투아니아 리넨 손수건도 판매한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옥인길 23-6 문의 @boddaristore



6 |

세월의 맛을 품은 빈티지 보물섬 소백상회

빈티지 마니아인 자매가 운영하는 작고 하얀 가게. 소백상회에는 목직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앤티크 소품이 가득하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곳곳을 다니며 판매할 물건을 취향대로 선별한다. 성모상과 십자가 같은 성물부터 오팔린 소재의 1950년대 보석함, 비눗방울 모양의 1960년대 독일 빈티지 램프까지, 세상에 오직 한 점뿐인 물건들이 저마다 개성을 뽐낸다. 소백상회에서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작동하는 빈티지 물건도 볼 수 있다. 가령 1950년대 프랑스의 빈티지 온도계를 햇빛 아래에 두면 화씨로 표기된 바늘이 움직이고, 1930년대 독일의 커피 그라인더에 원두를 넣고 나무 손잡이를 돌리면 드르드르 소리를 내며 잘 갈린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16 문의 @shop_sobaek



7 |

여행의 영감을 담은 특별한 향수 르플랑 에떼

경남 남해, 전북 전주, 경북 경주 등 전국 곳곳을 누비던 김기환 대표는 여행의 영감을 바탕으로 향수를 제작했다. 시그너처 향은 '남해'로, 유채꽃밭에 둘러싸인 듯 싱그러운 향이 감돈다. 카페 거리로 유명한 '강릉'은 진한 돌체라데 향이, 사과 축제가 열리는 '문경'은 상큼하고 달콤한 청사과 껌질 향이,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은 비에 젖은 바질 향이 난다. 향수마다 색깔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튀지도 않아 다른 향수와 함께 쓰기도 좋다. 12종 가운데 가장 순한 재료를 쓴 '양양'은 향에 민감한 사람도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 휴대하기 편한 10밀리리터 제품은 선물용이나 여행용으로 제격이다. 가까운 일본과 싱가포르부터 유럽과 러시아, 중동까지 수출도 한다. 한국이 궁금한 외국인도 국경 너머 한국의 향기를 즐길 수 있다.

주소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40(서촌점) 문의 @lepleinete_official





목포 원도심을 거닐다

목포의 명물 민어를 새롭게 해석한
 가게부터 근대 역사를 담아낸
 전시관까지, 전남 목포 원도심을
 누비며 맛과 역사를 탐험했다.



정성 가득한 이탈리아 수제 요리를 선보이는 레스토랑. 목포역장직에서 퇴임한 박석민 대표는 요리에 대한 열망 하나로 50대에 이탈리아로 유학을 떠났다. 명문 요리 학교에서 실력을 쌓은 그는 1년 만에 이탈리아 주 정부가 인증한 셰프 자격증을 획득했다. 한국에 돌아와 목포역장에서 피렌체역장으로 인생 제2막을 연 박 대표는 이탈리아의 문화 도시 피렌체를 가게 이름에 넣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새파란 외관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서면 여기가 바로 이탈리아다. 벽면에는 피렌체 두오모, 피사의 사탑 등 이탈리아 명소를 수채화로 그려 넣고,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접시로 곳곳을 장식했다. 피렌체역의 대표 메뉴는 ‘고든램지 비프웰링턴’과 ‘고구마 라사냐’. 고든램지 비프웰링턴은 표고버섯 소스를 입힌 쇠고기 안심을 페이스트리 생지에 싸서 오븐에 구운 요리로 고급스러운 품미가 입안을 가득 채운다. 고구마 라사냐는 고구마와 구운 가지, 라구 소스를 파스타 면과 층층이 쌓은 뒤 목포 특산물 비파청 소스를 곁들여 내는데, 재료 본연의 맛이 그대로 느껴진다.



피렌체역

셰프로 변신한 전 목포역장의 손맛

주소 전남 목포시 해안로237번길 24 문의 061-242-4985



목포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 안철 선생이 운영하던 동아약국이 빵집으로 변했다. 1층 외관을 목조로 개조하고, 많은 사람이 이 역사적 장소를 기억하도록 측면에 ‘옛 동아약국’ 간판을 달고 당시 사진도 붙여 놓았다. 이곳에서 김형준 대표는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우리 밀 천연 발효종 빵을 구워 낸다. 좋은 재료로 좋은 음식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근처 장흥에서 유기 재배한 우리 밀을 주재료로 사용한다. 첨가제는 물론 설탕, 버터, 우유, 달걀을 넣지 않는 것이 김 대표의 원칙. 발효종은 손수 배양해 저온에서 13시간 정도 숙성한다. 이곳의 시그니처는 ‘목포는 빵’이다. 발효한 건포도를 이용해 만든 빵으로 와인 같은 품미가 난다. 짭짤하고 포슬포슬한 치즈감자빵과 고소하고 촉촉한 100퍼센트 통밀 식빵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 매장에 테이블이 없어 포장 구매만 가능하다.

주소 전남 목포시 영산로75번길 12 문의 @goghbooks_



오른손엔 빵을, 왼손엔 책을 든 고흐가 그려진 입간판이 인상적인 책방. 이름부터 특이한 고흐의책방은 빈센트 반 고흐에서 영감을 얻었다. 백선제 대표의 고흐에 대한 진심이 책방 곳곳에 담겨 있다. 고흐의 초상화는 물론 대표작 ‘별이 빛나는 밤’ ‘밤의 카페 테라스’ ‘아를의 침실’ 등이 걸려 있어 마치 고흐의 서재에 들어온 듯하다. 여행객이 남긴 엽서와 책방 그림도 공간 한쪽에 켜켜이 쌓여 있다. 그림, 사진 등 예술 서적이 주를 이루고, 오랫동안 사랑받은 책부터 최근 주목할 만한 신간까지 다양하게 소개한다. 책방 안쪽엔 누구든 편히 쉴 수 있는 테이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 그림을 그리던 한 학생은 자신이 창조한 캐릭터가 목포근대역사관, 연희네 슈퍼 등 목포 명소를 여행하는 모습을 담아 엽서를 만들기도 했다. 현재 이 엽서는 고흐의책방 한판에서 판매 중이다.

빵집 오븐산방

고소한 품미의 유기농 빵 가게

고흐의책방

빵집 옆 지성충전소

목포근대역사관 1·2관
목포근대역사관의 중요한 발자취



목포 역사 기행의 필수 코스, 목포근대역사관. 1관은 구 일본 영사관, 2관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을 개조한 것이다. 한 때 두 건물 모두 철거 위기에 처했지만, 일제 침략과 수탈의 현장을 보여 주는 역사 교육 현장이기에 과거의 흔적을 그대로 보존했다. 붉은 벽돌 외관이 인상적인 1관은 창문 위에 육일기 문양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안으로 들어서면 1897년 목포 개항 역사 자료와 1920년대에 지은 근대 건축물, 축음기·재봉틀 등 개화기 문물을 볼 수 있다. 건물 뒤편에는 유달산 방공호가 자리한다. 일제가 태평양전쟁 때 한국인을 강제 동원해 만든 곳으로, 서늘한 어둠 속에서 애달픈 식민 지배 역사가 느껴진다. 1관에서 도보 3분 거리인 2관은 1920년에 르네상스 건축양식으로 지었다. 유난히 반듯한 모습의 회색 콘크리트 외관이 1관과 확연히 다르다. 일제의 농민 수탈 과정부터 목포 시민의 항쟁 역사에 대한 기록이 전시되어 뜨거운 저항 정신을 엿볼 수 있다. 1관에서 구입한 입장권으로 2관도 관람 가능하다.



주소 전남 목포시 영산로29번길 6(1관, 전화로 18(2관) 문의 061-242-0340(1관), 061-270-8728(2관)

오거리송커피
유달산을 눈과 입으로 즐기는 카페



목포의 자랑 유달산을 케이크로 맛볼 수 있는 카페. 맛은 총 세 가지다. 딸기 맛은 벚꽃 핀 봄을, 녹차 맛은 싱그러운 여름을, 로터스 맛은 단풍이 물든 가을을 담았다. 봉긋 솟은 산 모양으로 만든 빵에 수제 크림을 바르고 연두색 빵으로 주변을 장식했다. 그 모습이 꼭 유달산을 닮았다. 부드러운 빵과 고소한 크림이 잘 어울리고 많이 달지 않아 계속 먹게 된다. 여기에 커피는 이승호 대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시그너처 콜드브루 '목포의 눈물'이 어울린다. 이름처럼 7~8시간 동안 커피를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려 찬물에 우린 목포의 눈물은 쓴맛이 적고 깔끔하다. 메뉴에 들인 정성만큼 인테리어에도 공을 들였다. 1930년대 목조 건물을 개조한 이 공간에는 박물관에 소장되었던 타자기, 오거리 어르신들이 기증한 액자, 소니 캠코더를 연결한 브라운관 TV 등 오래된 소품이 가득하다.

피시테리
세상 어디에도 없는 민어 요리



민어회, 민어전, 민어탕 말고 말린 민어 요리는 어떤가. 피시테리는 여느 민어 전문 음식점과는 다른 민어 요리를 선보인다. 상호명은 생선을 뜻하는 영어 '피시'와 고기와 내장을 소금에 절여 훈연한 육가공품을 뜻하는 프랑스어 '사퀴테리'의 합성어다. 김하연 대표는 사퀴테리 공법을 민어에 적용했다. 목포와 신안 바다에서 잡은 민어를 쓰고, 신안 천일염과 피시테리만의 향신료를 사용해 향과 식감이 독특하다. 대표 메뉴는 '피시테리 플레이트'. 다양한 방식으로 조리한 민어 요리를 한 접시에 담아낸다. 이 중 고정 메뉴는 세 가지. 비파알의 훈연 향과 감칠맛이 나는 '훈제민어', 훈연한 파프리카의 매콤한 맛을 더한 '민어초리소', 다진 민어 살에 고흥산 유자즙을 더해 상큼한 맛이 나는 '민어타르타르'다. 함께 제공하는 민어겹질칩과 민어부레 팝콘도 바삭하고 짭짤한 맛이 별미다.

AI 시대의 예술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할 뿐 AI는 어디에나 있다. 세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예술가는 어떻게?

나는 지금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예술가 아이다(Ai-Da)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얼마 전 여섯 번째 생일을 맞은 그녀의 팔로워 수는 9만 9000명. 영국의 한 갤러리스트와 로봇 회사가 협업해 개발한 작업복 차림의 이 단발머리 로봇은 옥스퍼드셔의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살며, 카메라가 내장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컴퓨터 알고리즘과 로봇 팔을 이용해 그림을 그린다. 그녀의 그림은 지난해 11월 소더비 뉴욕 경매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가격에 팔리기도 했다. 미드저니(Midjourney), 달리(Dall-E)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처음 세상에 나온 3년 전만 해도 AI 예술 작품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AI가 만든 것을 과연 예술이라 할 수 있는지, 예술의 정의에 관한 쟁점은 논쟁은 잠시 접어 두자. 그보다 요즘 예술계가 관심을 갖는 건 ‘예술가들이 AI로 어떠한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는가’다. 곧 미국 LA에는 세계 최초의 AI아트 갤러리 ‘데이터랜드(DataLand)’가 문을 열 예정이다. ‘인간의 상상력과 AI가 융합된 예술 경험을 통해 예술적 표현의 새로운 모델을 확립’하려는 데이터랜드는 첫 전시를 위해 미디어 아티스트 레픽 아나돌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과 코넬대학교 조류학연구소 소장품 등 수백만 개의 이미지와 소리가 포함된다. AI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자연계의 데이터를 다중 감각 설치 작업으로 표현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아나돌은 지난해 북촌의 푸투라 서울에서 아시아 첫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AI를 ‘생각하는 붓’이라고 말하는 아나돌과 그의 팀이 개발한 오픈소스 생성형 AI 모델 ‘LNM(Large Nature Model)’이 창조하는 건 시각적 이미지뿐이 아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열대우림에서 수집한 50만 개의 향기 분자로 만든 독특한 냄새가 풍겼다.

예술을 새로운 표현 수단으로 보는 예술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인 최초로 LG 구겐하임 어워드를 수상한 김아영 작가는 전통 기법과 혁신 기술을 융합해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에 대한 독창적 관점을 제시한다. 광주에 위치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선보인 <딜리버리 댄서의 산: 인버스>는 일종의 공상 과학 애니메이션 영화다. 주인공인 여성 배달 라이더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공간의 경계를 뛰어넘어 여러 세계의 자신과 만난다. 시나리오 단계부터 생성형 AI와 적극적으로 소통한 김아영은 이 대규모 멀티채널 작품에서 게임 엔진과 3D 모델링, 머신 러닝 등의 기술을 매우 세련된 방식으로 활용했다. 특히 매력적인 건 확률을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AI의 작동 방식과 기술적 한계를 다중 우주론이라는 사변적 현상에 매핑했다는 점이다. 전시 공간은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 속 미래 도시 같다. 이 같은 설치 방식과 표현의 도구, 작품 주제의 통일성은 이야기의 설득력을 높이고 관객을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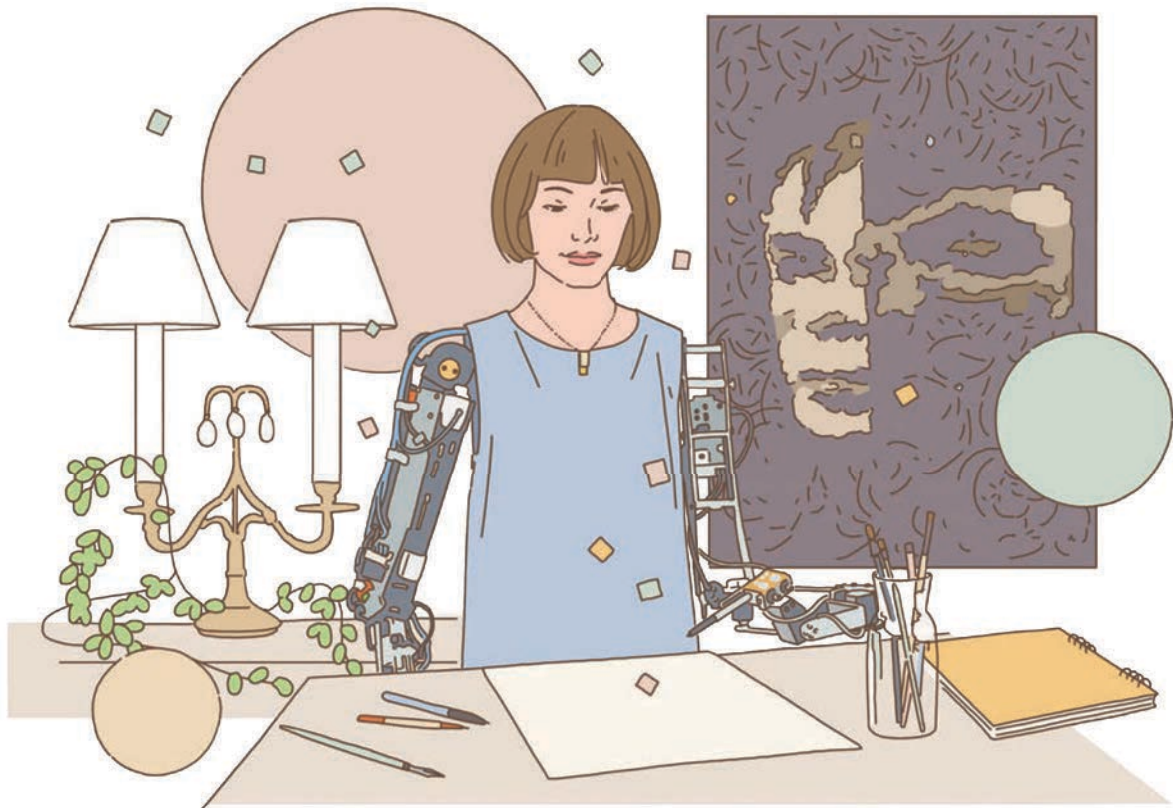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그림을 그리는 수천 청의 작업 방식도 흥미롭다. 중국계 캐나다인 예술가 수첸 청은 MIT 미디어랩에서 연구원 생활을 한 뒤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탐구하는 스튜디오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로봇 ‘더그(D.O.U.G: Drawing Operations Unit Generation)’를 직접 개발했다.

오랜 시간 그의 움직임과 드로잉 데이터를 축적해 온 더그는 헤드셋을 통해 작가의 생체 정보와

뇌파를 감지해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작가에게 새로운 그림을 제안하기도 한다. 더그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프로그램 같은 창작 도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공동 작업자다.

“우리는 지금 예술의 죽음을 눈앞에서 보고 있다!” 미드저니로 완성한 그림이 미술 공모전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에 엑스(X)에는 공포 섞인 댓글이 쏟아졌다. 많은 이들이 AI가 인간의 창의성과 예술성에 종말을 고할 거라며 경계했지만 예술은 아직 살아 있고 세상은 조용하다. 새로운 기술이 인간의 적대적 경쟁자로 치부되어 온 역사는 유구하다. 카메라가 발명된 1800년대에는 사진을 예술의 치명적인 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달리 사진은 회화를 대체하는 대신 실험적인 현대미술 운동의 촉매제 역할을 했고, 예술가들은 리얼리즘의 과거에서 벗어나 추상의 미래로 나아갔다. 뒤샹의 변기나 위홀의 캠벨 수프 강통, 백남준의 TV와 인공지능은 또 어떤가.

지난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의 화두는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였다. 2023년 챗GPT로 본격화된 생성형 AI 시장은 산업 전반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할 뿐 AI는 어디에나 있다. 물론 저작권이나 표절 문제 등에 관한 법적 논의와 수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홀리 헨던과 매트 드라이히스트 같은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AI의 데이터 오용과 저작권 이슈에 대응한다. 이들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업이 AI 생성 작업에 참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인 ‘스폰닝 AI(Spawning AI)’를 만들기도 했다. 수수께끼 같은 알고리즘과 그로 인한 신뢰성 문제도 있다. 대체 시스템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건 매우 큰 불안감을 안긴다. 하지만 모르는 건 배우는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다면 학습하라. AI가 그러하듯이.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전 세계 산업과 기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연례행사이며, 올해는 엔비디아 CEO 잭슨 황이 기조연설을 했다.



1

타임머신에 올라탄 극장가

최근 극장가를 장식한 다수의 영화는 옛날에 상영했던 재개봉 영화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3

1 국내 개봉 10주년을 맞아 개봉 날짜까지 맞춰 재개봉한 <위플래쉬>. 2 압도적 영상미를 보여 주는 <더 폴: 디렉터스 컷>. 3 주연배우 변우석이 뜨면서 1년 만에 재개봉한 <소울메이트>. 4 돌아온 전설의 스릴러 <양들의 침묵>.



2



4

요즘 영화관을 찾는 중장년층은 다소 혼란스러울지 모르겠다. 1999년 작 <쉬리>가 보이는가 하면, <양들의 침묵> <존 워> <위플래쉬> <스윙걸즈> <미드나잇인 파리> 등 장르는 물론이고 개봉 연도도 제각각인 영화들이 중형무진 포진해 있다. 작품들의 면면을 보면 지금 이 2025년인지 2010년대인지, 혹은 1990년대인지 가능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그렇다고 추억에 젖은 올드 팬만 옛 영화를 찾느냐? 그것도 아니다. 젊은 관객들이 과거의 영화를 '디깅'해 신작처럼 즐기는 광경이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바야흐로 재개봉 영화 전성시대다.

재개봉 영화, 돈이 된다

2015년에 2005년 작 <이터널 선샤인>이 재개봉해 32만 관객, 매출액 26억 원으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붐이 일어났다. 그때만 해도 재개봉 영화는 올드 팬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성 혹은 비수기 틈새시장 정도로 여겼다. 그러다 코로나19가 터졌고, 극장은 장기 불황에 휩싸였다. 지금 재개봉 영화가 극장가를 장식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신작 영화 리스트는 빈약하고, 그것을 보완할 재개봉 영화는 돈이 되니까. 재개봉 영화는 수입 가격이 낮은 데다 마케팅 비용도 적게 들어 손익분기점이 1만 명 안팎에 불과하다. 조금만 터져도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작년에 극장 재개봉 영화가 무려 228편, 관객 수는 250만 명이었다. 매출액도 245억 원으로 솟았다. 이는 재개봉작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심지어 최초 개봉보다 재개봉이 더 잘되기도 한다. 작년 재개봉 흥행 1위는 일본 로맨스 영화 <남은 인생 10년>인데, <범죄도시 4>로 경쟁작이 적었던 4월에 재개봉하며 매출액이 이전보다 2.9배 이상 늘어났다. 흥행 2위를 차지한 <비긴 어게인>은 또 어땠고. 2014년 8월 최초 개봉 이후 2020년과 2023년을 거쳐, 2024년 9월에 10주년 기념이란 명목으로 다시 극장에 걸렸다. 그럼에도 23만 관객을 동원, 알짜배기 흥행을 맞췄다. 이런 흥행 공식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오갱 끼데스까"로 유명한 <러브레터>는 지난 1월 무려 아홉 번째 재개봉했다. 이쯤 되면 볼 사람은 다 봤을 것 같은데, 재개봉 한 달 만에 10만 넘는 관객을 극장으로 끌어모았다. 관객이 들고 돈이 되는 만큼 멀티플렉스 영화관들은 재개봉을 아예 시스템화하고 있다. 롯데시네마는 관객들이 놓친 명작을 다시 극장에서 볼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보석 발굴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3월엔 1991년 작 <양들의 침묵>과 2015년 작 <존 워>을 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개했다. CGV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한 편의 작품을 선정해 약 2~3주간 전국 극장에서 상영하는 정기 재개봉 프로젝트 '명작을 어필하다, CGV 월간재개봉 어바웃 필름'을 운영 중이다.

재개봉 영화, 어떤 작품이 걸리나

재개봉작이 극장가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면서 선정 기준이 중요해졌다. 가장 손쉽고도 안전한 방식은 언제 꺼내 들어도 꾸준히 관객을 모으는 클래식 팬덤의 영화를 선정하는 것. 검증된 히트작 중에서도

꾸준한 사랑을 받는 작품이어야 하기에 대체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타깃층이 넓은 멜로 영화나 음악 영화 장르에 집중되어 있다. <러브레터> <노트북> <라라랜드>처럼 여러 차례 재개봉한 스테디 작품이나, 지난 3월에 선보인 <위플래쉬> <스윙걸즈> 같은 영화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음악 영화는 고품질 사운드로 즐겨야 제맛이기에 영화관에서 관람해야 할 이유가 충분한 데다, 돌비관 등 특수상영관에서 관람하기를 원하는 팬층이 많은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 또는 이슈에 맞춘 타이밍을 노리는 것 앞서 언급한 <러브레터>는 '기존 팬덤+일본 현지 개봉 30주년+나카야마 미호의 갑작스러운 타계'라는 이슈가 맞물리며 아홉 번의 재개봉 중 가장 큰 흥행 성적을 낸 경우다. 작년에 재개봉 한국 영화 흥행 1위를 차지한 <소울메이트>는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로 신드롬급 인기를 얻은 변우석의 스크린 데뷔작이란 이점으로, 개봉 1년 만에 재개봉했음에도 흥행했다. 한강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채식주의자>와 <홍타>는 OTT나 IPTV에서도 다시 보기 어려웠지만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과 함께 관심을 받으며 재개봉하는 기염을 토했다. 신작만큼이나 재개봉작도 시의성이 중요해진 것이다.

관객층 넓히는 재개봉 영화 전략

OTT로도 즐길 수 있는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게 하려면 눈길을 끌 요소를 강조해야 한다. 선명한 화질과 좋은 음질을 선보이는 리마스터링 버전이나 무삭제판으로 극장에서만 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기본. 현대적 감각으로 포스터를 새로 만들거나 아쉬웠던 오역이나 의역 등 번역을 손보기도 한다. 시그너처 필름 마크나 오리지널 티켓 등 미끼 상품으로 덕질에 익숙한 MZ세대의 나심비(나의 심리+가성비)를 공략하는 마케팅도 적극 활용한다. 동명 원작 소설을 소설 미디어에 띄우고 컬래버레이션 음원을 발매하는 등 병행 홍보로 역주행 신화를 쓴 <남은 인생 10년>처럼 향후 재개봉 영화들도 한끗 차이로 승부를 볼 수 있는 남다른 마케팅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 쇼츠와 인터넷 밈 등으로 주목받은 영화를 재소환하거나 MZ세대의 디깅 문화에 맞춰 재발굴하고 타깃에 맞춰 홍보하는 것도 요즘 재개봉 공식.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나!"라는 대사가 나오는 장면이 오랫동안 밈으로 인기를 끌면서 18년 만에 재개봉한 <해바라기>나, 최근 관객 17만 명을 넘기며 장기 흥행 중인 <더 폴: 디렉터스 컷>을 예로 들 수 있다. 특히 <더 폴: 디렉터스 컷>은 압도적인 영상미가 소수 관객들에 의해 입소문으로 전해져 오다 짹 짹 터뜨린 케이스다. 급기야 개봉 십수 년 만에 타샘 싱 감독이 내한해 GV(Guest Visit) 행사로 신규 관객을 만났는데, 단독 개봉한 CGV 통계에 따르면 관객의 70퍼센트가 2030세대다. CG 없이 담아낸 전 세계 24개국의 독특한 풍경이 레트로에 민감한 MZ세대의 호기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 관객은 아는 맛으로 즐기고, 신규 관객은 처음 접하는 색다른 맛으로 즐기는 투트랙 방식. 재개봉 영화의 존재감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EXHIBITION

〈로봇드림: 백남준 팩토리 아카이브〉

기계와 인간의 경계를 허물고 조화로운 공존을 꿈꾼 예술가 백남준. 대표작인 로봇 조각 작품을 제작한 ‘백남준 팩토리’의 아카이빙 자료를 전시한다. 연구 스케치, 비디오 모크업, 판화 공방 등 320여 점을 통해 백남준의 작품이 탄생한 과정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토크 콘서트도 진행해 새로운 통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기간 4월 27일까지 문의 02-399-1000(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청보리의 꿈〉&〈꽃들이 말한다〉

서로 다른 시선과 감성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아 온 이웅성·이동해 화가가 부부 특별전을 연다. 이웅성 작가는 봄바람에 푸르게 일렁이는 청보리도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고, 이동해 작가는 집 앞에 핀 다양한 꽃을 통해 자연의 색채와 감성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부부가 전하는 생명의 아름다움에서 삶에 대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는다.

기간 4월 20일까지 문의 061-470-6841(전남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

BOOK

〈쓰기 위해 또 떠납니다〉

13년째 세계를 무대로 가이드북을 쓰고 있는 여행작가 우지경이 일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여행작가는 어떻게 여행하고 글을 쓸까. 자유로움과 불안함 사이에서 프리랜서가 일상을 유지하는 법이 담겼다.

우지경 지음 산지니 펴냄

〈우리가 다른 삶에서 배울 수 있다면〉

무용가 홍신자, 독일 최초의 한국학자 베르너 사세, 젊은 소설가 김혜나가 인도 오로빌에서 만나 삶과 명상, 사랑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홍신자, 베르너 사세, 김혜나 지음 판미동 펴냄

〈베트남 간식, 시간과 시간 사이에서 만난 작고 다정한 것들〉

여행작가 진유정이 베트남 곳곳을 누비며 맛본 간식을 소개한다. 새벽과 아침 사이, 아침과 점심 사이, 시간의 틈새처럼 숨겨진 간식을 세심히 발견해 낸 저자는 “뽀뽀한 일상에 균열을 일으켜 환한 틈새를 만드는 간식은 유머와 달았다”라고 말한다.

진유정 지음 크루 펴냄



VIDEO

〈행복의 노란 손수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교도소에서 6년간 복역한 시마는 출소 후 아내 미츠에를 만나기 위해 엽서를 보낸다. “아직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집 앞 장대에 노란 손수건을 매달아 줘.” 서로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 노란 손수건으로 닿을 수 있을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4월 2일 개봉.

감독 야마다 요지 출연 다카쿠라 켄, 바이쇼 치에코

〈귀신들〉

인간과 똑같이 생긴 시들이 인간과 공존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누가 시고 누가 인간일까. 서로를 끝없이 의심하며 예측 불가능한 전개가 이어지고 팽팽한 긴장감이 지속된다.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서 벌어질지도 모를 뉴스를 미리 들여다보며 상상력을 자극한다. 4월 9일 개봉.

감독 황승재 출연 이요원, 찬희

SHOW

〈소란스러운 나의 서림에서〉

암울한 시대에서 자유를 꿈꾸는 두 사람이 책을 통해 만나는 타임 워크 뮤지컬. 역명으로 연애 소설을 쓰며 독립운동을 하는 1940년의 양희와 시위에서 선배의 죽음을 목격하고 은둔하는 1980년의 해준이 용기를 주고받으며 나아간다. 양희 역에 이봄소리·이지수·박새힘, 해준 역에 정욱진·윤은오·임규형이 출연한다.

기간 4월 8일~6월 21일 장소 서울 et theatre 1(구 눈빛극장) 문의 070-4632-3278

〈생추어리 시티〉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와 어디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두 명의 10대가 겪는 갈등과 방황을 그린 연극. ‘생추어리 시티’는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지역을 일컫는 일종의 은어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인물을 보여 주며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안식처는 어떤 곳인지 질문을 던진다.

기간 4월 22일~5월 10일 장소 서울 두산아트센터 문의 02-708-5001

〈아벤트 시리즈: 나이트 오브 빅뱅〉

매년 4월마다 개최한 스프링페스티벌이 ‘시그니처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포문을 열 첫 공연은 ‘아벤트 시리즈’. 올해는 박종화 피아니스트를 선임해 빅뱅이란 주제 아래 오일러의 디스크, 뉴턴의 진자운동 등 특이한 요소를 음악에 녹여냈다. 이후 연극, 뮤지컬, 전통 공연이 순차적으로 이어진다.

기간 4월 16일~18일 장소 대전 예술의전당 문의 042-270-8333



·Information·

168 코레일 소식 · 170 편의 시설 및 부가 서비스 · 172 열차이용 안내 · 174 비상시 행동 매뉴얼

제14회 철도사진공모전 입선 '도화 속으로' © 장홍식



코레일이 전하는 새로운 이야기

KTX 친환경 페인트로 새 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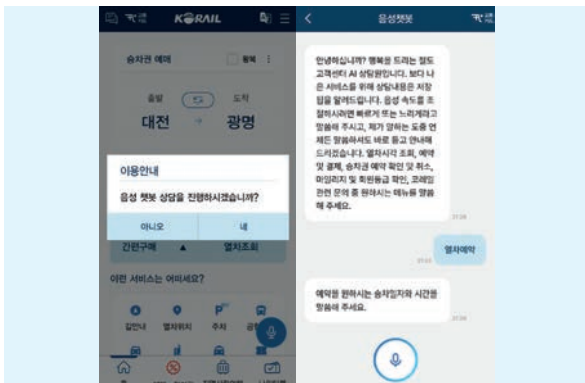
한국철도공사가 2월 21일 경기도 고양시 KTX 차량 기지에서 고속 차량 친환경 도로 적용 품평회를 열었다. KTX-산천 외벽을 기존에 사용하던 유성페인트 대신 친환경 수성페인트로 도색해 새롭게 선보였다. 차체 외벽 도장 상태와 관련해 품질 평가 시행 후 개선 사항을 반영해 모든 고속 열차를 친환경 페인트로 새롭게 단장할 예정이다.

서울역과 부산역에 철도 굿즈 전문점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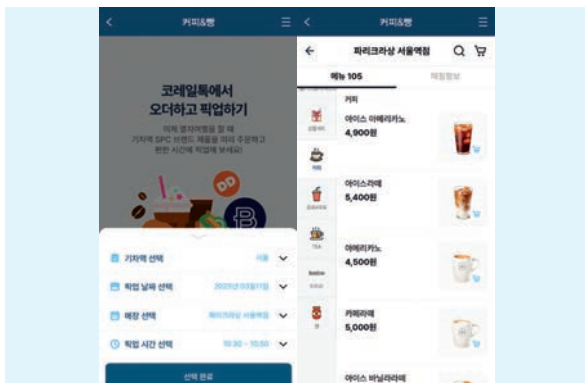
다채로운 철도 기념품을 판매하는 '트레인 메이트'가 3월에 문을 열었다.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부산교통공사, (주)에스알, 코레일유통이 함께 준비해 7일에는 서울역점, 14일에는 부산역점 운영을 시작했다. 철도의 특색을 살린 열쇠고리, 스티커 등 소품부터 카드 지갑이나 에코백, 열차 조립 블록까지 230여 종의 굿즈를 판매한다.

AI 음성 챗봇 활용한 승차권 예약



코레일톡 앱에 시각·지체장애인을 위한 승차권 예약 챗봇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각·지체장애인이 코레일톡 앱에서 로그인하면 음성 상담 안내창이 자동으로 뜬다. 상담원과 대화하듯이 '열차예약' '승차권 구매' 등 원하는 서비스 내용을 말해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다. 승차권 정보 확인 등 코레일톡 앱에서 제공하는 다른 상담 서비스도 음성으로 이용 가능하다.

코레일톡 앱으로 식음료 주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식음료를 미리 주문하고, 역 매장에서 픽업하는 '커피 & 빵'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코레일톡 앱에서 역, 매장, 픽업 시간을 선택해 예약하고 결제까지 마친다. 한국철도공사는 경기도 광명, 서울, 대전, 울산역에 입점한 던킨,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을 대상으로 먼저 운영하고 올해 안에 전국 주요 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KTX 개통 21주년 돌이 하나로 이벤트

행사개요

올해는 KTX 개통 21주년!
21주년을 맞아 KTX 를 통해
둘(2)이 하나(1) 된 이야기를 찾습니다!

참여방법

본인의 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에
#KTX21주년 #KTX돌이하나로 태그와
사연이 담긴 사진과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한국철도공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의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 달면 참여 완료

참여특전

- ★ 우수 사연 참여 고객님께
KTX 운임 50% 할인쿠폰 제공
- ★ 참여하신 모든 고객님 중 추첨을 통해
KTX 승차권 2+1 쿠폰 등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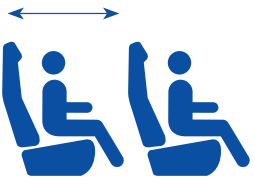
2025.03. 24

KTX 개통 21주년 이벤트

2025.04.10

일반 객실

Passenger Compartment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이동통신망 Free Wireless Internet Service	충전용 콘센트 & USB 포트 Socket & USB Port
			
KTX 930mm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열차 내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 내에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실 서비스

First Class Service

좌석 간격 Seat Space	등받이와 시트 조절 Seat Adjustment	식음료 Refreshment	KTX 미니 도서관 KTX Mini Library
			
KTX 1120mm	의자 팔걸이 버튼을 누르면서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시트를 앞으로 미십시오.	특실 이용객을 위한 셀프 서비스 물품은 KTX 3·4호차 와 KTX-산천 4·14호차 에 있습니다.	단행본은 KTX 4호차 와 KTX-산천 3·13호차 , 잡지·신문은 KTX 3·5호차 와 KTX-산천 3·13호차 지정 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열차 지연 배상 안내

천재지변을 제외한 한국철도공사 귀책 사유로 KTX 및 일반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 ITX-청춘)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배상해 드립니다(지연 승낙 승차권 제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연 발생 시 익일 자동 배상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코레일톡 계좌 이체 신청

KTX 및 ITX-청춘 N카드 이용 안내

모바일 앱 할인 카드인 N카드를 구간과 횟수를 지정해 구입하면 승차권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KTX 및 ITX-청춘을 자주 이용하시는 고객님의 해당 할인 카드로 교통비를 절감해 보세요!

구입 경로 및 이용 안내

코레일톡 앱 → 하단 할인·정기권 탭 → N카드(안내는 ①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철도고객센터(1544-778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 시설

Amenities

화장실 Restroom	장애인 관련 시설 For the Handicapped	수유실 Breast-Feeding Room	물품 보관소 Luggage Storage Section
			
KTX 1·2·4·6·8·13·15·17·18호차와 KTX-산천 3·5·6·8·13·15·16·18호차, KTX-이음 1·6호차, KTX-청룡 1·4·6·8호차, ITX-새마을 1·4·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3·6호차에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석과 장애인용 화장실은 KTX 2호차와 KTX-산천 1·11호차, KTX-이음 3호차, KTX-청룡 3호차, ITX-새마을 3호차, ITX-마음 1·5호차, ITX-청춘 3호차에 있습니다.	유아 동반 고객을 위한 수유실은 KTX 8·16호차와 KTX-산천 4·14호차, KTX-이음 4호차, KTX-청룡 6호차, ITX-새마을 6호차, ITX-마음 3·7호차, ITX-청춘 6호차에 있습니다.	각 객차에 위치한 수화물 보관대에 여행용 가방 등 큰 물건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자동판매기 Vending Machine	의약품 First-Aid Medicine	금연 No Smoking
			
자동심장충격기는 KTX 4·10·15호차 와 KTX-산천 4·14호차 , KTX-산천(원강) 7·17호차 , KTX-이음 3호차 , KTX-청룡 3호차 , ITX-새마을 3호차 , ITX-마음 1·5호차 , ITX-청춘 3호차 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료 및 스낵 자판기는 KTX 5·9·11·13·16호차 와 KTX-산천 6·16호차 , KTX-산천(원강) 3·6·13·16호차 , KTX-이음 3·4호차 , KTX-청룡 2·3·5호차 , ITX-새마을 3·4호차 , ITX-마음 2·6호차 지정 장소에 있습니다.	KTX 열차 내에 상비약이 준비되어 있어 승무원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약품을 제공합니다.	역 승강장과 열차 안은 모두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열차 운행과 건강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열림 버튼 Open-Button(1mins)			
1분 열림 버튼 The Button to Open the Door for 1 Minute 각 객실 출입문 위쪽에 위치하며, 누르면 1분 동안 문이 열립니다.			

KTX 공항버스



6770번,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T1, T2)

운행 시간

광명역: 오전 5시 20분~오후 8시 20분(20~30분 간격)

인천국제공항(T2 기준): 오전 6시~오후 10시 5분(20~30분 간격)

소요 시간 T1 ↔ 광명역: 약 50분, T2 ↔ 광명역: 약 70분

타는 곳 광명역: 서편 4번 출구 4번 정류장

인천국제공항: T1 1층 8B번, T2 지하 1층 45번 정류장

승차권 구입

인천국제공항 → 광명역: 인천국제공항 버스터미널 매표 창구,

티머니GO 모바일 앱

광명역 → 인천국제공항: 전국 기차역 매표 창구, 코레일톡 앱

레일플러스 교통카드 길라잡이

Rail+

철도 회원이 KTX 승차권을 레일플러스 교통카드로 구매 시 1퍼센트 추가 적립,
모바일카드는 KTX 마이리지 전환 사용 가능

교통카드 구매처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모바일카드 다운로드 '레일플러스' 스마트폰 앱(Android)

사용처 전철, 버스, 기차, 택시, 유료 도로, 편의점 등

충전처 전철·기차역, 편의점(CU, 이마트24, 스토리웨이) 등

*** 자세한 사항은 레일플러스 홈페이지(railplus.korail.com)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차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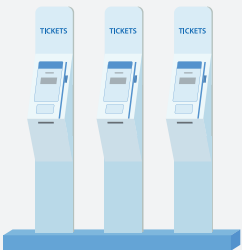
- 열차 출발 1개월 전부터 열차 출발 20분 전까지(코레일톡은 열차 출발 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결제 금액 5만 원 이상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 결제 후 스마트폰 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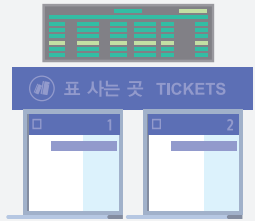
레츠코레일 홈페이지(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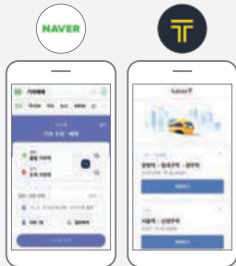
'코레일톡' 스마트폰 앱



승차권 자동 발매기



기차역 내 창구 또는 승차권 판매 대리점



'네이버' '카카오T' 스마트폰 앱

승차권 반환

- 승차권 반환 시에는 환불 청구 시각, 승차권에 기재된 출발역 출발 시각 및 영수증 금액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기한	출발 전		기한	출발 후(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
	월~목요일	금~일요일, 공휴일		
1개월~출발 1일 전	무료	400원 (구입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20분까지	15%
당일~출발 3시간 전	무료	5%	20분 경과 후~60분	40%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각 전	5%	10%	60분 경과 후~도착	70%
			도착 시각 이후	환불 불가

Ticket Boo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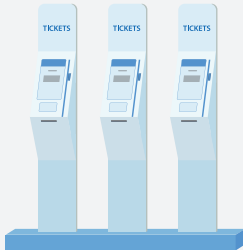
- Tickets can be purchased one month in advance and up to 20 minutes before departure(before departure in KORAIL Talk application).
- Installment option available if paying more than KRW 50,000 by credit card.
- Tickets issued as smartphone ticket or home ticket after pay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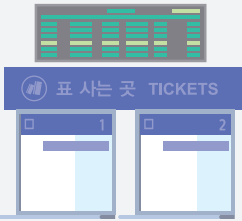
Let's KORAIL Website(letskor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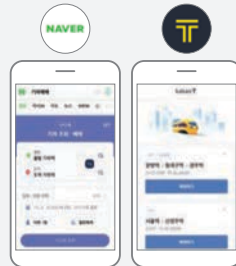
KORAIL Talk Mobile App



Ticket Vending Machine



Ticket Booth or Ticket Reta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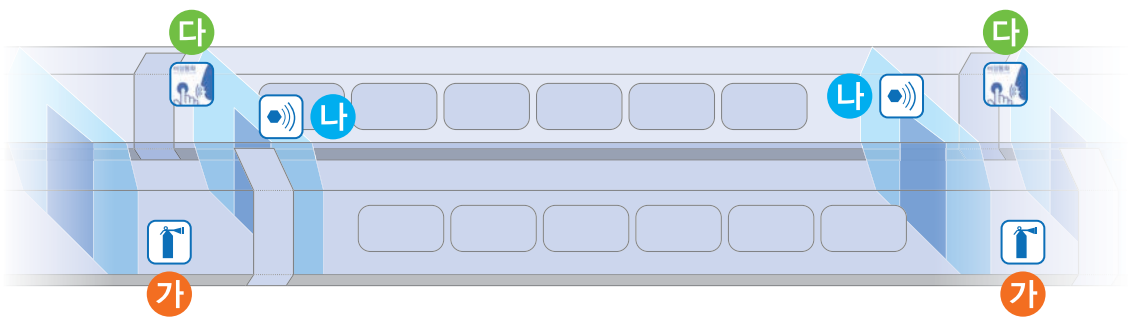
NAVER·KAKAO T Mobile App

Ticket Refund

- Ticket refund value is calculated based on the time of refund claim, departure time specified on the ticket, and original price of ticket on the receipt. Note that a service charge appl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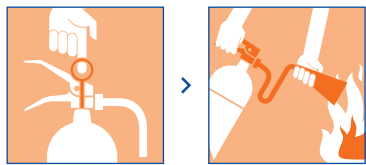
Classification	Before Departure		Classification	After Departure (Request refund at ticket booth)
	Mon-Thu	Fri-Sun, holidays		
1 month-1 day prior to departure	Free	KRW 400 (Free within 7 days from date of purchase)	Up to 20 minutes	15%
Day of departure-3 hours prior to departure	Free	5%	20-60 minutes	40%
3 hours-before departure time	5%	10%	60 minutes-arrival time	70%
			After arrival time	No refund

비상 상황 Emergency Proced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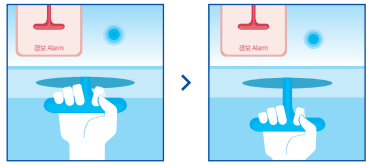
가 소화기 사용 요령 How to Use a Fire Extinguisher

- 승강문 옆 소화물실 아래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안전핀을 뽑는다.
Take out the fire extinguisher from the box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pin.
- 불이 난 장소에 골고루 분사한다.
Spray evenly at the area that is on fire.



나 비상 알람 장치 Emergency Ala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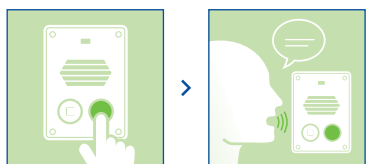
- 객실 내부 출입문 상단의 적색 손잡이를 아래로 당긴다.
Pull down the red emergency alarm handle located at the upper part of the interior door.
- 비상 경보음이 객실 전체에 울린다.
The emergency alarm goes off.



다 승무원 통화 장치 Contacting the Train Cr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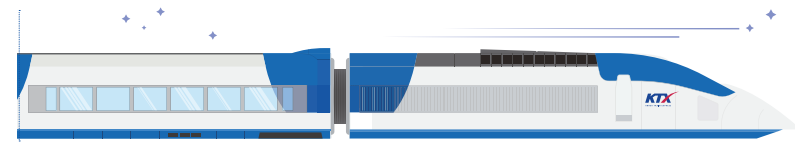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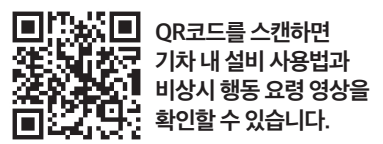
KTX |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승강문 옆의 버튼을 누른다.
Press the intercom button next to the exterior door.
- 승무원이 응답하면 상황을 알린다.
Notify the train crew of the sit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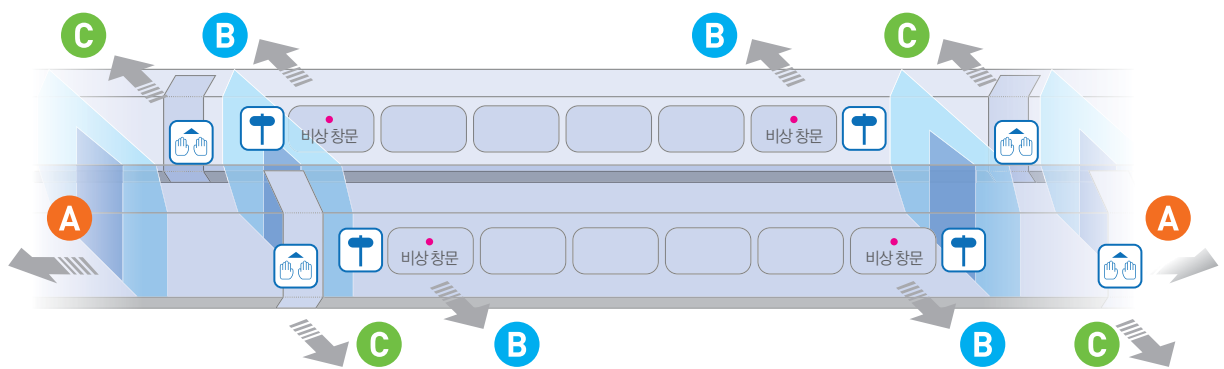


ITX 새마을 | ITX 마음 | ITX 청호

- 승강문 옆 또는 객실 안에 있는 승객용 비상 호출기 커버를 연다.
Open the emergency intercom box beside at the door or inside the car.
- 마이크를 꺼낸 후 적색 램프가 켜지면 마이크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상황을 알린다.
Take out the microphone. Once the red light is on, press the button on the left of the microphone and inform the situation.



비상 탈출 Emergency Escape Route



A 다른 객차로 대피 Escape to an Unaffected Car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다른 객차로 안전하게 대피한다.
부상자, 노약자, 임산부가 먼저 피신할 수 있도록 돕는다.
Follow instructions of the train crew and move to an unaffected car. Provide assistance to evacuate wounded, elderly people and pregnant women first.

A 터널 탈출 요령 Escape from a Tun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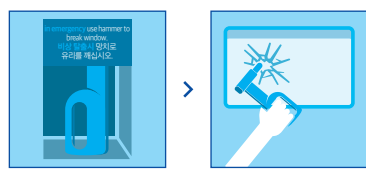
터널 내 비상사태 시 자세를 낮추고 비상 유도등을 따라 가까운 터널 입구로 탈출한다.
Follow the emergency exit light to go out the tunnel exit.

A 비상 사다리 위치 Emergency Ladder Location

KTX: 5호차, 14호차 | KTX-산천: 2호차(일부 편성 4호차)
KTX-이음: 1호차, 6호차 | KTX-청룡: 1호차, 8호차 | ITX-새마을: 4호차
ITX-마음: 2호차, 4호차, 6호차, 8호차

B 비상 창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mergency Wind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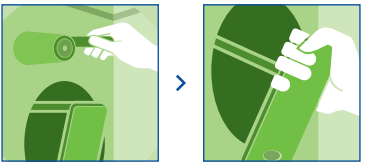
- 승강문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객실 양쪽 끝에 있는 비상 탈출 망치의 보호 커버를 깨고 망치를 꺼낸다.
If you cannot escape through the exterior door,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hammer box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take out the hammer.
- 양 출입문 쪽에 있는 비상 창문 유리를 망치로 깨고 옷으로 창틀을 덮은 후 그 위로 나간다.
Break the emergency window at both ends of each car and exit. Put clothing over the windowsills to protect yourself from broken glass.



C 승강문을 통한 탈출 Escape through Exterior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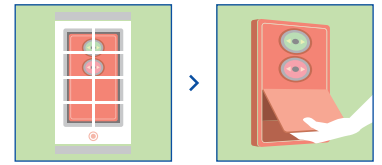
KTX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고 위 손잡이를 아래로 돌린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rs next to the exterior door and pull the upper handle down.
- 아래 손잡이를 앞으로 당기고 승강문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ower handle down and push the do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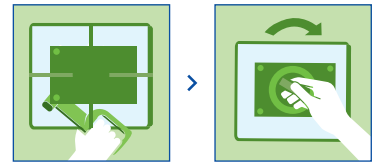
KTX 산천 | KTX 이음 | KTX 청룡 | ITX 마음

- 승강문 옆 위쪽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glass cover of the emergency release level next to the exterior door.
- 핸들을 2회 당기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handle twice and push the door.



ITX 새마을 | ITX 청호

- 승강문 옆 비상 열림 장치의 뚜껑을 깨다.
Break open the emergency door release box.
-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승강문을 밖으로 밀어낸 후 옆으로 밀고 나간다.
Pull the lever to the right. Push door forward and to the si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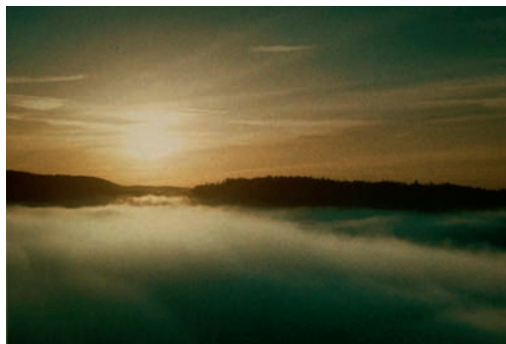


김사월과 떠나는 음악 여행

이맘때 소리 내어 불러 보고 싶은 이름이 있다.
누구보다 이 계절에 어울리는 싱어송라이터
김사월이 기차 안에서 듣기 좋은 음악을 추천한다.



음악 듣기



플레이리스트

EDITOR 김수아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당신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출발 어떤날

여행이 시작되었음을 스스로에게 알려 주려고 이 음악을
들어요. 한번은 서울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Drive My Car 에이코 이시바시

영화 <드라이브 마이 카>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두 주인공이 탄 자동차가 천천히 움직이는 장면에 삽입된
음악이죠. 조용히 결의를 다질 때 찾아 들어요.



White Gloves 크루앙빈

미국 캘리포니아에 머무를 때 자동차 안에서 크루앙빈
음악이 자주 흘러나왔어요. 뒷좌석에 실려 어디로
가든지도 모른 채 달려가던 시절이 생각나는 곡이죠.



April Come She Will 사이먼 & 가펑클

이야기 속 작은 철학을 발견하고 싶은 날이면 사이먼 &
가펑클의 노래를 골라요. 기차길 풍경과 어쿠스틱 기타
아르페지오 소리가 잘 어울린답니다.



Mystery Train 엘비스 프레슬리

이 노래와 제목이 같은 영화에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해
그의 고향을 무작정 찾아가는 연인이 나와요. 기차는
철없지만 사랑스러운 이들을 태우고 꼭 달리죠.



밤에서 아침으로 가는 통신 김사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담은
노래예요. 작은 것이라도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어보세요.



김사월

2014년 뮤지션 김해원과 공동 작업한 앨범 <비밀>로 데뷔했고,
이듬해 발표한 솔로 앨범 <수잔>으로 2년 연속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포크 음반상을 수상했다. 영화 <은빛살구>에
음악감독으로 참여하고 이현 시인과 함께 에세이 <고상하고
천박하게>를 내는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년 4월에는
'김사월 쇼'를 열어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대표곡으로
'누군가에게' '디폴트' 등이 있다.

© 유어썬더, 피스

문화가 스며드는 행복울주

2025

울산옹기축제

Ulsan Onggi Festival



5.3. 토 - 5.5. 월
울주군 온양읍 외고산옹기마을

주최 · 주관

울주군재단

후원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울산광역시의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



